

본공 스님 (불광사 주지)
皮骨만 남긴다는
각오로 수행하자
8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1994년 10월 15일 창간



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3월 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986호 2014년 4월 2일 수요일

당우부터 생태까지 전통사찰 '모든 것' 살핀다

전국에 산재된 전통사찰을 효과적으로 보존 · 관리하기 위한 전수조사 실시된다.

조계종 문화부는 3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전국 942개 전통사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늘어가는 전통사찰을 효과적으로 보존 · 관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기준 마련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은 전통사찰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은 물론 조사기준 조차 제대로 마련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조계종 문화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4개년 전수조사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를 위해 조계종 문화부는 지난해 전국 9개의 사찰을 표본으로 조사항목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전수조사 형태의 본조사로 전환됐으며, 현재 조계종 문화부는 산하에 관련 연구원들 11명이 참여하는 전문 연구팀을 구성했다.

올해의 조사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분포하는 141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하며, △2015년 광주 강원 전북 전남 제주 권역 273개 △2016년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276개 △2017년 서울 대구 경북 252개 등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종 문화부 전통사찰 보존위한 전수조사 실시
2017년까지 4개년 계획… 942개 전통사찰 대상
문체부 40억원 지원 건축물 · 토지 등 총체적 조사

이번 전수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목록화 조사와는 달리 건축, 사찰 식생, 성보문화재, 토지 등 전통사찰을 구성하고 있는 총체적 요소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이다.

건축물의 경우 비지정 문화재를 중심으로 보존상태와 보존가치를 파악하고, 최근에 지어진 건물도 전통사찰의 경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사찰 식생조사를 통해서는 사찰 주변의 숲이 가지는 경관성과 방재성을 검토하고, 사찰 조경 식재 현황을 살피며, 사찰 내에 산재한 역사적 · 유전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노거수를 비롯한 주요 수목들을 발굴하는 등 전통사찰의 자연경관을 구성하는 인위적 · 자연적 식생의 개략적인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토지 조사는 사역과 사역 내 토지의 지목을 파악을 주목적으로 하며, 중심 사역 내의 행위제한구역도 조사한다. 또한 사찰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성보의 현황 및 새롭게 조성된 주요성보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연말에 정책보고서로 발간해 전통사찰의 보전 ·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며, 전통사찰들이 제기하는 지원 요청 등의 업무처리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사업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이번 조사는 전통사찰의 건축물, 문화유산, 소유토지 등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사찰 내 비지정 건조물의 현황을 파악하는 최초의 기회이며, 그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사찰림이나 노거수, 조경과 같은 사찰식생을 전통사찰의 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3월 25일 광화문광장에서 AI 살처분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동대책위가 출범했다. 사진은 생매장 당한 닭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가축의 예방적 살처분 중단하라"

조계종 등 종교 · 시민단체, 살처분 대책위 출범

"지난 1월 조류독감(AI) 발생 후 현재 1100만 마리의 닭, 오리들이 살처분됐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정부는 멀쩡한 닭과 오리들을 싹쓸이 죽이는 현대판 홀로코스트를 중단하라."

AI 살처분 방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가는 가운데 종교 ·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공동 대책기구가 출범했다.

조계종 사회부와 불교환경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 18개 단체는 3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축 살처분 방지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대책위는 "야만적인 정부의 살처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체를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AI 발생원인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 국회차원에서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방역 문제 등 국민들의 의구심을 반영하여 정부 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예방적 살처분과 불법 생매장 중단 △예방백신 제도 도입 △공장식 밀집사육 폐기 △살처분 전담기구 구축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향후 농림 식품부 장관 면담, 관련 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지역 · 사찰은 '不二'… 유기적 결합 필요"

26일 조계종 포교종책연찬회서 '한 목소리' 강조

"나는 우리 동네 사찰을 보고 있으면 농촌의 현실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농촌이 머리가 허연 어르신들이 늘어나듯이 사찰도 머리가 허연 노보살들만 보입니다. 스님들은 우리와 잘 만나주지도 않고 서울의 높은 분만 상대합니다. 우리 지역에 사찰은 없습니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이 3월 26일 개최한 제55차 포교종책연찬회에서 소개된 한 지역농민회장의 지역사찰에 대한 불만과 푸념이다.

현재 한국불교에서 "지역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조계종 포교원은 올해 기조를 '지역전법 중심 토대 구축'으로 삼았다. 이번에 열린 포교연구실의 연찬회도 이 같은 기조의 실천에 일환이다.

이날 연찬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현재 지역 불교가 여러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데는 의견을 함께 했다. 제대로 된 지역 포교 모델이 부재하다보니 경험도 적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포교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마을공동체 설립이 제안되고 있지만 지역 사찰이 이를 이끌 수 있는 주체로서의 역량에 지역민들은 회의감을 피력한다는 것이다.

노휴 스님은 "규모가 크던 작던 농촌 지역 사찰은 인적?물적 자원과 경험이 부족하고 민주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운영 리더십이 전무하다"면서 "사찰 주지 스님들의 인식 변화없이는 내적 변화는 물론이고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사찰 공동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모범 사례들은 존재한다. 백담사의 경우 2011년 지역인 용대 2리와 백담마을기업을 2013년 용대향토기업을 만들었다. 특히 용대향토기업은 백담사와 마을 간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로 한해 매출이 16억 원에 달한다. 이 기업에는 마을 주민 197가구가 전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례를 소개한 박주언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사회적경제 지원본부장은 "백담사는 어려운 마을을 위해 버스 사업권을 넘겼고, 마음은 공동체 형성과 이익금을 살려냈다"면서 "마을의 수익을 창출해 일자리를 확충하고 이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훌륭한 모범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노휴 스님


박주언 본부장

'지역은 포교 텃밭' 구호만
사찰 · 지역 유기적 결합해야
마을 기업 등 사례 발굴하고
도농 연계 법인 설립 필요
종단, 종책 개발 · 지원 나서야

이어 "지역 포교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도농 사찰간의 연계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대표 법인들을 만들어 생산물의 유통 및 판매 수익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종단 역시 지역 포교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뤄졌다.

이석심 조계종 총무차장은 "종단 정치의 과잉으로 각종 종단 행정과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포교와 수도권 포교활성화라는 흐름에 부합하는 제도적 합의들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포교원은 필요 예산과 인력을 이 사업에 집중해 교구와 지역사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휴 스님은 "34대 집행부의 교구중심제와 포교원의 지역포교 활성화 실현을 위한 정책팀 의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제도 개선과 민관협력 개발, 소프트 콘텐츠 개발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신설… 불교교양 강화

'지혜와 자비' 영역 개설해 불서 확대

동국대가 교양교육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다르마칼리지(Dharma College)'를 신설하고 불교교양강좌를 대폭 확대했다.

다르마칼리지에서 대표적인 교양교육과목은 '세계명작세미나'다. 존재와 역사, 경제와 사회, 자연과 기술, 문화와 예술, 지혜와 자비 등 5개 영역으로 명작을 나눠 4학기 동안 125권을 읽게 한다.

당초 동국대는 '지혜와 자비' 영역을 포함하지 않은 4개 영역을 준비하다 본지를 비롯한 교계 언론의 비판에 '지혜와 자비' 영역을 개설하고 불서를 대폭 늘렸다. 총 125권 중 25권이 불서다.

이 밖에 다르마칼리지는 다전공 지식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인문, 사회, 자연, 기술 등 학생들의 지적 소양을 갖추게 하는 교양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다르마칼리지 산하 창의혁신소통센터를 설치해 한국어 작품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황종연 동국대 교수(다르마칼리지 학장)는 "인문, 사회, 자연 분야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인문 고전교육 중심으로 교양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넘어선 통섭교육을 기반으로 동국대만의 교양 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986호 INDEX

새사찰 건축 13
안양 한마음 선원

종합 2·3
총무원장 선거 변화 해법 모색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취임
월하 스님 탄신 100주년 행사

연중기획 탐·진·치 줄이기 5

신행 · 복지 6·7
다시 뛰는 병원불자연합회
복지관 어르신 재능기부 프로그램

화엄만다라 16·17
김복희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디자인 등록원

명품 청동 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선학원 이사진 제적원 제출 결의

3월 26일 임시 이사회서

조계종 중앙종회가 선학원의 권리를 보장한 총무원법 제24조를 삭제한데 대해 선학원이 이사진 전원 조계종 제적원 제출이라는 강수를 뒀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3월 26일 서울 안국동 중앙선원 2층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재적 11인 가운데 10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이사회는 종단과의 현안문제 중 법인법과 관련해 논의한 결과 임원진 전원이 제적원을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이사장 및 삼직 이사를 포함한 11명 이사 전원과 감사 스님 2인 등은 즉석에서 제적원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처리에 대해서는 이사장 스님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학원 이사회는 법인법과 관련한 성명서와 수덕사 관련 이사회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선학원 이사회는 '법인법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문' 을 통해 법인법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으며, 수덕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혜사와 간월암을 원상회복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신성민 기자

韓中日 불교도 세계평화 기원한다

제17차 한중일불교교류대회 11월 18~20일 도라산 전망대

한국, 중국, 일본 불교의 우의를 다지기 위한 제17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오는 11월18일부터 20일까지 파주 도라산전망대 등지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중국불교협회, 일중한 국제불교교류협의회는 3월 26일 서울 진관사 함월당에서 제17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예비회의를 갖고 일정과 장소, 주제 등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17차 대회를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키로 합의했다. 첫째날인 11월18일에는 환영만찬, 11월19일에는 민간인출입통제선 내 도라산 전망대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와 '불교사상에서의 평화의 실천' 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강연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한 한중일 삼국불교계는 제9차 한중수행교류단 교류를 오는 8월22일부터 29일까지 중국에서 40명 규모로 진행하고, 한일수행교류단 교류사업은 올해에는 진행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이번 예비회의는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과 중국불교협회 수석부회장 학성 스님 등 한중일 불교계 지도자 25명이 참가했다. 신성민 기자

총무원장 선거 변화 해법 나오나

조계종 총무원 4월 16일 공청회… 선거 개선 방안 논의

조계종 현안 중 하나인 '총무원장 직선제' 에 대한 의견 수렴과 실효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조계종 기획실은 3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를 오는 4월 1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총무원장 선거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비롯해 선거법 관련 입법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열린다.

조계종 선거 제도 개선은 해묵은 과제 중 하나이다. 이미 2012년 10월 조계종 쇄신위원회가 '총무원장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한 바 있다.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 역시 주요 공약으로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변화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34대 집행부는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가 직접 나서 관련 공청회를 여는 것은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반증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되는 방안은 △집행부가 제시한 준직선제 △완전 직선제 △원로회의가 제안한 선거인단 축소 △결사추진본부의 제안인 선추천, 후선출 등 4가지이다.

준직선제는 4,000명 규모로 비구는 대덕이상, 비구니는 비구 선거인단의 25%로 배정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비구는 3,036명, 비구니는 559명으로 총 3,795명이 선거인단에 참여하게 된다.

34대 집행부 준직선제 방안부터
완전 직선제 시행 · 선거인단 축소
쇄신위 先추천 後선출안 등 논의

공청회까지 사전의견 접수 받아
"종도들 의견모아 6월 종헌 개정"

10,000명 규모의 완전 직선제는 구족계를 수지하고 분한신고를 마친 비구 및 비구니를 전체를 선거인으로 선거가 진행된다. 선거인 수는 비구 5,602명, 비구니 5,281명 총 10,883명이다.

원로회의가 제시한 선거인단 축소 방안은 교구본사 주지 25명과 종회의원 81명만 참여하는 것으로 기존331명(교구선거인단 250명+종회의원 81명)에서 총 106명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종단 쇄신위원회가 제시한 선 추천, 후 선출 제도 경우 먼저 총무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구종회에서 직접선거로 1,000명 규모의 선거인단을 뽑아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다.

공청회는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에 대한 발제와 4가지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지며, 본사주지 1인 · 각 종책모임별 1인 · 비구니 종회의원 1인이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조계종 기획실은 종도들의 의견 수렴과 원할한 토론을 위해 사전의견을 접수 받는다. 접수는 우편과 이메일로 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에 대해 기획실장 일감 스님은 "선거 제도 개선은 종도들의 뜻이기도 하고 제34대 집행부의 공약"이라며 "의견들을 취합해 제도 개선 방안을 입법화해 빠르면 오는 6월 종회에서 관련 종헌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들이 모여져 종단 선거제도 개선에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수행 · 전법으로 종단 미래 밝힐 것"

천태종 제17대 총무원장 춘광 스님 취임법회 27일 구인사서… 2천명 참석


천태종은 3월 27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제17대 총무원장 춘광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 제17대 총무원장 춘광 스님의 취임법회가 3월 27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봉행됐다. 법회에는 조계종 일면 호계원장 스님을 비롯해 진각종 회정 통리원장,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쉐칭(學誠) 스님, 중국 영광사 창짱(常藏) 방장 스님 등 국내 · 외 불교지도자와 정관계 인사 등 2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도용 종정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랫동안 선을 닦고 수행을 쌓아 그 공덕 인연 중생들에게 모두 회향하니 모든 신중들, 이 도량과 대중을 옹호하고 깨끗한 믿음과 기쁨으로 함께 따르게 하는구나. 봄이 오면 천하의 풀이 절로 푸르니 한마음 한뜻으로 맑은 연꽃 피워내어라"고 설했다.

이어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 '수행과 전법' 으로 종단의 미래를 밝히겠다"며 "승가와 재가의 교육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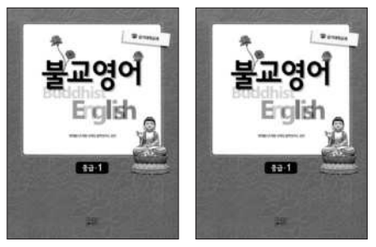
앞서 감사원장 용암 스님도 고불문을 통해 "총무원장의 직분은 최상승의 보리도를 구현하기 위해 세간법을 아우르며 만중생의 불심 증장을 도모하여 종단과 도량을 외호하고 내실을 가꾸어 가는 자리입니다. 춘광 스님은 오늘 총무원장 취임법회에서 막중한 직분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천태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에 봉공하며 국가 번영의 기틀을 다져나갈 것을 서원하오니, 그 서원을 두루 증명하시고, 그 원력을 길이 보전케 가피하소서"라고 부처님께 고했다.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축사도 이어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은 축사를 통해 "춘광 스님은 불교전통문화에 남다른 관심으로 많은 후학들을 육성하셨다고 알고 있다. 스님의 원력과 실천은 천태종단은 물론 한국불교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리라 여겨진다"고 격려했다.

법회후에는 행사비를 절약해 단양 지역 불우이웃을 돕는 뜻 깊은 자리도 마련됐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이 자리에서 단양군 조성덕 사회복지협의회장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 김주일 기자

학인 스님, '불교영어' 공부하세요

조계종 교육원 〈불교영어 중급 1,2〉 발간



조계종 학인 스님들의 영어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승가대학 교재가 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는 3월 28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승가대학 영어 교재인 〈불교영어 중급 1,2〉(사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초급편을 발간한 바 있다.

〈불교영어 중급 1,2〉는 각 권 마다 세 부분으로 나눠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불교영어 중급 1〉은 불교 일상 영어회화와 △불교 교리와 수행 △사찰과 문화 등을 다루고 있으며, 〈불교영어 중급2〉에는 천도재와 사찰의례, 한국불교의 고승 등을 다룬 한국불교 의례 챕터를 추가했다.

〈불교영어 중급 1,2〉의 강점은 당장 사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예문을 만들고 이를 연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사찰 안내부터 템플스테이, 전화 대화, 박물관 관람까지 상황 설정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참선, 염불, 절 등 수행과 불교 미술, 불교 윤리, 경전 해설까지 영어로 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학인 스님들의 불교 영어 담어 암기를 돕기 위해 각 장의 주요 어휘들을 모아 단어장을 제작 · 수록했으며, 교재에 수록된 영어 회화 및 단어를 원어민들의 목소리로 녹음해 MP3 파일로 제작했다.

원어민 MP3는 조계종 홈페이지 종무자료실의 승가교육 부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불교 영어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다.

조계종 교육원은 "현대 사회는 급속한 세계화가 이뤄지고 있고 한국 거주 외국인도 15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스님들의 어학 능력 향상은 미래 승가교육의 과제"라면서 "〈불교영어 초급?중급 1,2〉는 스님들이 불교영어를 익힘으로서 한국불교 세계화의 인재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주지 교체 놓고 팔공총림 '내홍'

성문 스님, 기자회견 열고 반발… 종단 "법대로 처리"

총림 지정 이후 첫 주지 교체를 앞두고 있는 팔공총림 동화사가 내홍에 휩싸였다.

동화사 소임자들이 3월 20일 임회에 앞서 현 주지에 대한 괴소문과 잇단 언론의 오보들은 사실무근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임회에서는 '종정 진제 스님 주위에 괴한이 나타났다' 는 제보로 인해 경찰과 사설경호원까지 등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동화사 집행부는 '진제 스님 주변에 복면을 쓴 괴한이 나타났다' 는 사건에 대해 21일 정식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동화사 현 주지 성문 스님은 3월 24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일련의 사건에는 진제 스님이 차기 주지로 지목한 효광 스님(종정예경실장)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해 갈등의 불씨를 당겼다.

성문 스님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차대한 사중 인사 문제를 현직 주지인 소납을 비롯해 총림 주요 구성원들과 사전 논의 한 마디 없던 것은 총림의 기본정신과는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후임 주지로 지명 추천받기 위해 직접 공권력을 끌어들여 임회를 강행한 것은 총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경스러운 행위"라면서 "이 장본인이 종정예경실장 효광 스님이라는 사실에 충격과 함께 총림의 앞날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효광 스님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성문 스님의 기자회견 이후 루머들이 확산되자 조계종 총무원이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조계종은 25일 기획실장 일감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동화사 주지 임명을 비롯한 각종 종무행정을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은 총무원의 소중한 책무"라며 "공정한 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사실여부가 없는 주장은 자제해 주실 것을 바라며, 종단 안정과 화합에 함께 하실 것을 권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계종 종책모임 삼화도량은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동화사 주지 임명은 방장 스님의 뜻 따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삼화도량은 "성문 스님은 기자회견이 진제스님의 심중을 어지럽히는 부끄러운 작태였음을 깨닫고 발로참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이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3월 20일 열린 임회에서 총림 차기 주지로 효광 스님을 지목했다.

〈본지 3월 26일자 2면〉

신성민 기자



제58회 용왕대재 및
南北통일기원 대법회

모든 공덕 불자님께 회향하옵고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에서는
제58회 용왕대재 및 남북통일 기원 대법회를 여러 큰스님과 신도님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일 시 : 2014년 4월 14일(월요일) 음력 3월 15일 오전 10시
장 소 : 해동용궁사 대웅보전

海東龍宮寺 住持 聂庵 合掌

동참안내
■ 大佛조성 천일기도 입재
■ 초청법사 : 혜인 큰스님
■ 축하공연 : 가수 김용임, 서진, 국악인 김영서 특설무대
■ 용왕기도 : 3만원 영가 천도재는 무료봉행
■ 온 라 인 : 부산 032-01-041244~3, 국민 119-01-0196-150 (예금주 : 주병남)
■ 교 통 : 용궁사 버스 1,2호선 운행(승차장과 시간 홈페이지 참조요망) (1회 기사 011-584-9238)
■ 접 수 처 : 전화 051)722-7744, 7755 / 팩스 051)722-7333

"영축산 보름달의 法, 널리 선양하자"

월하 스님 탄신 100주년…통도사서 추모 다례

월하(月下 · 1915~2003)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리는 행사가 3월 25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렸다.

영축총림 통도사 노천문도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주지 원산 스님 등 스님들과 김기현 · 주호영 국회의원, 영화배우 명계남을 비롯한 신도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이날 다례재 법문을 통해 월하 스님을 '영축산의 지지 않는 달' 이라고 칭송했다.

진제 스님은 "오늘 월하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 맞아 가풍이 한결같아 영축산에 무한한 서광을 주시니 은혜가 한이 없다. 월하 대종사의 가르침을 잇는 길은 선법을 닦아 널리 선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례에서는 월하 스님의 육성 법문, 행장 소개, 스님들의 헌다와 헌향이 진행됐다.

노천문도회 회장 성파 스님은 월하 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소설책 〈영축산에 달 뜨거든〉을 봉정했다.

총 448쪽인 〈영축산에 달 뜨거든〉은 고승열전의 작가인 윤청광 씨가 월하 스님의 생애를 소설 형식으로 재조명한 것이다.

사부대중 1천여 명 침석

소설집 〈영축산…〉 봉정

세미나 열고 학술적 조명



노천문도회장 성파 스님이 3월 25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월하 스님 탄신 100주년 다례재에서 헌다를 하고 있다.

이날 원로의장 밀운 스님은 봉은사 토지 매각과 다시 토지를 되찾는 과정에서 월하 스님이 2억원을 시주해 현재 봉은사 자리가 있음을 공개하며 생전 업적을 소개하기도 했다.

법회 이후에는 월하 스님의 수행과 포교, 복지 활동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세미나가 경내 해장보각에서 열렸다.

'월하 스님의 계율을 통한 수행의 재조명' 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이 직접 나서 '월하 스님의 정화불사'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동명대 교수 송운 스님이 '계율정신에 입각한 월하 스님의 수행' 을, 하춘생 동국대 경영대학원 사찰 경영 주임 교수가 '월하 스님의 포교인식과 실천이념' 을, 이혜숙 금강대 교수가 '근대불교복지의 회고와 전망– 월하 스님의 자비원 설립을 중심으로' 를 각각 주제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수행엄격 · 전법교화 거침없던 선사"

하춘생 교수, 월하 스님 포교 · 실천 이념 조명



"월하 스님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대중포교를 위해서라면 거침없는 판단과 행동을 보이셨다. 이러한 포교원력 앞에서는 부처님 금란가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춘생 동국대 경영대학원 사찰경영과정 주임교수〈사진〉는 이날 진행된 학술세미나에서 '월하 스님의 포교인식과 실천이념' 발표를 통해 스님의 포교원력을 재조명 했다.

하 교수는 "월하 스님은 통도사 대중들의 반대에도 서울 강남 천막법당에 부처님 금란가사와 자장율사 금란가사를 이운해 친견법회를 갖도록 허락하는 등 포교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며 "통도사 수련회에도 청소년 2,600여명이 몰려 노숙을 하거나 행사를 취소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통도사와 극락암 사이 밤나무 과수원을 깎아 캠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통도사는 경내에 대규모 신행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한번에 3,000여 명이 들어가는 설법전이 건립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하 교수는 "스님은 전법교화에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는 한편 스스로는 엄격한 수행자의 면모를 보였다"며 "스님은 사중에 손님이 찾아와 공양물이 부족하면 스스로 끼니를 굶었으며 통도사 보광선원 조실로 추대됐을 때에도 시자를 두지 않고 직접 속옷과 양말을 빨고 발우도 씻으며 방청소까지 했다. 동국대 이사장 재직 시에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이렇게 돈을 모아 포교에 희사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정화 당시에도 '청정가풍 불조혜명' 의 기치를 든 월하 스님이 있었기에 통도사 정화는 다른 사찰과 달리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소치 빙상여제 3인방 구룡마을 방문

심석희 · 조해리 · 공상정 선수 어려움 겪는 한성찬 군 격려 방문 '날마다좋은날' 홍보대사에 위촉



소치 쇼트트랙 빙상여제 3인방은 3월 22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성찬 군의 집을 방문해 옷, 신발, 가방 등을 선물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소치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심석희, 조해리, 공상정 선수가 무허가 판자촌이 모인 서울 강남 구룡마을을 찾았다. 불우한 환경에서도 축구 국가대표를 꿈꾸고 있는 한성찬(경동방송통신고 2)군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4월 19일 열리는 '2014년 행복바라미 캠페인' 의 첫 발을 내딛는 의미로 3월 22일 구룡마을에서 행복바라미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 앞서 세 선수는 구룡마을 앞 마당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신용카드단말기 가 내장된 모금함에 신용카드로 기부를 하고, 지역주민에게 쌀을 기증했다.

이날 세 선수는 성찬 군의 집을 방문해 옷, 신발, 가방 등을 선물하고 금일봉을 전달하고, 직접 과일을 깎아 먹으며 성찬군과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성찬 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자질을 인정받아 강남구청에서 선별한 축구 유망주로 선발되는 등 국가대표로의 꿈을 키워 왔으나 빈곤한 가정형편 때문에 축구부가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한성찬군의 아버지는 한성찬군이 어려서부터 허리 디스크와 당뇨 등의 지병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으며, 대신 식당일 등을 하며 성찬군을 뒷바라지 해왔던 어머니마저 지난 해 담관암과 신장암 수술을 받아 경제적 형편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한 군은 이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지역 축구팀 강북FC의 후원을 받으며 선수로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조해리 선수는 "오늘 잊지 못할 하루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고, 준비한 선물 예쁘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항상 파이팅하고 같은 운동선수로서 응원하겠다"고 한성찬군을 격려했다.

한 군과 동갑내기인 심석희 선수는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딴 금메달을 한 군의 목에 직접 걸어주며 "나도 처음에 강릉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그리 좋은 환경에서 훈련한 것은 아니었다. 성찬 군은 이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훈련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하다보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성찬 군은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에 출전해 꼭 금메달을 따고 싶다. 오늘 많은 용기와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세 선수에게 행복바라미 대국민 모금 캠페인 행사에서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정한신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은 "선수들이 같은 또래 그리고 소외된 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날마다 좋은날은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전국 16개 시 · 도 108곳에서 불교계 기부문화축제인 '2014 대한민국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을 개최한다. 4월 19일 12시 개막을 시작으로 20일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바라미' 를 진행하며, 수원,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 도시에서 주요행사를 열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철도 문제, 대화 해결에 지속 관심을"

철도노조 집행부, 자승 스님 예방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철도노조 집행부가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지난해 철도파업 중재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김상노 해고노동자 대표 등은 3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했다.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함께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 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 덕산 스님 등이 참석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시간이 흘러가며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며 "파업참여자 해고와 강제전출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노조 측에 피해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노조 자산의 가압류가 진행돼 해고자들을 위한 생계비 지원 등이 끊킨 상황이다"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뒤에 사측은 파업참여자 130명을 해고하고 284명을 정직처분했다. 또 철도노조에 28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가압류가 진행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불교계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며 "대화기구에서 원만히 해결하는데 힘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행동으로 하면 과실이 있는 만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을 지혜와 인내로 잘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흥천사, 서울 첫 한옥 어린이집 설립

25일 기공식… 사찰 토지 제공 · 구청 예산 지원



서울 성북구 흥천사는 3월 25일 구립 어린이집 기공식을 열고 서울시 최초 한옥 어린이집 설립 불사의 첫삽을 떴다.

서울시 최초 한옥어린이집이 성북구 흥천사에 설립된다.

흥천사(주지 정념)는 3월 25일 구립 어린이집 기공식을 개최했다. 흥천사 구립어린이집은 서울시의 '1동 2어린이집' 정책과 성북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약, 주지 정념 스님의 토지 무상 제공이 함께 맞물려 진행됐다.

2012년 5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에 민관공동연대 참여신청서가 제출돼 7월 확정됐으며, 지난해 2월 조계종에 승인 후 설계에 들어갔다.

이날 기공식에서 정념 스님은 "주민들의 정성이 모인 어린이집은 성북구와 돈암동의 시설"이라며 "지역 어린이들이 자연과 동화돼 건강하게 자라 행복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에 개원하는 흥천사 어린이집은 지상2층 연면적 493㎡ 규모이다. 1층에는 원장실, 조리실, 영아반 보육실이 설치되고 2층은 교사실, 유아반 보육실로 운영된다. 어린이집에는 교사, 조리사 등 15명이 근무하며 0~5세 어린이 85명이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아미타부처님께서 남섬부주 대한민국 현지사 대전분원에 나투시다!!

현지사 대전분원은 아미타부처님께서 상주하시고 서방극락세계와 링크(연결)되어 있는 미타성전으로서 모든 염불행자들을 극락세계로 이끌어가는 정토의 관문입니다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대전분원 4월 정기법회 : 4월 20일(일) 오전 9시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37회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 042)525-5325

어느날 광명만덕 큰스님의 염불삼매 중 무량억종광으로 나투신 아미타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 칭명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라고 여쭈신 말씀에 아미타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부처님을 일심으로 칭명하면 업장이 소멸된다. 가정이 편안하며, 만나는 인연마다 선하고 착하다. 죽음을 맞이하여 편안히 갈 수 있다.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경전을 읽고 다리니 하며 지극정성으로 아미타불을 칭명하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그 중생의 소원을 섭수하여 버리지 않으며, 심신이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지며, 죽으면 왕생극락까지 할 수 있다네!"

현지사 '초파일 10만 봉축등' 접수합니다
업장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는 초파일 봉축등 접수하여 부처님 회상과 인연 맺고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합니다

아미타불 재일 행사 : 매월 음력 5일, 오전 10시 30분
현지사 재일 : 음력1일, 15일, 18일(지장재일), 25일, 오전10시 30분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현지사 대전분원 미타성전 042)525-5325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일 주 문



통도사 육군훈련소 수계법회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3월 29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군장병 수계대법회를 개최했다.



참나를 찾아가는 대화

동국대 국제선센터 센터장 수불 스님은 4월 8일 오후 5시 동국대 국제선센터에서 시민 간화선 프로그램 '참나를 찾아가는 대화'를 가졌다.



낙동강 용왕대재 대법회

대구 달성군 무심사 주지 무심 스님은 4월 13일 오후 1시 '낙동강 방생 및 용왕대재 대법회 봉행'를 봉행한다. (053)616-8080



선학원 감사 선임

대구 보성선원 주지 한북 스님은 3월 26일 선학원 임시이사회에서 감사로 선임됐다.



박명숙 작가, 홍련암에 도자기 기증

박명숙 무량광도예 대표는 3월 15일 양양 낙산사 홍련암을 찾아 작품 '연꽃잎 큰항아리'를 비롯한 작품을 기증했다.

조계종 기획문화특보 만당 스님 임명



조계종 종책특보단 기획문화특보에 중앙종회의원 만당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 만당 스님에게 기획문화특보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종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만당스님은 1992년 서옹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96년 청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영광 불갑사 무각선원 주지, 불갑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제15대 중앙종회의원, 불교광장 종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대운당(大雲堂) 성문(盛文) 대종사 3월 24일 입적



승정 대운당(大雲堂) 성문(盛文) 대종사가 3월 24일 오후 3시경 원적에 들었다. 세수 76세, 법랍 64세. 영결식은 3월 27일 오전 9시 용암사에서 승정원장으로 봉행됐다.

대운당(大雲堂) 성문(盛文) 대종사는 박원명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해 1950년 남벽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75년 봉원사에서 국묵담스님을 계사로 대승보살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수료했다. 봉원사 주지, 중앙종회 부의장, 총무원 교무부장, 제 3대 원로회의 부의장 등을 지냈다. **김주일 기자**

"지역 거점 '명품대학' 특성화 노력"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 총장

"많은 위치를 두고 경주에 동국대 지역캠퍼스가 자리한 것은 불교문화를 되살리고, 불교정신에 따른 인재양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차별화된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참사람 인재를 키워내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3월 26일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그동안의 변화를 소개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이 총장은 2014년 핵심과제로 △내실 있는 국제화 추진 △효율적 경영시스템 구축 △인적 · 물적 인프라 개선 △재정건전화 설정 △브랜드 가치 제고 △특화된 교육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이 총장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원 문제,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취업률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소개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2012년 10월 이계영 총장이 부임하며 먼저 학제개편을 통해 41개 학과를 30개 학과로 조정했다. 특히 대구 · 경북 지역의 첨단의료 산업 육성과 기계산업 등의 흐름에 맞춰 의생명공학과와 기계부품시스템공학과를 신설했다.

이계영 총장은 "단과대는 인재양성을 위한 행정서비스 시스템일 뿐으로 중요한 것은 학과와 학생"이라며 "단과대학의 구분을 넘어 중복된 학과를 융합하고, 대학본부와 학과간 직통 체계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맞춤형 학제 개편으로 경쟁력 강화

불교인재 배출 파라미타 칼리지 신설

재능기부 등 지역연계 활성화

비전있는 인재 양성 '파라미타 칼리지'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지역인재의 경우 진로에 대한 갈등이 많기에 진로 및 생활상담 등을 진행하는 교양과정인 파라미타칼리지(PARAMITA College)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파라미타칼리지에서는 기숙공간을 교육공간화했다. 기숙생활을 하는 56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도 비교과 학습활동과 상담 등이 진행된다.

파라미타칼리지에는 연구 등의 직무를 맡지 않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전담 학사지도교수' 5명이 배치된다. 또 자기계발을 위한 '대학생활과 자기계발 1,2' 등이 교양과목으로 진행된다.

신입생들의 1:1개별 면담과 온라인 면담 등도 진행되며 요가, 다도 등 인성교육, 영어, 영화 속 중국문화 등 글로벌 교육, 리더십 교육도 진행된다.

지역 영향력 강화 · 기업 연계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지역 사회 · 기업과 상생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한의대, 의대 등의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재능기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참사람재능나눔센터를 건립했다. 또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학내에 개소했다.

이계영 총장은 "천년고도 경주에 흐르는 정신은 불교의 실천사상을 통한 국민통합"이라며 "경주시 · 기업 등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참인재를 배출하는 명품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진락 스님, 동국대에 5억원 쾌척

숭림사 유치원 월급 18년 모아 기부



부산의 작은 암자에서 수행정진하며 평생을 어린이들을 가르쳐온 비구니 스님이 종립대학인 동국대에 5억원을 기부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부산 숭림사 주지 진락 스님(66세, 동국대 경주캠퍼스 한문학과 졸업)〈사진 오른쪽〉. 진락스님은 부산 녹산동 숭림사 옆에 숭림사 유치원을 지난 1996년 개원해 운영 중이다. 스님은 숭림사 주지이자 유치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18년간 월급으로 받은 돈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왔다. 기회가 된다면 의미있는 곳에 사용하겠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절 살림이나 유치원 살림을 할 때도 쌀한톨, 돈 한푼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동국대 이사장인 정련 스님이 대학에 소중한 정재(淨財)를 기부해달라는 권유를 하자 스님은 흔쾌히 그동안 모은 정재를 내놓았다. 진락 스님은 "승가의 삶이라는 게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출가하고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순리"라며 "출가 수행자는 뜻을 가진 이들을 돕고 배려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본분을 지켜 후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대학이 잘 알아서 뜻깊은 곳에 사용해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노덕현 기자**

"수행자 위상 바로 세우기에 진력"

전국푸른수행자회 상임대표 해월 스님



'맑고 깨끗한 수행자'를 모토로 최근 발족된 전국푸른수행자회(상임대표 해월)가 3월 26일 단체 발족 동기와 향후 계획을 알리는 기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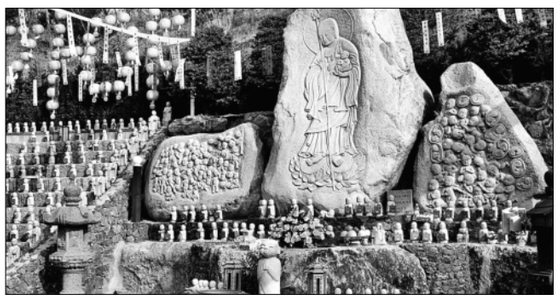
해월 스님〈사진〉은 불교계의 미약한 수행정신을 문제 삼으며 "불교가 노화현상에 걸렸다. 문제는 교단을 구성하고 있는 스님들이 이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수행자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불교의 역할에 고민하는 차원에서 스님들이 뜻을 모으게 됐다"며 창립 취지를 밝혔다.

스님은 "종단이 아닌 개개인의 수행 문제에서 위기의식을 느꼈다"며 "수행자간 방법과 형태가 다양화되다 보니 수행자들이 서로에 대해 불신과 거부가 높다. 수행 공동체 일원으로서 문제점을 느끼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도권에 들지 않으면 수행하기 힘든 문화도 문제다"라고 말했다.

앞서 2월 27일 대구 관오사에서 창립총회를 연 전국푸른수행자회는 상임대표에 해월 스님(해인사 승가대학장), 공동대표에 반산 스님(원각사 주지), 강설 스님(전국선원 수좌회 복지분과위원장), 비구니 철환 스님(해인사 약수암 한주)를 선출했다. 집행위원장은 청운 스님(남산 대원정사), 사무처장은 현산 스님(인천 해인사포교당 우리절), 운영위원은 부명 스님(백령도 몽운사 주지)이 맡는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남양주 구담사 자모암 낙성식



태아영가 천도 전문도량인 남양주 구담사(주지 지율)는 3월 23일 대법당에서 '자모암 낙성식 및 삼존불 신중탱화 점안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을 증명대법사로 모시고 봉선사 회주 밀운 스님, 포천사암련 회장 왕산 스님 등 600여 대중이 동참했다.

지율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태아영가 전문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두의 노력으로 불사를 원만회향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무욕무심으로 정진해 가겠다"고 밝히고 함께한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계 기황후 헌다식 올려 '눈길'



한국국제선차문화연구회는 3월 21일 행주 기씨 종중과 함께 연천읍 상리에 자리한 기황후 능에서 헌다식을 개최했다. 헌다식에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前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 등 스님들과 최석환 〈차의 세계〉 발행인을 비롯해 행주기씨 대종회 기순홍 회장, 최옥자 전통진흥회 이사장, 허흥식 한국학중앙연구소 명예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삼론종, 천안함 호국영령위령대재



천안함 침몰 4주년을 맞아 천안함 46장병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법회가 3월 26일 충남 서천 천용사(주지 지경) 관음전에서 삼론종 후원으로 봉행됐다.

이날 영산재는 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삼론종 승정 지운 스님의 집전으로 대령관욕과 상주권공에 이어 스님과 불자들의 헌화분향, 삼론종 총무원장 지민 스님의 추모사, 부종정 인봉대종사의 법문, 원각사 주지 성덕 스님의 발원문,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 제9호 살풀이 춤 전수조교 변승희 씨의 살풀이 순으로 진행됐다. **정혜숙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2014 빛고을 관등축제



4월 26~27일 광주공원 앞에서 연등 밝히고 화합 한마당

4월 18일 광주시청 사거리에 장엄등 '미륵사지 탑' 점등

▶빛고을 장엄등 미륵사지 탑

■ 2014 빛고을 관등축제

행사명	일시	장소
관등법회(봉축법요식)	4월 26일 오후 6시 30분	광주공원 앞
	부처님 나투심을 기념하는 봉축법요식	
대동한마당(봉축음악회)	4월 26일 오후 7시 30분	광주공원 앞
	봉축을 기념하는 음악회	
전통등 만들기	3월 22일~23일 오후 2시	불교회관 2층
	광주천 주변에 장식할 전통등을 만드는 행사	
봉축탑 점등식	4월 18일 오후 7시	광주시청 앞 사거리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기념봉축탑을 점등	
전통등 전시회	4월 26일~5월 9일	광주공원 앞 광주천
	광주천에 다양한 전통등을 설치해 불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아름다운 등을 볼 수 있는 행사	
시민문화한마당	4월 26일~27일	광주공원 앞
	불교단체와 함께 다양한 전통 체험행사 참여	

■ 봉축한마당

행사명	장소	일시	주관 단체
제1회 나무숲 어린이수계산림	동원사	5월 3일 오후 2시	동원사, 나무숲, 동련광주지구
금남로에 피어나는 5.18희망의 등 밝히기	충장로~금남로	4월 25일~5월 27일	광주전남불교NGO연대
2014 붓다의 희망선물	청소년가장세대	4월 28일~30일	자비신행회
전법용 소책자 발간	금남로	4월~5월	광주불교교육원
연꽃등 불 밝히는 날	광산구우산근린공원	5월 6일	아시아밝음공동체
붓다와 함께하는 힐링 나들이	광주하남콜롬버스시네마	5월 17일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
산길따라 물길따라 어르신 나들이	화순군	5월 15일	대해노인복지센터
국군 함평병원 환우를 위한 위문공연	함평병원	4월 30일 오후 2시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전남대학교 점등식 및 제등행렬	전남대	5월 9일 오후 5시	전남대 불교학생회
광산구청 봉축행사	광산구청	4월 29일	광산구청불자회
제1회 지역주민을 위한 대중공양	동구지역 노인정	5월 2일	맑고향기롭게 광주모임
부처님 오신날 떡 보시	광주시청	5월 2일 오후 3시	광주시청불자회
외국인 근로자 제등행진	하남공단	5월 6일 오후 6시	광주외국인복지센터
제1회 광주시민사회단체에 전하는 붓다의 떡공양		5월 2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제5회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연꽃등만들기	광주우체국 앞	5월 4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 시민문화한마당(광주공원앞 특설무대)

행사명	일시	주관 단체
제7회 빛고을 연꽃문화제	4월 26일 오전 10시	(사)동련 광주지구
청소년음악놀이한마당	4월 26일 오후 3시	(사)광주파라미타청소년협회
시민과 함께하는 비빔밥	4월 26일 오후 5시	
영산회 시연	4월 27일 12시	전통불교영산회
외국인문화축제	4월 27일 오후 1시	광주외국인복지센터, (사)해뜨는복지센터
전통茶 시연및 들차 시범	4월 27일 오후 3시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연 광 합장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30 불교회관

전화 062-385-131 팩스 062-376-1311

貪心 줄이기
탐심
–더 나누자

3천 시간의 身施行… 봉사가 생활

목욕봉사 10년
힘들고 궂은 일 도맡아
몸에 대한 착 여의고
보시바라밀 수행

부처님은 가진 것이 없어 보시를 못한다거나 가진 것이 있더라도 재물이 아까워 보시를 못하는 이들을 위해 '무재칠시(無財七施)'를 설했다. 그 중 신시(身施)는 자신의 몸으로 남을 도와주는 보시다. 누군가를 위해 팔다리를 부단히 움직이고 땀을 흘리는 일은 자신의 몸에 대한 착을 여읜 일이기에 곧 보살이 되는 수행이다.

여기 누군가의 손이 되어 3000시간을 움직였던 이가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목욕봉사팀인 수신회 소속 유인섭(73) 팀장. 하루에 1시간씩 1년이면 360시간, 거의 10년에 달하는 시간을 그는 일주일에 두 번, 국립재활원과 보훈병원에 할애해왔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씻기는 목욕봉사에 줄곧 참여해온 것이다. 그가 사는 곳에서 병원까지는 2시간 남짓. 그는 그 거리를 꼬박 자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생각하며 찾아갔다.

유 팀장이 봉사를 시작하게 된 건, 10여 년 전 조계사 불교대학에 입학해 불법을 배운 것이 계기였다. 젊었을 시절부터 줄곧 남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발심으로 이어지기까지 몇 십년이 흘렀다. 그 시간을 메우고 싶었던지, 그는 불교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복지재단을 찾아가 무조건 힘든 일을 시켜달라고 했다. 동기들이 다들 포교사의 길을 선택할 때였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 생각했죠.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이다 싶더라구요. 비록 내 몸이 힘들더라도 이왕 하려면 나



유인섭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수신회 팀장(사진왼쪽)

하나만이라도 정말로 도움이 절실한 곳에 가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욕봉사는 봉사 중에서도 가장 힘들다고 소문난 분야다. 2인 1조가 되어 환자 1명을 30분씩 씻기다 보면 하루에 많게는 10명을 목욕시킨다.체력소모는 둘째치고 몸이 굳은 환자들이 쏟아내는 배설물도 처리하는 등 궂은일을 도맡아야 한다. 수신회에 몇 년째 인력충원이 안 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그는 그 공로로 2006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처음 봉사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주위의 우려가 상당했다. 친구들은 '네가 받아도 시원찮은데 무슨 봉사냐'며 만류했다. 아내의 걱정도 아는 터라 그는 그간 힘에 부친다는 말도 아껴둬야 했다.

처음에는 일흔까지만 하자고 시작한 봉사가 이제는 여든까지 이어지면 좋겠다는 유 팀장. 왜 계속 봉사를 하냐고 물으니 "정든 환자들을 보면 그만둘 수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제는 봉사가 생활이 되었다는 그의 삶은 보시바라밀 그 자체였다. 그는 보시한다는 생각없이 보시를 하고 수행한다는 생각없이 수행을 하고 있었다.

보시가 수행인 까닭은 내 것을 내려놓는데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히 생길 수 밖에 없는 나에 대한 본능적 집착을 놓기에 수행인 것이다. 내 것을 내려놓고 부단히 나를 비워내는 유 팀장 눈에는 형형한 법의 본성이 가득 차있다.

배현진 기자

瞋心 줄이기
진심
–더 낮추자

"독약 먹으라하면 안먹듯 화를 멈추어야"

'진'은 불만족에서 오는
정신적 괴로움의 상태
자비 수행으로 극복해야

"탐진치 중 진(瞋)을 보통 분노 성냄이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팔리어로 해석을 하면 '싫어하는 것을 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해석하다보니 '진(瞋)'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제로는 불만족에서 오는 정신적 괴로움을 모두 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다 그 의미가 훨씬 넓다고 할 수 있죠."

제따와나선원 선원장 일묵 스님은 '진'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모두 성냄으로 들어간다. 덥다, 짜증난다, 슬픔, 비탄 등에서 시작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성냄의 단계까지 '진'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다.

대부분은 이 화를 표출하거나 참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묵 스님은 화는 자비로서 극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화가 날 때는 참는 것보다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고 하던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화를 내는 것은 오히려 화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화의 속성을 이해해서, 대상의 안 좋은 면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대상의 장점을 찾는 자비 수행을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묵 스님은 결국 진을 비롯한 탐진치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독약을 먹으라고 하면 아무도 먹



일묵 스님 (제따와나선원 선원장)

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삼독심을 일으키는 것이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화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스님은 그 첫 번째 단계로 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화를 불씨에 비유해봅시다. 불씨가 막 시작 될 때 끄려 하면 불은 사그라집니다. 하지만 불씨가 너무 커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되죠. 이처럼 우리의 화도 빨리 알아차리고 이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띠 즉 마음챙김 수행이 필요하다고 스님은 강조한다. "사띠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다면 거울을 봐야 닦을 수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마음대로 살다가 법문 한마디 듣고 금방 깨달아 이를 실생활에 응용하기는 어렵죠. 평소 꾸준한 수행을 통해 이를 훈련해 놓으면 화를 다스리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화를 내고 안 내고 문제는 자신의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다. 즉 상대가 밥상을 줬는데 그걸 받으면 그 밥상은 내 것이 되지만 이를 안 받으면 상대방의 밥상이 되는 것이다. "결국 꾸준히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면 화나는 상황이 와도 이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상황을 대처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결국 자기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상황을 바라보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나옵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癡心 줄이기
치심
–더 비우자

"자기 수행법 선택… '부처님처럼 살자' 발원"

끊임없이 몸·마음 잘 다스려
땡감이 홍시되듯 수행해야
'나' 해체 '불교 요가' 추천

여래장사상(如來藏思想)을 연구하는 데에 평생을 바친 이평래 충남대 철학과 명예교수(원효학연구원장)는 "치심 극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수행으로 이는 내면의 불성, 지혜를 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평래 교수는 최근 인간의 본성을 낙천적 · 긍정적 · 실천적 청정성으로 보는 〈대승기신론〉에 대한 강설을 펴냈다. 이 교수는 "중생의 마음이 곧 부처님 마음이요, 어리석은 중생이 곧 붓다의 씨앗"이라고 강조하며 "수행을 하면 언젠가는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수행의 중요성을 말했다.

이 교수는 "치심을 극복하는 길은 지혜를 잘 가꾸는 것"이라며 "지혜의 완성은 바로 대승불교의 수행의 정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모든 이들에게는 지혜가 내재되 있으며 이러한 지혜를 잘 가꾸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의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땡감이 홍시가 되는 것처럼 수행을 꾸준히 하면 지혜가 오는 것이 이치이자 원리"라며 "끊임없이 자신을 잘 다스리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수행에 있어서는 마음수행과 함께 몸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불교의 수행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선 뿐만 아니라 염불 등이 있다. 한국은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

간화선, 일본은 묵조선 성향, 미얀마에는 위빠사나 수행, 티베트에서는 진언 만다라 수행을 한다"며 "이러 수행법을 자신에 맞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불교 요가를 좋은 수행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수행법을 추천했다. 이 교수는 "인도의 모든 종교는 고행과 요가 두 가지 수행법으로 나뉘는데 요가는 궁극적으로 해탈을 하기위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중 불교요가는 나를 해체하는 것이 목적(무아)으로 하기에 힌두교의 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요가와는 지향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시간이 나는대로 불교요가를 하고 있다는 이 교수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수행을 해야 한다"며 "마음만 고차원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모두 섬겨야 한다"고 말했다.

"반야심경을 보면 관세음보살께서 지혜를 완성하실 때 무엇을 알아차렸습니까. 반야심경은 지혜를 완성함으로 인해서 탐진치의 삼독을 다스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초기불교에서도 계정혜 삼학을 얘기하는데, 이는 삼독을 극복하는 수행법입니다. 계율을 철저하게 잘 실천함으로 인해서 탐심을 극복하고, 성내는 진심을 선정을 통해서 극복하며, 지혜를 증득함으로서 치독을 다스립니다. 삼독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불제자로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수행해 삼독심을 극복해 갑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중국유학생 위한 템플스테이 열린다

불교문화사업단, 유학생 320명 대상으로 28일 첫 행사


한 학생이 다도체험을 하고 있다.

템플스테이를 통한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문화교류의 장이 열린다.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번 템플스테이는 지난 2월 10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동국대학교의 업무협약(MOU) 이후 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며 "유학생 320명을 선별해 특별 템플스테이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도 2학기부터 본격적인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4회에 걸쳐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한국 전통문화 및 템플스테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과 문화 체험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참가 학생들은 마곡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수덕사에 있는 불교유적을 답사할 예정이다. 또한 '차훈명상' '자애명상' 등을 통해 학업으로 지친 심신을 치유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 · 중 불교의 이해'와 '템플스테이와 한국불교의 이해' 등 한국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강의가 중국어로 제공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박 3일간의 체험을 완료한 학생들에게 템플스테이 서포터즈 인증서를 발급하고, 향후 더욱 폭넓은 템플스테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전통불교문화콘텐츠로 하여금 한 · 중 문화교류 확산에 기여하고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것"이라며 "템플스테이가 학업에 지친 유학생들의 고단한 마음을 위로하고 참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번 동아시아권 대상층을 위한 맞춤형 템플스테이를 통해 높아지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와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템플스테이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불교문화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승만보살정진 1500일 회향 수계법회

4월 13일 육지장사서, 다문화가족 50명도 수계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은 4월 13일 양주 육지장사에서 승만보살 1500일 회향기념으로 열리는 '제4회 승만보살 10대원 수계법회'를 거행한다.

이번 법회는 불교여성개발원 회원을 비롯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열린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사장인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계사로 지난 해 7월부터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에 진행하던 다문화가족 법회 참가가족 50명이 수계를 받는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여성재가불자가 설주가 돼 전승되는 〈승만경〉을 통해 여성불자들의 대승보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2009년 승만경연구회를 발족해 승만경 대중화에 힘써왔고, 그 일환으로 2010년 〈승만보살 10대원 수행정진 입재식〉을 시작으로 100일 단위로 법회를 열어왔다.

이번 수계법회에는 불교여성개발원 회원은 물론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여성개발원은 4월 8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아함경 · 니까야 읽기 집중반'을 진행한다.

동국대와 금강대, 원광대에서 강사를 역임한 백도수 씨가 지도강사로 '아함경 읽기-아함경에는 알아야할 불교의 광맥이 있다'를 강의한다. 이미령 불광교육원 전임강사가 '니까야 읽기-네 개의 주제로 만나는 니까야'를 강의할 예정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해 불교경전강좌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아함경 · 니까야 읽기 집중반을 개설한다. 강의는 초기경전에서 가려 뽑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아함경 속에 나타난 여성과 관련된 경전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여성의 수행, 출가, 가정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한 초기 불교 입자을 공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02)722-2101

이나은 기자

"의료 봉사 환경 인프라 구축에 전념"

병불련, 3월 27일 연합대법회… 제6대 회장에 김진섭 원장


김진섭 회장

"저희들은 오늘 부처님 진리의 뜻을 되새기며 약사여래 부처님의 12대원을 실천하는 의료포교의 등불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진섭, 이하 병불련)는 3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연합대법회 및 제6대 회장 이 · 취임 법회'를 열었다.

법회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류재환 전 병불련 회장, 정경연 불교여성개발원장 등 내빈을 비롯한 병불련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섭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특화된 의료서비스 지원 및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환경 개선에 전념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병불련 회원들에게 아픈 이웃들과 동고동락하며 정진하는 참된 불자가 되기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중생과 큰 기쁨을 나누고 이고득락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치셨다. 우리가 마음을 나눌 때 물질은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우리 모두 약사여래부처님의 12대원을 실천해 인정이 넘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계일화의 꽃을 피우자"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제4 · 5대 회장을 맡았던 류재환 회장에게 지난 6년간 병불련을 이끌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전달했다.

류재환 전 병불련 회장은 이임사에서 "아무것도 없는 의료포교 선두에 서서 막막하기만 하던 6년 전을 돌아보며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종단 사부대중과 함께 쌓아 올린 의료 포교의 탑들이 이제는 초석을 다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다"며 "이제 병불련이 갖추고 있는 의료장비는 현대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회원 조직은 전국 7개 병원으로 시작해 이제는 18개 병원 회원으로 배가 조직 확대 되고 있다. 병불련 회원과 함께 의료봉사를 펼친 환자 진료의 수는 27만 명을 넘고 있다. 부족한 저에게 자비와 신뢰로 따라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병불련은 1999년 10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불자 의료인들이 모여 창립한 신행단체다. 현재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경희의료원, 건국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국 18개 병원 불자회가 연합해 활동하고 있다.

1999년 10월 서울시내 7개 병원 불자회 대표들이 모여 창립 발기대회를 가진 병불련은 이듬해 홍천 구만리에서 제1회 의료봉사를 시작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001년부터 매년 봄 · 가을 국내 의료봉사를 시행했고 현재까지 조계종 종단 주체 행사에 의료지원을 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종단 봉축행사, 어린이 전진포교대회 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비롯해 의료혜택이 낙후된 백령도와 같은 섬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봉사도 시행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이주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몽골 · 미얀마 · 라오스 등 해외의료봉사에도 주력하고 있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진섭, 이하 병불련)는 3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연합대법회 및 제6대 회장 이 · 취임 법회'를 열었다.

올해를 '재결집 원년의 해'로 삼은 병불련은 인력을 확충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펼칠 계획이다.

김진섭 회장은 "현재 병불련 회원이 200여명 정도지만 의료진이 부족해 봉사를 가면 한명의 의사가 여러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병원과 연계해 불자 의료인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병불련은 의료장비 현대화에 주력해 초음파기, 혈액검사기 등을 마련해 진료 분야를 다양화 했다. 병불련은 이에 그치지 않고 후원자 및 불자기업과 연계해 재정을 마련하고 치과진료시설 및 의료버스, 약품저장고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섭 회장은 "병원에 근무하는 불자와 간호사들 가운데 퇴직 후 봉사활동에 전념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올해를 재도약 하는 해로 삼은 만큼 의료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전념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진섭 회장은 강원도 철원 김화치과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도시보다 한적한 시골이 좋아 첫 개원 장소인 포천에서 철원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주민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매일 108배를 하는 등 열심히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자녀가 4명 있는 가정과 성직자에게는 무료로 진료하는 등 생활 속 보시행도 실천하고 있다. 김 회장은 할아버지가 조계종 전 종정 서옹 스님을 곁에서 모시고 임제선원 조실 종성 스님과도 인연이 있을 정도로 독실한 불교집안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동련, '제30회 연꽃문화제' 10개 지역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 '어머니' '칭찬' 시제로 예선 진행

천진불들이 모여 글과 그림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성행)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제30회 전국연꽃문화제' 예선 대회를 전국 10개 도시에서 나누어 개최한다.

연꽃문화제는 어린이 불자들이 글짓기 · 그림으로 표현하는 축제다. 올해 시제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 '어머니' '칭찬'으로 10개 지역에서 릴레이로 예선이 열리며 동련 사무국으로 행사지역 개최일 3일 전까지 직접 우편 접수 가능하다.

예선은 4월 17일 대구 신천둔지에서 열리는 대구 연꽃문화제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4월 20일에는 부산 용두산공원에서 동련 부산지구 주관으로 부산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이어 강원(26일), 광주(26일), 전남(26일), 경남(26일), 제주(5월 3일), 울산(5월 6일), 밀양(5월 11일), 서울 · 경기(5월 18일)에서도 예선이 펼쳐진다.

동련은 각 지역 연꽃문화제 예선 참가자들의 작품을 당일 심사해 시상을 하며, 작품수집 후 본선 후보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동련은 "부처님의 자비를 표현하고 사찰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연꽃문화제를 기반으로 전국어린이, 더 나아가 다문화어린이들에게 천진불의 향기를 알려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051)864-4569

이나은 기자

사회문제,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불교아카데미, 4월3일부터 리더스클럽 강좌 진행

불교계 교육, 리서치, 컨설팅 전문기관인 (사)불교아카데미(이사장 이수덕)는 재가불자 지도자를 양성하는 'M · Y 리더스클럽 특별강좌'를 연다. '53도반과 함께 떠나는 구법여행'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4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우리함께빌딩 2층에서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인류의 문명사적 위기와 불교(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 △현대과학의 흐름과 불교(양형진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 △인간 붓다, 그 위대한 리더십(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미리 준비하는 웰다잉 10계명 (이범수 웰다잉운동본부 교육위원장) △빼앗긴 문화재를 말하다(혜문 스님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 대표) △영화로 세상을 아름답게(대해 스님 조계종 국제선원장)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은 축복(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고구려, 역사에서 미래로(윤명철 동국대 교수) △삶의 의미를 묻는 불교적 방법들(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등으로 마련된다.

불교아카데미는 "사회는 갈 수록 갈등이 심화되고, 남과 북은 끝을 알 수 없는 대치상황에 있다. 이러한 때에 다시금 부처님의 위대한 리더십을 불자들이 깊이 되새겨봐야 한다"며 "이번 특별강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을 같이 얘기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자리로 마련됐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2278-1087

이나은 기자

제23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본 재단은 불교문화 부흥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과 예술분야에 공로가 크신 분을 발굴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제23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공모하오니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시 상 내 용		인원	상 금
학술상	불교와 불교학 발전에 뛰어난 학술연구저서(역주포함)를 출간하신 분 • 심사대상 : 최근 2년내 출간된 학술연구저서	2명	각 500만원
예술상	1.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 분야에서 업적을 이루 신 분 (서화 부문 제외) 2. 방송,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 하신 분 • 심사대상 : 최근 2년이내의 실적물		

2. 시 상 일
2014년 9월 24일 수요일

3. 후보자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본인신청 또는 추천서(소정양식) 1부
이 력 서(명함판사진 2매) 1부
공적서 및 증빙자료 1부

4. 접수처 및 접수 방법
①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3, 10동 401호 (서초동) 재단사무국 (우 : 137-877)
② 접수 마감 : 2014년 6월 30일
③ 접수 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 E-mail 접수 : runner333kr@naver.com

5. 수상자 발표
2014년 8월 중순 / 개별 통지 및 불교계 언론매체 발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무국 ☎ 02)586-6521~2, FAX 02)521-994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財團法人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45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4년 4월 7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어르신 재능 쑥쑥 키워 이웃에 기부(Give)

봄을 맞아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되는 등 복지관이 분주하다. 복지관 주 이용대상자인 어르신들 또한 노인일자리, 동아리 참여를 통해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에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그 중 은퇴한 후에도 자신의 재능을 살리거나 발굴하며 사회에 되돌려주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복지관별 재능기부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어르신들의 재능기부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역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례교육을 하는가 하면(사진 위), 밴드를 조직해 전국을 무대로 공연을 다니기도 하고(사진 아래 왼쪽), 연극단을 조직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사진 아래 오른쪽).

은퇴 후 재능 살리거나 새로 발굴
연기 · 밴드 · 기자 등 분야 다양
사회참여 욕구 충족 큰 호응

연극 생초보 – 부산 햇빛 연극단

어르신 연극단이 있다고 하면 으레 연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에는 연기에는 문외한인 생초보 연극단, '햇빛연극단' 이 있다. 연극활동을 희망하는 주민 10명이 모여 2006년 만들었으니 올해로 벌써 9년째다. 평소 연극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 내 소외계층들을 위해 복지관, 학교, 병원 등에서 공연을 해오고 있다. 틈틈이 공연을 준비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관에 모여 연습을 한다. 연기지도와 작품대본은 전문 연극연출가의 손을 빌려 진행된다. 지금까지 무대에 올린 작품은 5개. 그 중 노인학대예방 내용을 담고 있는 '새는 둥지에서 날개짓을 배운다' 는 2008년 제1회 부산시민연극제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는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에 선정되어 또 다른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극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오랜기간 활동한 회원들의 역량이 높아져 이제 연기 지도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이다.

전국을 무대로 – 종로 상상밴드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에는 어르신 밴드가 있다. 2010년 창단된 상상밴드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음악이 있는 종로구를 만들자며 만들어진 악단. 7명의 어르신들이 각기 키보드, 드럼, 베이스, 트럼펫, 기타, 색소폰, 트럼본 주자로 나섰다. 미8군 악단에서 소속되어 있었다든지 예전에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시던 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밴드로 초창기에는 종로구 주최 행사에 주로 섰다. 그러나 프로밴드 못지않은 실력 덕분에 지난해에는 무주 반딧불축제에 참여하는 등 전국을 무대로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다례교육 – 강남 차사랑

'친구야 모두 茶 사랑해' 는 대치노인복지센터(센터장 손화정)에서 전문다례교육을 이수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유 ·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다례교육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르신 대상 다례교육도 진행한다. 6명의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1번씩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예절교육을 실시한다. 지역 내 유 · 아동 및 청소년은 어르신들에게 다례교육을 배우며 기본생활습관, 가정 · 사회생활습관, 언어생활습관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다. 올바른 인성교육 및 정서적 안정,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 또한 기를 수 있다. 이러한 효과 덕분에 올해부터는 강남구 주민제안사업으로 지정돼 더욱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다.

어르신 기자단 – 과천 시니어헤럴드

과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복)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만드는 신문이 있다. 분기별로 발행되는 소식지는 어르신들이 기자가 되어 과천시와 복지관 주요 행사를 취재한 내용으로 채워진다. 신문 발행 전 어떤 소식을 담을 것인지 정하는 취재회의도 거친다. 기사거리가 결정되면 행사에 참여해 직접 취재에 나선다. 사진촬영은 물론 기사 작성도 능숙하다. 그도 그럴 것이 전직 기자 출신분들이 주요 멤버이기 때문이다. 기자단으로 활동하는 7명의 어르신들은 대개 공직이나 교직에 몸 담았던 터라 글쓰기에 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주민들과 정보나 소식을 공유하는 데 어르신들의 필력을 적극 활용하는 시니어헤럴드는 벌써 9년이나 됐다.

배현진 기자

김포 용화사, 요양병원 건립한다

3월 26일 기공식… 지상 4층 138개 병상 규모

김포 용화사가 지역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요양병원을 건립한다.

의료법인 동행의료재단(이사장 지관, 용화사 주지)은 3월 26일 용화사 경내에서 '김포 용화사(보리수)요양병원 기공식' 을 봉행하고 불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을 비롯해 김장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유영록 김포시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를 통해 "요양병원 건립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의 미래를 보여주는 일"이라며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 사회에 진정한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행의료재단 이사장 지관 스님은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계 요양병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아픈 육신을 치유하는 병원이 있다면 포교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특히 사찰 경내지에 병원이 들어섬으로써 스님들이 보다 편한 마음으로 요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용화사 경내에 건립될 보리수 요양병원은 연면적 3932㎡의 지하 1층, 지상 4층, 138개 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오는 11월말까지 공사를 마친 뒤 3개월 동안 개원준비과정을 거쳐 2015년 3월 1일 정식 개원한다.

신성민 기자

천태종복지재단, 어린이집 개원

3월 25일 서울 구로구에

천태종복지재단(대표이사 장도정)에서는 지난 3월 25일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연초롱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연초롱어린이집은 437.69㎡(약 132평)에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실 6개 등을 갖추고 있다. 12명의 교사가 98명의 아이들을 책임진다.

천태종 사회부장 보광스님은 개원식에서 "바르고 모범적인 어린이집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천태종복지재단에서는 지난해 '천태복지플랜 2020' 을 발표하며 아동복지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위해 아동과 청소년 복지에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연초롱어린이집은 천태종복지재단이 플랜 발표후 처음으로 수탁한 어린이집으로,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에 힘쓸 계획이다.

배현진 기자



천태종복지재단이 아동복지에 힘쓰겠다는 복지플랜을 발표한 이후 3월 25일 개원한 연초롱어린이집

"국제 구호, 이제는 전문성이다"

3월 25일 조계종복지재단, 국제구호 포럼 개최



3월 25일 긴급구호사업 포럼에 참여한 이들이 발표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3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긴급구호사업의 이해 및 실천현장의 적용사례' 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양 측의 발표로 진행됐다.

첫 순서로 KCOC 대회협력팀의 이경신 부장이 '한국의 긴급구호사업 현황 및 향후 방향' 이란 주제로 강단에 섰다. 그는 "국제 구호활동에 있어 활동주체가 증가하는 등 현지상황을 고려해 조직화, 전문화 될 필요가 있다"며 "자선 시혜적 기관이 아닌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정체성을 획득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나눔사업부문 김동훈 부장이 복지재단 측의 실질적 경험을 예로 들어가며 구호사업에 관심있어하는 이들과 실천사례를 공유했다. 그는 "국제구호사업만큼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곳이 없다"며 "복지재단이 국제 구호사업에 뛰어든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렇다할 전문가가 없다. 피해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제기구 지역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배현진 기자

장난감 도서관에 벽화 입혀져

신한생명 직원들 봉사활동 일환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장난감 도서관 벽에 알록달록한 벽화가 그려지고 있다.

진각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낙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광수) 부설 해피 칠드런(Happy Children) 장난감 도서관 벽에 알록달록한 벽화가 그려졌다.

신한생명 직원들이 봉사활동 일환으로 지난 3월 22일 도서관에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벽화를 그려넣은 것이다.

신한생명측은 "마을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생각을 반영해 밝고 생동감 있는 느낌의 디자인을 테마로 잡았다"며 "벽화 작업을 통해 지역내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피 칠드런(Happy Children) 장난감 도서관은 연간 5천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강서지역의 대표 어린이 도서관이다. 장난감이 구비되어 있어 아동들에게 놀이공간 제공을 하는 것 외에도 대여도 가능해 장난감 구입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월에는 르노삼성자동차노동조합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서관측에 장난감 구입비 2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다문화어린이 합창대회 열린다

6월 1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다문화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전국다문화어린이 합창대회가 오는 6월 18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무원)가 주최하고 현대자동차그룹과 사랑의 열매 후원을 받아 열리는 이번 대회는 3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대회 참가팀을 접수한 뒤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대회를 치르게 된다.



합창대회 참가는 50%이상 다문화자녀가 포함된 중창단, 합창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수상팀에게는 대상(상금 300만원)을 비롯하여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 지도자상 등의 상장과 상금이 부여된다.

합창대회 참가를 원하는 팀은 (사)한국다문화센터(02-737-0467~8)로 문의하면 된다.

배현진 기자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님들께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님들께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한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요.**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皮骨만 남긴다는 각오로 수행하자

〈피골〉

3월 불광사 일요법회

본공 스님(불광사 주지)

부처님의 좌우명은 무엇이었을까. 본공 스님은 피부와 힘줄과 뼈만 남긴다는 각오로 끝없이 다짐하는 수행정진이 그 주제였다고 했다. 수행의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에 있었다. 고멸성제(苦滅聖諦).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 본공 스님이 3월 15일 불광사에서 한 법문을 들어본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오늘은 괴로움의 소멸, 고집멸도에 대해 이야기 할까 합니다. 사성제 다들 아시죠.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사성제, 팔정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떠나 워낙 뜻이 고귀하기 때문이죠. 성경구절을 아냐고 물으면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불자가 아니더라도 '고집멸도' 정도는 알죠. 고집멸도를 깔끔하게 정리한다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집합시키고 소멸시킴으로써 도를 얻는다.

여러분들은 고통을 집합시켜보셨나요? 어떤 것이 고통입니까. 태어나는 것부터가 고통입니다. 아이들이 울면서 태어나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아기들은 태어난 후 2달 정도 감각이 없다고 해요. 바늘로 찔러도 모를 정도로요. 그러나 어머니의 심장박동소리를 들으며 뱃속에 열달 동안 있었는데 태어나고 보니 갑자기 익숙한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아기들에게 무의식중에 갑자기 공포심이 엄습합니다.

살아가며 겪는 고통이 많죠. 학교 공부하랴, 영어단어 외우랴, 외모 단장하랴 이런 것도 고통입니다. 박복하니까 수술을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돈을 버는 고통도 있지만 돈을 쓰는 고통도 있어요. 늙어가며 병드는 것도 고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곳이 두 군데 있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교도소와 병원입니다. 병원은 몸에 병이 들어서 가는 곳이지만 교도소는 정신에 병이 들어 나쁜 행동을 하게 돼서 가게 되는 곳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참 큰 복입니다.

앎으로 인해 고통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취함으로써 고민거리가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 얼마 전 한의원에 가서 맥이 약하다는 소리를 듣고 괜스레 신경이 쓰이게 되던데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 같은 고통을 어쩔 수 없이 안고 끌고 갑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육신이 다 됐다라는 뜻으로 쓰이긴 하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완성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열반은 뭔가에 대해 이뤄짐, 성취된다는 바라밀을 의미합니다. 보시바라밀은 무슨 뜻입니까. 보시라고만 해도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남을 위해 많은 보시를 해 왔을 것입니다. 예쁘게 치장하는 것도 보시요, 밥을 챙겨주는 것도, 가난한 이를 도와주는 것도 다 보시입니다. 그러나 보시바라밀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준 것 조차도 잊어버리는 '완전한 줌'을 의미합니다. 뭔가 댓가를 바라거나 하는 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밥상을 차려줄 때 자식과 싸웠거나 하면 차려주기가 싫을 때가 있죠. 그러나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마지못해 밥상을 차려주기는 하지만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보시에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에 대한 완성으로서 '집착과 걸림없이 네게 이걸 베푸겠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에 머물지 않고 계율 등을 완전히 통달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하는 것과 거짓말이라는 용어를 모르면서 거짓말을 안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라밀은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릅니다.

깨달음과 고에 대해 설한 반야심경의 대의(大意)는 첫 구절에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할 적에 오온이 공함을 알아서 일체의 고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대의입니다. 나머지는 이에 대한 부연설명입니다.

현장 스님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인도의 방대한 경전을 번역하다 보니 한꺼번에 다 전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반야심경을 기술했고 그 중에서도 앞쪽에 핵심을 마련해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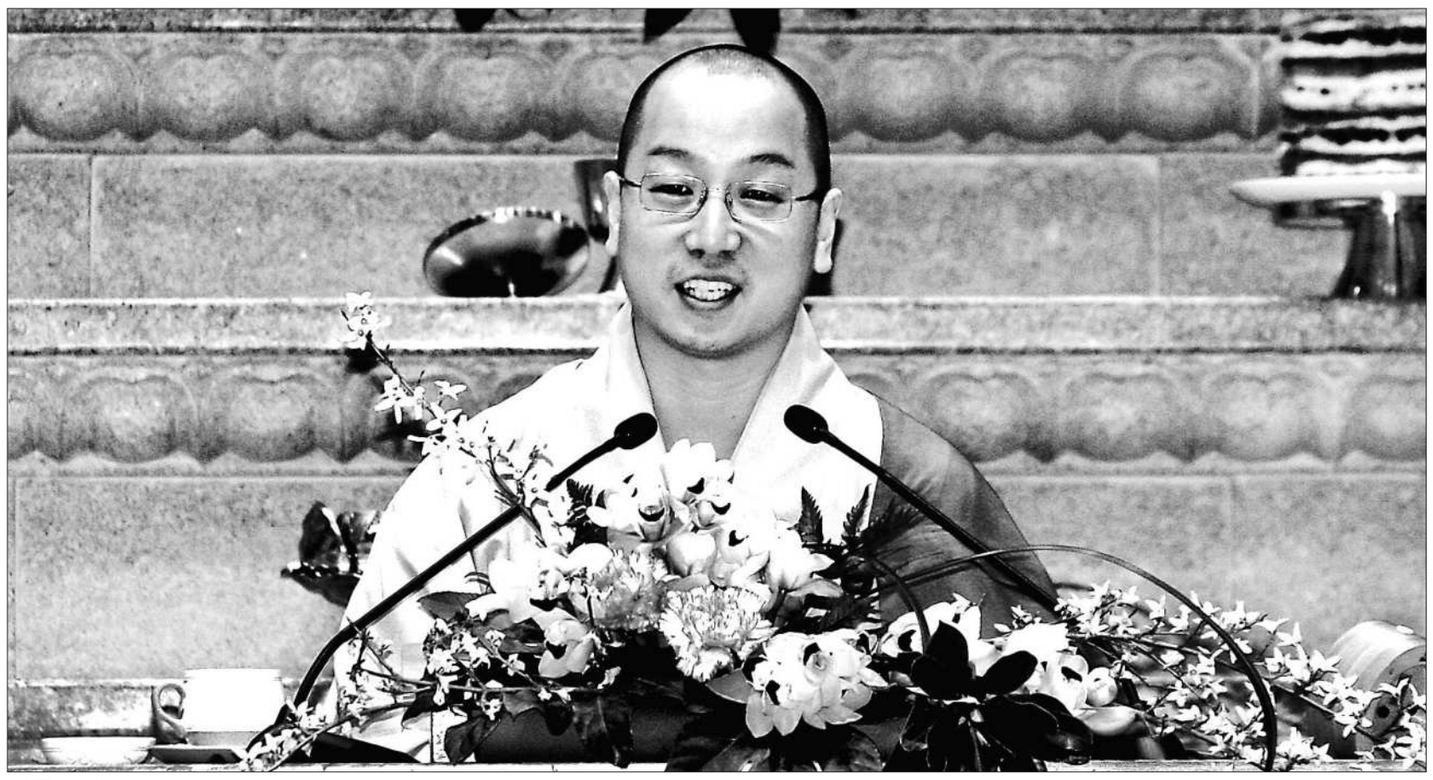
'관세음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할 때'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혜에 꽂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묻혀버리는 것이죠. 지혜 속에 완전히 몰두하다 보니 오온이 공함을 아는 것입니다. 오온은 색수상행식을 말합니다. 색의 세계를 보는 것은 눈이죠. 그러나 눈을 뽑아 놓는다 해서 눈이 볼 수 있습니까? 귀를 잘라놓는다고 해서 귀가 듣나요? 눈으로 본다는 것은 눈에 들어온 정보가 시신경을 통해 뇌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 받아들여야 본다는 것이 성립되겠죠. 그런 후 머릿속으로는 상상을 합니다. 상이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면 그것이 의식이 됩니다. 짧게 이야기했는데 색수상행식, 이 다섯가지가 공함을 알면 집착에서 넘어서게 됩니다. 일체 고에서 건너가는거죠. 해탈의 언덕으로 건너갔다는 도피안입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요체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하는 이유는 인연고리 때문입니다. 우리집 아이가 맞고 왔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당장이라도 자식을 때린 아이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앞집 아이가 똑같은 경우를 당했다하면 그런가보다하고 넘기죠. 집착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고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이라고 하는데 해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체의 번뇌를 끊어 해탈을 성취해 육신이 남은 상태인 유여열반이 있고, 일체의 번뇌와 육신조차 남음이 없는 무여열반이 있습니다. 유여열반은 탐욕이나 어리석음 등과 같은 모든 번뇌망상이 제거될 때 증득하게 되는 열반인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증득하셨을 때 도달하신 열반을 가리키지요. 무여열반은 세존께서 입멸하실 때 육신과 정신적 작용이 완전히 해소됐음을 일컫습니다. 열반은 살아서 지금 여기 현재의 삶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사람이 뭔가 이뤄낼 수 있다는 자긍심을 만들어주는 종교입니다. 어떤 얽매임도 없는 상태, 신조차도 없는 상태,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자부심을 일깨워준 것이 부처님의 일생입니다. 부처님같이 산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다 내려놓고 고생을 해가며 길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부처님같이 사는 것이 참 영광스런 삶이죠. 우리는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부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불자들의 인생입니다. 부처님은 지극히 인간다운 면모를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처님의 열반송하면 '자등명 법등명'이 있죠. 그러나 이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훨씬 이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열반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공 스님은 … 1991년 범어사에서 출가해 1996년 중앙승가대학교를 졸업했다. 1998년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999년 군종장교 육군대위에 임관됐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선수촌 불교관 지도법사를 지냈으며 2004년 범어사 강원을 졸업했다. 문경 봉암사, 예산 정혜사, 양산 통도사, 괴산 공림사 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하고 2006년 영국 런던 연화사 주지를 역임했다. 2007년부터 불광사 총무와 지도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불광사 주지다.

괴로움의 소멸은
집착 범위에서 벗어나
넓게 보고 얽매이지 않는 것

"게으름의 때를 벗기고
애써 닦음으로써
고통의 화살을 뽑으라"

제행무상(諸行無常) 모든 것이 무상하다
시생멸법(是生滅法) 바로 생멸법이다
생멸멸이(生滅滅已) 생멸이 소멸하여 그치면
적멸위락(寂滅爲樂) 적멸이 즐거움이다.

부처님 또한 모든 것은 무너지고 무상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무상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말이 영원할 뿐,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변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우리에게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함으로써 현재를 이루어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전날 피곤하게 하루를 마감했거나 하면 새벽예불을 할 때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날이면 스스로 부끄러워지고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진건가 하고 미안해집니다. 기력이 다 되어가나 싶을 때가 있지만, 공부는 정말로 힘들게 해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정진함에 있어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느라 기력을 빼지 마십시오. 정말로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못하게 되니까요. 부처님같이 정진하는데 힘쓰는 것이 최고의 일 아닐까요.

불자님들, 다들 좌우명 가지고 있으신가요? 불자로 살아가는데 있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겠노라' 하는 것 말이죠.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좌우명을 만드시기바랍니다. 부처님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는 법구를 들려드리죠.

바라건대 피부와 힘줄과 뼈만 남아라. 내 몸에 살과 피도 말라붙으라. 대장부의 끈기와 대장부의 노력과 대장부의 정진으로만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남겨둘 힘이 있으랴.

숫타니파타에 나오는 구절도 새겨들을만합니다. 함께 암송하며 각자 좌우명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앉아라.
잠을 자서 너희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 받는 이에게 잠이 웬말인가.

일어나라. 앉아라.
평안을 얻기 위해 일념으로 배우라.
그대들이 게을러서 그 힘에 굴복한 것을
죽음의 왕이 알고,
그대들을 헤매지 못하도록 하라.

신과 인간은
애착에 얽매어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 슬퍼하기 때문이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애써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써
자기에게 박힌 화살을 뽑으라.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 최고의 보시품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보시자의 이름을 하단에 넣어드림)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가격 : 2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제9기 불교의식(서울 범음·범패) 학인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3개월 과정

팔공불교대학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드립니다.

〈교육과정〉

기본의식 (3개월 단기)	도량석, 종송, 향수하래,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명시식.
범음.범패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39위 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
작 법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 작법, 법고 막바라 (살풀이 가능함)
사 물	북, 태칭, 목탁, 요령

◆ 모집대상 : 승려, 재가불자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강일시 : 2014년 4월 30일(수요일) 오후 3시
◆ 수 업 : 매주(목.금) 오후 3시 ~ 5시까지
◆ 신청접수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8길 73-7번지 (구. 도동44)
팔공IC 5거리
H·P 010-9361-5566

무파사 팔공불교대학 학장 일관 합장

"북한 지역 문화재 관리 민관 힘모아야"

최광식 교수, 문화재청 '남북문화재 협력' 세미나서 주장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간 문화재 협력의 토대를 다져야 한다. 그 노력에는 불교문화재 교류또한 포함된다."

남북의 문화재 교류를 통해 한반도 통일의 기본 토대를 다지자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최광식 고려대 교수(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 위원장)는 3월 28일 문화재청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간 문화재 협력' 학술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교류 중 문화재 교류를 본격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날 "남북 분단이 70년을 바라보며 역사 인식 차이로 문화재와 관련된 인식도 많은 이질성을 갖고 있다"며 "남북이 고구려 및 발해 유적 발굴 조사 등을 통해 진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남북 교류가 단절 됐던 때에도 불교계를 비롯한 민간차원에서 문화재 보수 및 복원을 주제로 교류가 진행됐다"며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승적 견지에서 백년대계를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 벤치마킹해야

이상준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장은 2004년 진행된 금강산 신계사 남북공동발굴조사가 최초의 고고분야 교류사업의 시작으로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사업진행에 대한 과정을 벤치마킹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고고연구실장은 "금강산 신계사 남북공동 발굴조사는 모두 6차게 걸쳐 진행됐는데, 지표, 시굴, 발굴, 복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문화유적의 조사와 복원에 대한 총체적인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소개했다.

역사 인식 극복에 문화재 큰 힘
통일 원동력으로 자리할 것
금강산 신계사 복원 불사 모델
남북문화재 관리 기구 창설도 주장

이 고고연구실장은 "남북 학자와 전문가들이 '문화유적'이란 동일 대상을 중심으로 장기간 조사와 연구를 함께 진행했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된다"며 "다만 교류협력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개성공단 운영과 같이 남북 양측 합의를 통해 정치 ·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문화유산 교류협력을 연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식 고려대 교수가 문화재청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발표자들은 불교계를 비롯한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북한 문화재 보존에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이 실장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당분간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따라서 예산과 인력 문제에 있어 사업주체들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문화재협력추진협의회 구성 추진

정태현 고려대 사학과 교수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문화재 협력의 단계별 과제'에서 정부와 불교계를 비롯한 민간 단체들이 참여하는 기구 구성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남북 문화재 협력은 사업 성과나 경제적 이익이 즉각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며 "기금 조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북한문화재 보호관리에 지원되는 비율을 확대하고, 북한 문화재 관련 DB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순는 "화해협력기, 평화공존기, 남북연합기 등 각 시기에 맞춰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북한을 대신해 남한이 전면에 나서 민족공동자산인 북한 문화재를 복원관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영성 트렌드 불교계 선제적 접근 필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 인도철학회 공동학술세미나

"최근 유행하는 영성은 기독교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전통적으로 신에 대한 실체적 사고를 전제로 한다. 영성이 문화로 성장하고 있음은 정신문화에 대한 갈구가 큼을 반증한다. 불교 내에 영성 개념이 있는 만큼 다양한 연구를 통해 대등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

불성과 영성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점에서 비슷할까? 불교는 이러한 흐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권탄준)와 인도철학회(회장 이지수)가 3월 28일 개최한 '불성(佛性)은 영성(靈性)인가' 공동학술대회에서는 불성과 영성의 공통 · 차이점과 함께 불교계의 대응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다.

이날 하유진 금강대 교수는 '불성과 영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불성 개념은 상대자와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연인불성'이다"며 "성불의 과정은 홀로하는 고독한 행위가 아니며, 선한 행위를 주고 받는 소통과 교감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열반경〉에서 나타난 일천제 성불설은 성불에 대한 관용적 · 포용적 태도를 보여주는데 이는 현재의 영성 개념에 부합하는 불교의 모습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하 교수는 "〈열반경〉의 불성론은 불성개념에서 더 나가 종교적 수행론을 더한 구원론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은 현대 영성 개념의 취지와도 어느정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태승 위덕대 교수는 후기중관사상에 나타나는 공성의 개념과 불성, 영성의 개념을 함께 살펴봤다. 이 교수는 "연기의 사유 끝이 공성으로 전개된다. 불성, 영성, 여래장, 법신, 무분별, 로고스, 창조자, 본질 등등 다양하게 표현된 말들은 승의의 경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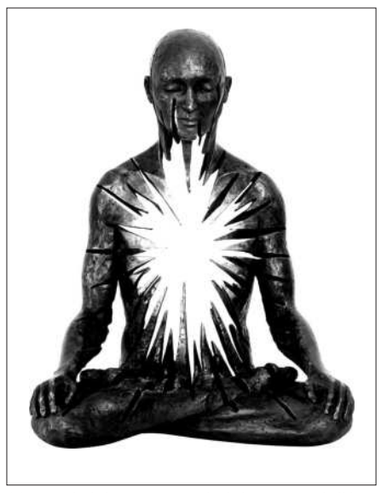
이 교수는 "궁극의 경계를 여러 언설로 표현하면 그 개념의 속성을 추구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공성과 불성의 경계는 연기적 사유를 통해서만 사유되고 체득된다"고 말했다.

황용식 서울대학원대 교수는 영성의 바람에 대해 불교계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 창조적 도약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우리는 초학제적 공부와 연구, 다른 분야와의 교류를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영성이 문화로까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구촌 삶에서 정신적 영역이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얘기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영성 탐구에 있어 스스로 수행과 탐구를 해가야 한다는 입장은 불교에서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연기와

영성과 불성은 연기성에서 같아
진리의 경계 표현 위한 도구
초학제적 연구로 트렌드 주도해야


불교조각가 'Sukhi Barber'의 'Radiance(빛)'

무아 등 다양한 면모들 사이에 현상학적, 해석학적 움직임을 함께 검토해 영성 · 초월 · 통합 이론도 정면으로 공부하고 대등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 섬서사범대와 국제학술대회

금강대(총장 정병조)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사업단은 섬서사범대학 서북민족연구센터와 3월 21~22일 섬서사범대 옌타(雁塔)캠퍼스에서 종교와 역사의 교차점, 실크로드라는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2년 양대학 교류협정시 섬서사범대에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자는 협의사항 진행이며, 실크로드와 함께 서역지방에서 비롯된 동아시아 불교의 수용과 변용의 단초 등 연구영역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한 섬서사범대 서북민족연구센터는 서역(西域)으로 불리는 지역의 역사와 종교에 대해 연구하는 중국 대표 국책연구소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정병조 금강대 총장의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불교' 기조발제에 이어 허남결 동국대 교수, 황순일 동국대 교수, 석길암 금강대 HK교수, 최은영 금강대 HK교수 등이 발표했다.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기조발제에서



"우리가 동아시아 불교를 탐구하는 여정은 동아시아 불교 내부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동아시아 불교를 낳은 산통의 공간인 실크로드에서도 함께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탄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소장은 "실크로드 연구의 미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며, "학술대회 결과물은 섬서사범대학 서북민족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특집호에 실릴 예정이며, 연구소 내부에서는 학술대회 주제를 제목으로 하는 단행본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제1회 총지학술상에 서주희 · 박재용 씨

한국명상상담학회(회장 인경)는 3월 26일 제1회 총지학술상 수상자 선정자를 발표했다.

제1회 총지학술상 논문부문 수상자로는 국립중앙의료원 서주희 씨의 '알아차림 효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와 동국대 박재용 씨의 '오중유식관의 수행적 특징과 명상프로그램화의 가능성 모색'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인 학술상은 선정하지 못했다.

서주희씨 논문은 알아차림 명상의 효과를 다양한 상황에서 연구한 점이 높게 평가됐으며 박재용씨 논문은 유식불교 수행법의 현대적 응용 가능성을 모색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공모논문에는 각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노덕현 기자

"보조지눌 스님, 수좌들과 법거량 했다"

〈보조전서〉 속에 등장하는 고승들을 조사해 보조지눌 스님이 교유한 고승들을 조명한 논문이 발표됐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3월 22일 보조사상연구원이 서울 법련사에서 개최한 제106차 정기월례학술대회에서 '보조지눌의 교유 고승'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 교수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눌 스님은 혜능과 영가, 하택과 종밀, 영명과 대혜 스님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사굴산문 종휘 스님의 문하로 출가한 이래 득재 등 수좌스님들과 법거량을 했다. 또 진각혜심스님을 비롯해 스님의 제자였던 정선, 정혜결사의 무대를 옮기기 위해 송광산 길상사 터를 발견한 수우, 책 간행과 유포를 담당했던 충담스님 등은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선사들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경주 사천왕사지 사적 추가 지정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3월 24일 경주 사천왕사지(사적 제8호)와 경주 남고루(사적 제17호)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해당 유적과 연접한 구역을 사적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경주 사천왕사지는 현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된 문화재지정구역은 경주 낭산(狼山)과 연계한 신라 유적의 밀집지역으로 사천왕사지의 보호와 사역 규모 확인 등을 위해 새롭게 편입됐다.

경주 남고루는 고려시대에 축조된 제방, 읍성 등으로 추정되는 유적이다. 1993년 발굴조사를 통해 토루(土壘, 흙으로 만든 보루)의 흔적과 석축벽이 발견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진로 · 진학 상담

진학상담 : C.A.C 분석서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안내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예측

인 재 양 성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미 래 예 측 학 박사
◇저서 : 규명 1.2.3권 (한솜미디어)
실전성명학 (상원문화사)
명리진학정보론 (상원문화사)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4개월 과정
◆ 수 업 일 : 매주 화 · 목요일
오전반 10시 부터 ~
오후반 6시 부터 ~

■ 명리학의 심리분석을 통하여 진학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명문대 재학생 1,200명의 응답 분석 ⬅
■ 학생이 방문하여 설문자료에 응답시 즉시, 계열과 학과에 대한 자료를 제공.

오시는길
1호선 수원역 하차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 진로적성상담연구소 1층 H·P 010-5418-5972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6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3월 중
◆ 개강일시 : 매주 (월 ·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광주 봉축행사 '전통등 만들기'로 시작

광주지역 봉축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2014빛고을 관등축제 봉행위원회(위원장 연광, 증심사 주지)는 지난 3월 22일~23일 양일간 불교회관 법당에서 전통행렬등 만들기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봉축행사 준비를 시작했다.

등 만들기는 목어등, 보리수등, 복주머니등, 연꽃등, 운판등을 비롯한 10가지의 종류의 등을 만드는 행사로, 각 사찰과 단체에서 2~3인등이 참여해 전체 70여명의 단체 실무자들이 참여해 진행됐다.

행사를 준비한 광주불교연합회 김정효 간사는 "이번 등 만들기 행사는 전통등 보급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사찰별로 작은 크기의 전통등 만들기를 보급해 향후 대형 장엄등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22일 골조 조립과 배접, 23일 채색작업을 진행했다.

광주지역은 지난해 봉축 행진용등으로 팔모등을 주로 사용했으나, 올해부터 전통양식의 등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를 통해 만들어진 전통등은 올해 제등행진이 실시하지 않는 관계로 광주천 주변에 장식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각 사찰과 단체별 참가자들 또한 처음 접해 본 전통등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증심사에서 참가한 백현숙 씨는 "완성된 후 불을 비춰보니 참으로 예뻤어요. 기존 등에 비해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었지만,

전통양식 등으로 교체
광주천 주변 장엄예정
사찰별 제작 점차 실시

만드는 과정이 즐거워 가족들이 같이 참여를 해도 좋을 듯 싶네요"라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행사가 개최된 시간도 주말이어서인지 참가자들이 아이들과 같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았다.

행사를 주관하는 광주불교연합회는 "이번 봉축행사가 끝나고 내년 봉축행사를 준비하면서는 사찰별로 소형등 만들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찰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통등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광주 불교회관에서 열린 전통 등 만들기 공방에서 참가자들이 만든 등을 들고 밝게 웃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봉축행사는 4월 18일 광주시청앞 사거리에 점등식을 시작으로 26일 6시 30분 광주공원 앞에서 봉축연합법요식인 관등법회, 봉축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26일 27일 양일간 빛고을 연꽃문화제, 청소년음악놀이, 외국인문화축제, 영산제 시연, 전통차 시연 및 들차회가 펼쳐지며, 4월~5월까지 광주일원에서 16개의 봉축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덕사 인드라망불교대학 개교·입학식



모든 생명이 '한몸, 한생명'임을 실천하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광주지역 불교대학이 개설됐다. 지난 3월 17일 광주 선덕사(주지 원묵)는 인드라망불교대학 개강 및 제1기 입학식을 갖고 첫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선덕사 인드라망불교대학은 원묵 스님, 승묵 스님, 이중표 전남대 교수를 지도교수로 부처님의 생애, 불교문화, 디가니까야, 계율과 불교윤리, 사념처경, 대승불교 개론, 경전의 이해, 불교사의 이해, 수행, 수계식 등의 강의를 1년 과정으로 진행한다.

입학식에는 22명의 신입생이 동참한 가운데 1부 불교의례, 경과보고, 학장 인사말, 교수진 소개, 내빈소개, 신입생 소개, 학사일정 안내, 다과, 기념촬영이 진행됐고, 이어 2부에는 학장 이중표 교수의 '어떻게 불교를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이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불교대학을 통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본질을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과정이다"라며,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두려하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고 지금을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익산 정각사, 마가 스님 초청 법회



전북 익산지역의 불교활성화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익산 오산면 정각사(주지 일행)는 3월 23일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33선지식 초청법회의 2번째 법회로 '참 나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 날 마가스님 초청법회는 지역불자들에게 감로수와 같은 신선함을 선사했다.

마가 스님은 "지금 행해지고 있는 모든 말과 행동이 곧 나의 미래가 된다"며 "마음의 노예에서 벗어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각사는 4월 29일 전 직지사 주지 자광스님 초청해 33선지식 초청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예봉사, 삼성각 낙성법회



전북 완주 예봉사(주지 진성)는 3월 23일 삼성각 낙성법회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예봉사 주지 진성스님의 집전으로 전통방식인 어산과 작법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바라춤, 나비춤등의 작법무와 범패의식으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한국불교 조계종 교육원장 학암 스님, 종회의장 용주 스님, 대구교구원장 대하 스님, 충북교구원장 무상 스님, 총무부장 대병 스님을 비롯한 한국불교조계종의 종단임원스님들이 동참해 삼성각 낙성을 축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 임시총회 개최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지난 24일 임시총회를 갖고 올해 봉축행사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수자타 대연회실에서 개최된 이날 임시총회에는 30여개 회원사찰이 참여한 가운데 봉축행사 설명 및 예산, 봉축분담금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연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올해 봉축행사는 다양한 시도와 함께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예년에 없던 큰 변화이지만 광주불교발전을 기원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봉축행사에는 큰 기대와 함께 광주지역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불교시민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로



전북불교시민연대가 전북불교네트워크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태어난다. 전북불교시민연대는 3월 23일 전북생명평화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전북불교네트워크로 명칭 변경의 건과 결산보고안을 처리했다.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할 전북불교네트워크는 임기 2년의 임원진 중 오종근(호원대 교수), 곽인순(전 주부클럽 전북지회장), 유지원(사단법인 자연음식문화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감사에는 이일순, 김영돈 감사가 유임됐다.

오종근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북불교시민연대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역 내 사부대중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전북불교네트워크의 이름으로 보다 많은 성과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명에서 보여 지듯 지역 내 불교의 인드라망을 잘 가꿔 지역불교의 연대와 협동을 통해 낙후된 지역불교의 중흥을 이끌어 내는 동시에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도 관심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전북불교네트워크는 정기총회에서 2014년 사업계획을 통해 회원확대와 후원이사회의 정례화 추진 등의 조직사업과 지역 내 새로운 불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각종 시민강좌와 불교강좌 등을 확대하고, 전북지역 불교순례길 연구,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 운영과 생명평화주말학교 운영의 확장 등의 대중사업을 확장했다. 또 전북생명평화센터는 향후 지역 내에서 불자들뿐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생명평화운동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대중 사업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설기관인 자연음식문화원과 생명평화생협(준), 봉사단체 천천클럽 등은 공식적인 출범을 결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용성 스님 제74주기 봉찬대재



민족의 선각자이자 3.1독립선언 민족대표 33명중의 한분인 백용성스님의 열반일인 3월 24일 '용성진종조사 입멸 74주기 봉찬대재'가 봉행됐다.

용성진종조사의 탄생성지인 전북 장수 죽림정사(조실 도문) 용성교육관에서 열린 이 날 봉찬대재는 7여래불, 69전등조사, 7대사와 역대 104조사에 대한 다례재도 함께 봉행됐다.

다례재에 열린 추모법회에는 법륜 스님의 인사말, 용성조사 행장소개, 법문, 백용성조사의 유훈십사목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는 조계종 원로의원인 도문 스님을 비롯해 법륜 스님, 정토수련원장 유수 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들과 수승행 백용성조사 유훈실현 후원회장, 정토회원 등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나라와 겨례를 사랑하는 용성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되새겼다.

법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일제 강점기 용성 조사께서 대한독립의 씨를 뿌려 두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며 "오늘날 엄청난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애국 선열지사들의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도문 스님은 법문을 통해 용성 스님의 열반게송을 해설하고 "용성 조사께서는 일제에 맞서 항일운동을 펼치는 한편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지성화를 주창한 민족의 선각자이다"며 "우리불자들의 용성조사의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에 옮겨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해 불국토를 장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죽림정사와 백용성 조사 유훈실현 후원회, 정토회는 올해 '용성 조사 탄신 150주년'을 맞아 오는 5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사의 현재적 계승을 고민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14. 4. 12(토) 오후 1시부터 ~ 4. 13(일) 오후 4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국·전·통·따·주·기·공·덕·회

영 혼 의 세 계 (빙 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자비의 벽화로 범죄 예방해요”

부산 기장 동림사 방범 벽화그리기 캠페인

치안 취약지구 부산 기장 두호마을이 부처님의 자비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동림사(주지 성타)는 3월 23일 문화포교의 일환으로 ‘CEPTED 두호 행복마을’ 사업 중 하나인 벽화그림 그리기에 참여 방범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벽화그리기에 동참한 40여 신도들은 동림사 주지 성타 스님으로부터 평소 그림을 배우고 있는 제자들이다.

부산 경찰서 주관으로 실시되는 ‘CEPTED(범죄예방설계)’는 방범 벽화그리기, 방범창 등 시설물 보강, 112 비상벨 설치, 지능형 CCTV 설치 등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치안을 보강한다는 취지하에 사업으로 부산 기장에서는 두호마을이 선정됐다.

두호마을은 지구대 경찰서와 원거리인 외진 마을로 고령자, 독거노인, 기초소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치안사각지대이다. 또한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 아동과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기도 했다.

마을 방범을 위해 벽화그림을 선택한 이종식 기장경찰서 경장 (28)은 “동림사에서 그림 그리기 교실 및 문화포교를 꾸준히 행해오고 있다고 들었다. 벽화 사업에 동참해줄 봉사자들을 찾고 있었는데, 동림사에 요청하니 한걸음에 달려오셨다. 주지 성타 스님과 신도님들 덕분에 마을이 환해졌다. 주민 분들이 굉장히 흡족해하신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이번 벽화그리기에 앞장선 성타 스님은 “사찰에서 수행만 하는 것이 포교의 전부가 아니라, 불교가 생활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 또한, 종교와


동림사 주지 성타 스님과 신도 40여 명은 3월 23일 벽화 그리기에 참여했다.

치안사각지대 두호 마을서
신도 40여 명 봉사활동
“그림으로 마음 정화 독려”

상관없이 사람들을 보살피는 자비를 행하는 것이니 더욱더 의미가 깊다. 삭막했던 콘크리트 벽 대신에 색채가 가득한 벽화를 보며 불순한 마음을 먹었던 이들의 마음이 정화되길 바란다”고 벽화그리기에 동참한 계기를 밝혔다.

덧붙여 성타 스님은 “누구나 사람의 내면 속에는 문화적인 갈망이 있다. 문화는 사람의 마음과 감성을 깨끗이 하고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신도님들께 그림을 배우도록 권한다. 평소 미술을 가르치고 재능보시를 하는 것이 경전을 읽는 만큼 하나의 큰 수행이라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재능보시에 참여한 동림사 신도 문옥현(58)씨는 “지금까지 그린 벽화들을 보면, 불교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다. 또한, 따뜻하고 밝은 느낌이다. 내가 그린 그림으로 마을이 안전해지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 절에서 참선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직접 행하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주민 공복만(79)씨는 “마을 분위기가 밝아진 것도 있지만, 봉사자분들이 오시니 마을에 활기가 넘친다. 내 집 담벼락에 그려진 그림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웃 간에도 대화가 늘었다. 또한, 스님과 신도님들의 그림이 깜깜한 밤에도 주민들을 보호해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1월 중순부터 시작된 ‘CEPTED 두호 행복마을’은 4월 중순까지 벽화를 포함한 모든 치안 방편들이 완벽하게 구축된다. 또한, 이번 벽화그리기에 참가한 동림사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그림교실 등을 열어 문화포교와 재능보시에 앞장설 예정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창의성 있는 연등회로 인지도 높이자”

부산 연등회 학술세미나
3월 25일 부경대서



부산 연등회 학술세미나가 3월 25일 부경대에서 열렸다.

부산 연등회 보존 및 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3월 25일 부경대 미래관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다가오는 연등축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수불)가 주최하고 부산교수불자연합회(회장 박영병 교수)가 주관했다.

총 3부로 구성된 세미나의 1부에서는 학술세미나를 알리는 개회선원 및 경과보고, 이윤희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신도회 회장,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심산 스님 등 인사말과 축사가 이어졌다.

이윤희 신도회 회장은 “부산의 연등축제가 시민축제로 자리를 잡은 만큼, 부산 연등회도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학술세미나가 각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펼쳐졌다.

채상식 부산대 사학과 교수는 ‘한국 중세의 연등회와 그 역사성’, 황경숙 부산시문화재전문위원은 ‘사월 초파일 연등회의 전통성과 전승방안’, 정은우 동아대 박물관 관장은 ‘부산 연등회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환경숙 부산시문화재전문위원은 “연등회를 지방 무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부산 연등회의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지역성 등을 규명하고 연등회의 전통성을 밝힐 수 있는 기초 자료 확보 및 학술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산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사찰 중심으로 관련 문헌 및 구비 전승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과 더불어 부산 지역사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우 관장은 “연등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정의식과 연등이다. 관불의식에 대한 정통성과 역사성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전형적인 전통 연등회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춰 창의적인 경향이 반영돼야 한다. 국가적으로 화려하게 이뤄지는 사월초파일 연등 행렬이지만, 불자들만의 축제라는 인식이 높다.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제3부에서는 박영병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의 진행으로 부산박물관장 양맹준, 최연주 동의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정은 범어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이 부산 연등회 보존 및 발전에 관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거리의 포교사 운불련 28주년 기념법회


운불련 창립28주년 기념법회가 3월 20일 대구 운불련 자비원 법당에서 열렸다.

3월 20일 자비원 법당서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구지역회 운불련(회장 성승길)이 창립 28주년을 맞았다. 사부대중 300여 명 참여한 기념행사가 3월 20일 대구 운불련 자비원 법당에서 열렸다.

제1부 법요식은 김무용 부회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감사패, 공로패를 수여했다. 동화사 주지 상으로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들에게 포상이 주어졌다. 또한 각 지역기관장 및 단체장들은 운불련 가족들에게 상장수여 및 상품전달을 했다.

성승길 회장의 대회사는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 운불련 창립이념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전법과 지역봉사를 위해 노력하자”고 전했다.

현재 1300여 운불련 회원들은 정법을 수호하는 거리의 포교사로 제 역할과 의무를 다해오면서 불자들은 물론 일반시민들에까지 큰 사랑을 받고있다. 그동안 운불련은 불우이웃돕기, 독거노인돕기, 장학금 수여,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보시행으로 진정한 부처님 자비를’

방귀희 대표, 부산 환희불교복지대학 특별강연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환희불교복지대학(학장 지현, 부산 관음사 주지)이 호스피스 제31기생들을 위한 특별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방귀희〈사진〉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대표는 ‘베품의 리더쉽’이라는 주제로, 예비 호스피스들에게 불교사상과 사회복지에 대해 약 1시간 반 동안 가르침을 전했다.



방귀희 대표는 “저는 1991년부터 솟대문학이라는 장애인 문예지를 발행해오고 있는데, 대표로서 후원금을 받을 때가 있다. 불교 종교단체는 항상 준다는 티를 내지 않고, 어떠한 의식도 요구하지 않은 채 그냥 주신다. 티를 내지 않는 불교 보시행은 최고의 사회복지 실천법이다. 따라서 여러분도 불자이자 호스피스로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을 상을 내지 않는 진정한 사회복지를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희불교복지대학 호스피스 제31기는 3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호스피스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3시간 동안 이뤄지며, 환희불교복지대학에서 진행된다.

김나영 객원기자

“부산을 배워야, 부산이 성장한다”

허남식 부산시장 삼광사서 특강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는 3월 24일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사진〉 특강을 열었다.

‘부산, 세계인류 도시의 희망을 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에는 삼광사 금강불교대학 재학생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지 무원 스님은 “우리 스님들이 마음살이를 한다면, 부산 시장님은 부산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고 계신다. 시장님의 추진력과 높은 성취로 인해 부산이 이만큼 도약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은 “부산만큼 자연환경을 완벽하게 지니고 있는 곳이 없다. 교육, 문화, 금융 모든 것을 갖춘 남부권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각별한 애정이 필요하다. 부산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고 밝혔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은 2004년 제21대 부산광역시 시장으로 첫 선출됐으며, 민선 3선으로 현 2014년까지 제23대 부산광역시 시장으로서의 마지막 임기를 수행 중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부산 카포스, 저소득층 돕기

진각재단 낙동복지관에 100만원 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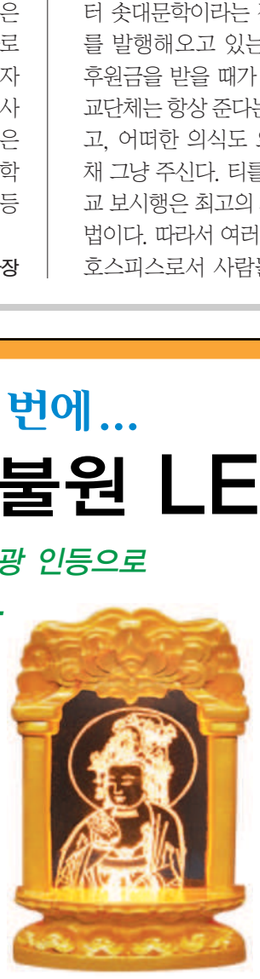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인 부산카포스 강서구지회(지회장 김종철)는 3월 24일 진각복지재단 산하 낙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광수)에 저소득 이웃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부산카포스 김종철 지회장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후원들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큰 보시금액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곳에 회향하고 싶다”고 후원의 취지를 밝혔다.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임광수 관장은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는 마음들이 하나둘 모여, 취약계층의 삶이 조금씩 희망적이게 변한다”고 표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임광수 낙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종철 부산 카포스 강서구지회장 및 부산 카포스 강서구 조합원 등 총 10여명이 참석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인등 불사와 법당 장엄을 한 번에...
면 자체 발광 성불원 LED 인등
기존에 없는 특허기술이 접목된 면 자체 발광 인등으로
법당 전체가 황금색 조명으로 장엄됩니다.


발명특허
발명특허번호 제10-1350047호
•성불원 인등 확대 모습
•법당 크기에 따라 2가지 크기 선택 가능합니다. 불화 자체가 장엄하게 빛을 발합니다.
성불원 LED 인등의 특징
1 기존의 인등과 달리 월등한 밝기로 법당 전체가 장엄됩니다.
2 LED만의 저렴한 전기료와 긴 수명으로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원하시는 어떠한 배경 불화로도 제작 가능합니다.
불은 30년 정진으로, 스님들의 장엄 불사에 함께 하겠습니다.
성 불 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전화 011-276-5251. 010-6857-0108
無碍 양학모 합장 인사 올립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이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노랑·빨강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마애불은 또 다른 '백진'을 기다리고…

마애불이 있는 사찰 - ⑤ 문경 대승사 · 대승사 마애여래좌상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사불산 자락. 마애불을 찾아가는 길은 실개천으로 시작됐다. 전두리, 마을 어귀 실개천엔 아직도 마른 갈대들이 서있다. 봄기운이 완연했지만 풍경엔 아직 겨울이 있었다. 꽃들도 아직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불산에 이르자 일 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었다. 머리에 연꽃을 꽂은 부처님이 계셨다. 대승사 마애여래좌상(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239호)이다.

머리에 연꽃 꽂은 부처님

고려 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승사 마애여래좌상은 대승사에서 약 2km 쯤 떨어져 있다. 대승사의 산내 암자인 윤필암과 묘적암 사이에 있다. 가깝기로는 윤필암에 가깝다. 대승사를 약 1.5km 남겨 둔 길에서 윤필암(오른쪽)과 묘적암(왼쪽) 이정표를 만난다. 승용차를 이용한다면 윤필암 바로 밑 주차장에 차를 두고 묘적암 쪽으로 걸으면 된다. 마애불을 알리는 이정표는 없다. 약 100m 정도 걸으면 오른쪽으로 돌계단이 있다. 약 30m 정도의 돌계단을 오르면 머리 양 쪽에 연꽃을 꽂은 부처님이 연화좌대에 앉아 계신다. 다른 마애불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이다.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머리 위에는 별석을 사용

산내암자 윤필암 · 묘적암 사이 위치
머리에 연꽃 문양 새긴 독특한 양식
백진 모친 위해 중창했던 미륵암 터

하여 천개(天蓋)를 만들어 놓았다. 마애불은 화강석의 자연석벽에 양각과 음각으로 새겨서 조성한 것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균열이 생겼으나,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마애불의 전체 높이는 6m이고, 연화좌대 넓이는 3.7m이다. 보통 목에는 삼도가 새겨져 있는데 이 마애불에는 목에 줄이 두 개뿐이어서 일반적인 양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왼손은 어깨 위로 올려 시무외인(施無畏印)을 나타내고 있으나, 오른손은 손가락을 조금씩 오므려 복부에 대고 있다.

사라진 미륵암

조선시대 학자 양촌 권근(1352~1409)의 〈사불산 미륵암 중창기〉에 의하면 마애불 자리에 '미륵암' 이라는 암자가 있었다. "산 정상에 밑 둥이 땅에 박히지 않는 바위가 하나 있는데 사면에 불상을 새겨 사불산이라 이르고, 그 중간에 법왕봉이 있는데, 남쪽 절벽에 자씨(慈氏)의 얼굴을 새긴 바위가 있으며, 그 곁에 있는 조그마한 절이 미륵암이다."고 했다. '자씨의 얼굴' 은 '미륵불' 을 뜻하는 것으로 대승사 마애여래좌상을 말한다. 기문에 의하면 미륵암은 신라 때부터 있었고, 폐허가 된 후 1385년에 중창이 시작되는데, 백진이라는 사람의 발원이었다. 백진은 경북 영해에서 살았는데, 1383년에 침략한 왜구들을 피해 피난을 떠난다. 노모를 등에 업고 먼 길을 떠돌다 다다른 곳이 사불산 기슭이다. 그러나 노모는 힘든 피난길에서 얻은 병으로 곧 숨을 거두고 만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슬프게 보내던 백진은 불효의 과오를 참회하고자 불사의 원을 세운다. 그리고 산에서 만난 노스님으로부터 미륵암 중창을 제안 받게 된다. 설레는 마음으로 미륵암터로 달려간 백진은 바위 속에 앉은 부처님을 뵙는다. 연꽃을 머리에 이고 시무외인(施無畏印)의 수인으로 중생을 살피고 계신 부처님의 모습은 힘들었던 백진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고, 백진은 불사를 결심한다. 그리고 혜안, 승부 스님을 비롯한 대중과 1387년에 불사를 회향한다. 그 후 1388년에 지운 스님의 도움으로 〈묘법연화경〉 1 부와 〈부모은중경〉 3권을 인출하여 봉안한 후 다음 해에 고향인 영해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시 미륵암은 사불산에서 사라진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폐사지가 한 두 곳일까. 미륵암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마애불은 '미륵암 마애여래좌상' 으로 불리고 있을 수도 있을 일이다. 앞서 말했듯 대승사 마애여래좌상의 위치를 알리는 이정표는 따로 없었다. 길에서 만난 스님의 말끝을 따라 찾아 간 부처님 자리였다. 아득한 시절 중창 때 보았듯이 이 자리는 누군가를 조용히 기다리는 자리인 듯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드는 자리라고 할까. 마애불은 언젠가 미륵암을 다시 세울 또 다른 '백진' 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대승사는

거리상 마애불과 조금 떨어져 있지만 마애불을 모신 대승사는 사적에서 읽었듯 사불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대승사 창건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 탑상사불산조와 천책의 〈유사불산기〉, 권근의 〈미륵암중영기〉, 인신 스님이 쓴 〈대승사사적후기〉 등이 있는데, 먼저 〈삼국유사〉 사불산조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죽령 동쪽 100여 리 남짓 산이 있는 것이 우뚝 솟아 높은 재와 같았다. 진평왕 9년 갑신년 갑자기 4면이 일 장 씩 되는 큰 돌이 하나 나타났다. 그 돌에는 사방 여래의 불상이 조각되었으며, 모두 붉은 비단으로 싸여 하늘에서 산꼭대기로 떨어진 것이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행차하여 공경히 절하고 바위 옆에다 절을 짓고 대승사라고 하였으며, 〈후략〉"

대승사는 임진왜란으로 전소된 뒤 1604년(선조 37)부터 1701년(숙종 27)까지 법당을 비롯하여 많은 당우를 중수했다. 1956년 화재로 다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었고, 1966년 중건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웅전에는 보물 575호인 대승사목각탱화(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가 있다. 목각 탱화는 주로 조선 후기에 나타나며, 현재 전국에 7점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중 한 점이 관계문서와 함께 대승사에 남아 있다. 국내에 남아 있는 목각탱 중 대승사목각탱이 규모 면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조각양식에서 가장 우수하다 할 수 있다.

문경 대승사=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고려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승사 마애여래좌상(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239호)은 대승사 산내 암자인 윤필암과 묘적암 사이에 있다. 머리에 연꽃 모양을 새긴 독특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대승사 전경

보물 575호인 대승사목각탱화(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주변보기

〈사찰〉

-김룡사 /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운달산

588년(신라 진평왕 10)에 운달(雲達) 스님이 창건하여 운봉사(雲峯寺)라고 했다. 그 후 1624년(인조 2)에 혜총 스님이 중건했는데, 1642년 화재로 도량이 모두 소실됐다. 1649년에 의윤 · 무진 · 태휴 스님이 대웅전을 짓고, 김룡사로 개칭했다.

〈명소〉

-문경새재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1156

문경읍에 있는 고개로 일대 주변이 명승 제32로 지정되어 있다. 옛 이름은 조령으로, 조선 태종 14년(1414년)에 개척한 관도로 영남에서 소백산맥의 준령을 넘어 한양으로 가는 주요 길목이며 정상 높이 642m의 고개이다. 새재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라는 설과 하늘재와 이우리재(이화령) 사이(새)에 있는 고개라는 설이 있다. 한편 옛 문헌을 인용하여 초점(草岾), 즉 풀(억새)이 우거진 고개라는 주장도 있다.

-KBS 왕건 촬영장 /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문경새재 주흘관

대규모의 KBS 태조왕건 오픈세트장 고려촌은 KBS가 방영한 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의 야외세트장으로 한국드라마 사상 최대 규모의 야외세트로 기록되고 있다.

-문경온천 / 문경시 문경읍 하리394

문경온천은 2001년 3월 24일 개장했다. 2,500여 명이 동시에 입욕할 수 있는 현대식 대형종합온천이다.

지하 900m 화강암층과 석회암층 사이에서 분철한 칼슘 중탄산천과 지하750m 화강암층에서 분출한 알칼리성 온천수를 공급하여 한 번의 입장으로 2가지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복합보양온천으로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식당〉

-내아들밥상 / 054-555-1234
-진남매운탕 / 054-552-7777

〈숙박〉

-문경관광호텔 / 054-571-8001 문경시 문경읍 새재2길 32-11
-문경온천 / 054-571-2002 문경시 문경읍 하리 394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고민하십니까?
하는 일마다 안되십니까?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장 / 한국 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 총재
현오스님이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교육생 수시모집 [최면.퇴마.자극요법.기공]
서울 은평구 | 부산 동래구 사직1동 18-14 | 인터넷상담 가능
010-5656-3915 | 010-9229-3801
빙의 · 신병 · 천도재전문 현오스님 을 찾으세요

新 사찰 건축
6. 안양 한마음선원

‘현대화·대중화’에 발맞춘 생활불법 가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는 서울과 수원을 연결하는 1번 국도(경수산업도로)가 있다. 이 도로변을 따라가면 독특한 형태의 탑이 건물 꼭대기에 놓인 건물이 보인다. 바로 ‘한마음선원’이다. 지하 4층, 지상 5층의 총 9층 규모인 한마음선원은 안양의 랜드마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창건주인 대행(1927~2012)스님의 원력으로 도심포교의 한 획을 긋게 된 한마음선원은 1999년 사찰을 증축하면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972년 ‘불교회관’이란 이름으로 세워졌을 당시 현대적 건축 양식을 도입해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한마음선원은 새 법당을 건립했을 때에도 현대적이고 대중적이면서도 전통을 잃지 않는 새로운 형식의 사찰을 선보였다.

지금이야 도심 사찰들이 현대적 건축 양식을 도입한 것을 쉽게 볼 수 있지만 당시에 사찰이 현대적 건축물로 지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불교의 현대화·대중화를 지향한 대행 스님의 혜안 덕분이었다.

당시 한마음선원의 건축 설계를 맡았던 건축가 최영집(64) 씨는 일반적인 전통사찰과는 달리 한국불교의 현대화·대중화에 앞장 선 한마음선원을 어떻게 하면 생활 불교의 도심 사찰로 만들 수 있을까 고심했다.

“1990년대 초 대행 스님을 만났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한마음선원 신도들을 모두 수용하면서도 교육과 법회, 모임 등 다양한 신행활동이 가능한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사찰을 만들어야 한다고 스님께 말씀드렸어요. 사찰도 설계했지만 주로 교회나 성당 등 종교건축을 전문으로 해온 저의 제안을 스님은 긍정적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수용해주셨어요.”

새로운 사찰 건축문화 제시

예전의 한마음선원 구법당 건물 에는 현재 한마음과학원과 국제불교문화원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있는 곳 자체가 언덕지형으로 지층이 균일한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당시 주변은 주택들이 빼곡하게 밀집돼 있어 선원은 수 천명의 신도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마음선원은 1993년 주변의 부지를 확보하고 4월 4일 기공식을 가진 후 6년 2개월의 공사 끝에 지상 5층, 지하 4층의 신축법당을 완공했다. 연면적 10,533㎡, 지하 1층은 식당, 지하 2~4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종무소, 2층은 회의실, 3~4층은 강당, 5층은 대법당이며 2층 회의실은 결혼식, 회갑연 등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새로 건립된 한마음선원은 일체가 하나로 들고 난다는 부처님 가르침의 뜻이 그대로 5층 대법당에 담겨져 있을 뿐 아니라 시대 조류에 맞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지어져 사찰 건축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

최영집 씨는 “선원이 위치한 곳의 부지가 넓은 편이 아니고 지층이 달라 건물을 유기적으로 연결 시켜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자연스럽게 건물이 연결 될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최 씨는 정면 도입부와 본채, 요사채 등으로 크게 삼등분해 건물을 올리고 전통건축 형태의 지붕을 올렸다. 각 층에는 발코니를 만들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 천명의 신도들이 오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지하와 본관 1층 및 2·3층 등 여러 층에 외부로 통하는 출구를 만들고 계단도 양쪽으로 설계해 원활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전경. 지하 4층, 지상 5층의 총 9층 규모인 한마음선원은 안양의 랜드마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지붕의 칠보탑은 생을, 도량 마당에 있는 구정탑은 멸을 상징한다.


5층 대법당은 한마음선원만의 독특한 형식으로 성도하시는 부처님, 한국 16국사와 16선사를 모신 목탱화로 불단을 장엄했다.

일체가 하나로 들고나는 가르침 담아
1999년 완공·설계 건축가 최영집
전통미 살린 지붕에 공간 활용 극대화
한국16국사·16선사 협시목탱화 모셔

전통 목조건축의 법당은 그 당시 큰 목재가 없었기 때문에 조계사와 같이 기둥이 법당 가운데 여러 곳에 세워져 있어 탁 트인 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와 달리 한마음선원은 법당 내부 또한 공간 활용을 극대화 했다. 우선 내부공간에 기둥을 세우지 않았다. 최 씨는 좁은 대량을 철골로 튼튼하게 설치해 기둥 없이도 지붕무게를 견딜 수 있게 설계 했다. 또한 천장을 높여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당의 구조는 철근조와 목재가 조화를 이룬 방식이다. 벽과 기둥, 보 등은 철근 콘크리트로써 기초를 잡고, 천정 평반자에는 미송, 빗반자에는 홍성목, 포재에는 육송, 바닥재는 오크 마루판으로 처리했다.

과거·현재·미래 하나 되는 법당

불단은 가로가 아닌 세로를 향하게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법당이 강당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참여대중의 시선이 불단에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마음선원 법당의 특징으로는 지붕 구조에 있다. 일반적 전통 가옥의 지붕 양식은 합각 지붕(또는 팔작 지붕이라고 함)양식인데, 선원의 지붕은 기본적으로 합각 지붕 형식을 취하고 지붕 중앙부 양쪽에서 직각으로 다시 지붕을 내어 열십자 모양의 지붕 형식을 취했다. 일체의 근본이자 뿌리인 우리의 자성불이요, 바로 한마음 주인공을 상징하는 뜻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불단은 가로가 아닌 세로를 향하게 한다는 원칙을 지켜 법당이 강당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 천명의 신도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계단과 동선에 신경을 썼다.

법당에 들어서면 우선 화려한 단청 문양의 장엄함에 놀라게 된다. 천정이며 벽이며 각종 별화(別畵)와 선사들의 진영, 그리고 청·적·황·백·흑으로 아름답게 조화된 단청이 신심을 절로 자아내게 한다. 약 118평 정도 규모의 5층 법당은 가히 문화재급의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부처님과 법상은 인간문화재(중요 무형문화재 108호 목조각장)인 박찬수 목아박물관장이 조성했고, 단청과 개금 부문 문화재 기능보유자인 김성규 선생이, 문화재 기능자인 청원 스님이 목탱화와 수미단, 닷집을 조성했다.

특히 일반적인 사찰과 다르게 대법당에는 본존불 한 분만을 모셨는데, 이는 우주를 생성하는 근본인 한마음 속에서 일체가 들고 나는 것임을 뜻한다. 좌대를 포함, 총 8자의 크기로 이루어진 이 불상은 거친 삼베를 두른 듯한 질감에서 독특한 한국의 미를 느낄 수 있다.

상단 전면의 목탱화 중앙에는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의 상황이 묘사돼 있고, 좌측에는 지옥계, 우측에는 중생계를 표현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로는 한국 불교의 맥을 이어오신 우리나라의 16국사와 16선사가 모셔져 있다. 선사들의 진영을 법당에 모시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이처럼 협시보살 대신에 역대 고승 대덕 스님들을 목탱화로 모신 것은 드문 형식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돌아가는 진리 속에서 한국불교의 선맥이 나라와 세계에 정신적인 구심점으로 만인의 마음을 깨치는 교두보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새로운 형식의 불탑

한마음선원 법당 지붕에는 황금색 원형의 탑이 있다. 일곱 개의 금색 구형으로 이루어진 칠보탑(七寶塔)은 우주 전체와 연결돼 인간이 진화하고 다시 태어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북두칠성을 상징한다. 모든 생명의 생성을 의미하는 뜻이 있어 ‘우주탑’이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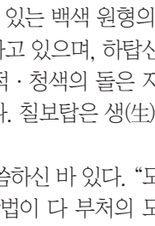
도량 3층 마당에 있는 구정탑(九淨塔)은 도량탑으로 불린다. 탑의 상부를 이루고 있는 백색 원형의 돌은 일체가 공(空)한 도리를 뜻하고 있으며, 하탑신부와 기단부를 이루는 황·흑·적·청색의 돌은 지수화풍의 근본이라는 것을 뜻한다. 칠보탑은 생(生)을, 구정탑은 멸(滅)을 상징한다.

대행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다. “모습 모습 화해서 돌아가는 일체 만법이 다 부처의 모습 아닌 게 없고, 그 마음 그 도량 아닌 게 없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고 생동력 있으며 푸르르게 움직이는 한 부처는 있다. 사생(四生)이 다 부처라면 어떤 분을 부처라고 하겠는가. 모두 부처이기에 부처는 ‘없는 게’ 부처이다.”

부처 아님이 없으니 불사가 따로 있지는 않으리라.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가 빠진 채 단순히 법당을 짓고 탑을 쌓는 모습에 그친다면, 부처님의 뜻에 꼭 부합됐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선지식의 점안식을 통해서야 비로소 근본이 선 법다운 불사가 되는 것이다. 선원의 불사가 바로 그런 불사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건축가 최영집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를 거쳐 서울 건축사회 회장,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건축사사무소 탑 대표이사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매주 토요일 ‘신묘장구 대다라니’ 철야기도 도량

무심사 무심선원 제7회 낙동강 방생 및 수륙·용왕대재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물에나 육지에 있는 고혼과 아귀에게 법식을 공양하는 대법회에 수희 동참하시어
무주고혼 영가천도에 무량 공덕지으셔서 가정 편안하고 세세 생생 안락하시길 기원합니다.

무심사 무심선원 사부대중일동 합장

◆일 시 : 2014년 4월 13일(일요일) 오후 1시
◆법 사 : 마산 세원사 회주 천우 큰스님
◆장 소 : 무심사 무심선원
◆집 전 : 무형문화재영산회 전수자 스님 여러분
1부 : 수륙대재
2부 : 문화공연

무심사 무심선원 선방 안내

■ 매주 토요일 다라니 철야정진
선방시설완비 (단체, 개인 참선방)
■ 무심사 셔틀버스운행 :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대구지하철 1호선 진천역 4번출구 앞 대기)
■ 무심사 홈페이지
다음카페 ‘낙동강 무심사’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천하절경’ 낙동강변 영축산 무심사 무심선원 TEL 053)616-8080 / H·P 010-9898-0108
경남 창녕군 이방면 손실길 62-215 (네비주소 :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대담 2리 810-1)

| 명당발복의 이천년 신비를 과학이 밝혀냈다 |
명당발복의 신비



★대통령과 재벌을 원한다면 대명당인
천조명당天造明堂을 구求하라!
★가문의 영광과 부귀영화를 바란다면
지조명당地造明堂을 구求하라!
★소문난 맛집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면
인조명당人造明堂을 구求하라!

● 풍수지리(風水地理) 이천년 역사상 최초로 명당(明堂)의 땅속 형상(形象)이 과학기술(科學技術)에 의해 밝혀짐에 따라 명당의 실체(實體)와 명당의 크고 작음(명당자리의 大小)을 판단(判斷)할 수 있는 방법(方法)을 처음으로 이 책을 통해서 만천하(滿天下)에 공개한다.
● 명당이 명당을 불러들이는 신비한 현상(現象) 즉, 음택명당(陰宅明堂)이 양택명당(陽宅明堂)을 불러들여 명당발복(明堂發福)의 시너지 효과(效果)를 만들어 내는 명당발복의 신비(神秘)한 베일이 드디어 이 책을 통해서 적나라(赤裸裸)하게 벗겨지게 되었다.

■ 동선호 지음 / 신국판 / 516쪽 / 정가 25,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격국格局과 용신用神으로 운運보는 법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사주를 보는 안목이 한순간 확 트일 것이다.
수십년 공부하여 포기하고 싶었던 고민이 한순간 해결된다.
명리학의 핵심은 용신이며 희신과 기신의 작용이다.
용신이란 부.귀.빈.천과 운세를 보는 열쇠가 된다. 가장쉬운 용신을 모르고 사주의 병과 약을 모르고 있다. 자평명리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준다. 지금 바로 펼쳐보십시오!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선현들의 예지를 본받아 생활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가치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한국의 구법승

7. 중국 선종의 개혁가
정중 무상(淨衆 無相) 선사

사천 땅에서 동북아 불교 법맥을 지키다

중국 사천(四川)에는 남종(南宗)도 북종(北宗)에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일문(一門)이 전해진다. 바로 정중종(淨衆宗)이다. 지난 일들을 되새기지 않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항상 지혜를 간직하는 것을 종지(宗旨)로 하는 정중종. 이 정중종을 일으킨 이가 바로 정중 무상(淨衆 無相, 684~762) 선사다. 정중종은 사천성 정중사(淨衆寺)에 머무른 무상 선사의 선법을 말한다.

사실 정중 무상 선사가 알려진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1908년 금세기 불교사의 큰 수확인 돈황의 발굴과정에서 무상 선사의 게송인 〈무상오갱전(無相五更轉)〉과 〈무상어록(無相語錄)〉이 발견되며 긴 잠에서 깨어나 비로소 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돈황문서 속에서 이들이 발견되며 1930년대부터 중、일 학자들 사이에 무상 연구가 치열하게 이뤄졌다.

중국의 석학 호적(胡適)과 일본인 학자 야마구찌(山口瑞鳳) 등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무상 연구가 속속 나왔다. 그에 비해 국내 학계의 연구는 지극히 미미했다.

그는 놀랍게도 김(金)씨 성을 가진 신라 왕자 출신으로 중국 500나한 중 455번째 조사(祖師)에 올라 있다.

사천에서 지선 선사 문하로

무상 선사가 출가하게 된 계기는 막내 누이의 출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무상 선사에게는 막내 누이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 혼사(婚事)가 진행되자 스스로 칼로 얼굴에 상처를 내어 속가를 등지고 출가했다. 누이가 도를 닦을 마음을 내는 것을 보고 무상 선사는 큰 충격을 받았다.

"아녀자도 저와 같이 도에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물며 대장부로서 어찌 머뭇거리고 있겠느냐"며 부왕의 뜻을 거절하고 머리를 깎았다고 한다.

무상 선사는 신라 군남사에서 출가해 제방을 두루 참방하며 수도하다 46세이던 해에 바다 건너 당나라로 유학의 길에 올랐으니, 당 개원 16년(729)이었다. 그는 당나라 수도 장안에 이르러 당 현종을 알현하고 선정사(禪定寺)에 머물렀다.

그 사이 여러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며 물음을 구했다. 무상 선사는 장안을 떠나 사천지방으로 들어가 덕순사(德純寺)의 지선(智詵) 선사를 참알했다. 지선 선사는 5조 홍인 대사의 제자로서 신수, 혜능 선사 등과는 동문 법형제였다. 지선 선사는 홍인 문하에서 득법한 후에 사천지방에 와서 교화하고 있었다. 이때 이미 연로하고 몸이 쇠약해 무상 선사를 그의 입실제자인 처적(處寂) 스님에게 안배했다.

하지만 처적 스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상 선사를 쉽게 맞아주지 않았다. 그때 처적 스님이 병을 핑계대면서 무상 선사를 만나주지 않자 무상 선사는 손가락 하나를 태워 연지공양(燃指供養)을 올렸다. 처적 스님은 그의 신심을 보고 사중에 머물게 하였다.

당시 지선 선사의 문하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처적 스님이 있었다. 그는 뒷산인 북산에 거주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북산란야(北山蘭若) 처적이라 불러 두 사람을 구분하였다. 그는 육신통이 있었다.

북산 처적 스님이 대중들에게 내일 외국에서 온 스님이 참례하러 온다고 하니, 과연 그 다음 날 저녁에 무상 선사가 북산의 처적 스님을 찾아왔다. 북산 처적 스님은 자기의 가사를 벗어주고 무상(無相)이란 법호를 내렸다.

무상 선사는 이미 처적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기로 하였으나 한편으로 북산 처적 스님에게 더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후에는 역시 처적 스님의 법을 계승하게 되었다. 무상 선사는 천곡산에 들어 두타행을 실천한다. 무상 선사는 처적 스님과 함께 지선 대사의 가르침을 받으며 법형제가 된다. 주로 가르침은 처적 스님에게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계보상으로는 처적 스님과 함께 지선 스님의 제자가 된 것이다.

신라왕자 출신…출가해 唐 유학
정중종 열고, 새 흐름 만들어
마조 도일에 영향, 구산선문 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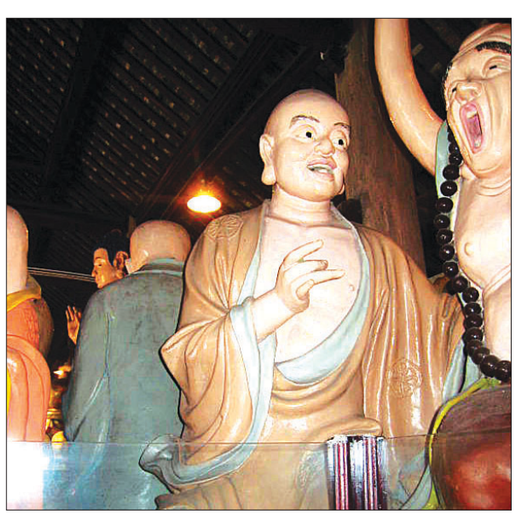


중국 500나한도 중 455번째 조사에 올라있는 정중 무상 선사



2005년 10월 대자사에 세워진 〈무상선사행적비〉


2005년 쓰촨성 대자사에서 열린 첫 학술연찬회를 알리는 글이 대자사 산문에 걸려있다.


사천성 시방현 나한사 오백나한전에 모셔진 무상 선사상

사진제공=불교춘추사

정중종의 형성

무상 선사는 처적 스님의 문하에서 2년간 수학한 후, 천곡산(天谷山)으로 처소를 옮겨 거주하였다. 무상은 심산유곡의 암굴에서 홀로 두타행(頭陀行)을 닦았다. 며칠 동안 선정삼매에 들어 맹수들도 감복하고 호위할 정도로 수선에 몰두하였다고 전해진다.

안사의 난 이후 당 현종이 사천으로 파천해 왔을 때 무상 선사는 뛰어난 신승(神僧)으로 세간에 널리 회자되고 있었다. 당 현종이 그를 접견하고 정중사(淨衆寺)에 주석하게 했다. 당 개원20년(732) 4월 당화상 처적 스님은 무상을 불러 가사를 전수하고 "이 가사는 달마조사가 전한 법의인데, 무후에 의해 지선화상에 전해지고, 화상이 나에게 전한 것을 오늘 그대에게 전하노라. 그대는 스스로 잘 보호하여 나의 선법을 크게 선양하도록 하여라. 스승을 능가하여야 훌륭한 제자가 되는 법이니, 그대는 정중사에 머물며 크게 정중선을 일으키도록 하라"고 후사를 부촉하고 원적에 들었다. 이로부터 정중종(淨衆宗)의 선법이 개창되게 된 것이다.

무상 선사는 정중사에서 개당한 이래 20년간 교화를 펴게 된다. 그는 매년 정월과 12월에 도량을 건립하고 대중을 위해 설법하였는데 적게는 400, 많게는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하였다고 전해진다.

〈역대법보기〉의 기록에 따르면, 무상은 먼저 인성염불(引聲念佛)을 하게 되는데, 한 목소리의 숨이 다하고 목소리가 끊어졌을 때 삼구설법(三句說法)을 하였다고 한다.

삼구란 무억(無憶. 기억을 없앰), 무념(無念. 망념을 없앰), 막망(莫忘. 망각하지 않음)으로 계정혜(戒定慧) 삼학을 말하는 것이다. 종밀의 〈원각경대소초〉에도 마음에 지난 일들을 추억하지 않는 것이 무억(無憶)이며, 미래의 영고성쇠에 염려하지 않음이 무념(無念)이며, 항상 지혜와 상응하여 어지럽지 않음이 막망(莫忘)이라고 설하고 있다. 또한 바깥 경계(外境)에 끄달리지 않음이 무억이며, 내심에 미혹되지 않음이 무념이며, 수연(隨緣)하여 의지함이 없음이(無寄) 막망이라 설하여, 삼구설법이 계정혜 삼학의 등지(等持)임을 주장하고 있다. 무상은 이러한 삼구설법을 총지문(摠持門)이라 말하고 있다.

〈역대법보기〉에는 "망념이 일어나지 않음(念不起)이 계문(戒門)이요, 정문(定門)이며, 혜문(慧門)이다. 무념(無念)은 계정혜를 구족한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이 문을 통해 깨달았다"라고 하였다. 즉 무상이 설한 삼구설법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염불기(念不起)"의 무념(無念)의 경계가 심지법문(心地法門)이 된다.

무상은 이러한 삼구, 삼학의 법문이 달마로부터 전해내려 오는 것이라고 하여 사천선종의 정통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마조도일 선사에 영향

이런 무상 선사의 제자로는 무주 스님이 있다. 마조 도일 선사 역시 무상 선사와 같이 처적 스님에게 사사를 받아 무상 선사와 법형제 또는 사제의 연을 맺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상 선사의 법계를 살펴보면 사천의 선종은 5조 홍인의 십대제자 중 한 사람인 자주지선(資州智詵)을 초조로 하여 처적(處寂)-무상(無相)으로 계승돼 정중종(淨衆宗)을 형성하고, 무상의 법계는 다시 무주(無住)에게 전승되어 보당종(保唐宗)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사천지역은 스스로 선종의 정통을 주장하며 독자적인 선사상을 전개한다.

당시 중국의 선종분포를 보면 북종선과 남종선과 더불어 사천성에서 무상 선사가 창시한 정중종파가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북쪽의 신수 대사를 정점으로 하북성에 기반을 둔 북종선과 남쪽의 혜능 선사 계열의 광동성에 기반을 둔 남종선이 크게 대립하고 있었다. 돈황에서 발견된 전법보기와 능가사자기에서는 5조 홍인 대사의 법이 북종선을 세운 신수 대사에게 전해졌다고 기술한다. 하지만 남종선의 종조 혜능 선사의 제자인 하택 신회는 5조 홍인 대사로 부처 혜능 선사가 법통으로 이은 징표로 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반격한다. 또 한편으로는 무상의 제자인 무주 스님이 〈역대법보기〉를 쓰며 홍인의 가사가 지선 선사에게 이어지고 처적, 그리고 무상에게 다시 이어졌으며 다시 무주에게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지거가 지었다는 보림전에서는 중국 선종사에 큰 영향을 미친 마조 도일 선사도 무상 선사의 제자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이러한 내용이 맞다면 한국 조계종 종조로 추앙받는 신라 도의국사는 마조의 제자 지장의 법을 이었기 때문에 그 법이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본 선종도 임제 선사를 뿌리로 하기에 황벽, 백장 선사로 거슬러 올라가 마조 스님에 까지 닿는다. 결국 마조 도일 선사가 무상 선사의 제자라면 무상 선사의 스승 지선 선사가 5조 홍인 스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6조 혜능 선사와는 서로 갈래가 다르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동북아에서 남종선이 차지 하고 있던 위치를 정중종파가 차지하는 것으로 한중일 모든 선종파의 큰 줄기가 무상 선사의 후예들로 바뀌는 것이다.

무상 선사의 법맥은 남북종 분립 이전의 한국선의 원류를 살필 수 있게 한다. 5조 홍인 선사의 법맥에서 출발한 사천 선종을 집성한 정중종은 무상 선사와 긴밀한 관계 였던 마조 도일 선사로 이어지며, 또 그 영향은 신라에 까지 이어진다.

무상 선사는 대중교화를 위해 시정에서 출재가 남녀들에게 수계를 했는데 이 무렵 티베트 사절단을 성도에서 만나 가르침을 주었으며, 중국불교가 티베트로 진출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무상 선사는 중국불교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동아시아 불교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삶과 사상의 흔적은 중국을 넘어 티베트와 돈황에도 널리 알려졌으며 그 법맥은 한국에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법당장엄
5층 목탑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자 : 1판 ▣ 2자 : 4판 ▣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 9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 가로, 세로 20cm
가격 : 35만원
● 크 기 : 높이 120cm /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주문문의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일체 경계는 본래 일심이니,
자연과 생명의 청정한 광명을 찬탄합니다.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니,
모든 인연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합니다.
삶의 모습이 법문이다
일체경계 본래일심
정목스님 지음 | 신국판 | 무선 | 올칼라 | 170쪽 | 12,000원
일체를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관하는 일심정토염불수행
'연기 · 공 · 중도'는 세계의 실상을 관하는 철학적 사유이며, 객관적 깨달음입니다. '일심 · 광명 · 화신'은 종교적 신념이며, 주관적 깨달음이요, 실천철학입니다.
연기는 보편의 진리인 까닭에 말로써 전할 수 있지만, 일심 · 광명 · 화신은 종교적 신념이요, 주관적 깨달음인 까닭에 말로써 온전히 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하기 어렵지만, 진실로 믿고 행하는 자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확고한 종교적 신념으로 '마음이 밝으면 일하고, 마음이 어두우면 염불하는 삶'을 게으르지 않고 행하면, 반드시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교를 말로 전하려면 끝도 없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마디만 전한다면, "나는 내 삶의 모습이 법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청화 큰스님 입적 이후 염불선(念佛禪)의 차세대 선지식으로 손꼽히는 저자 정목스님(양산 정토원 원장)은 원효성사가 남긴 일심정토 염불수행을 삶과 수행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체득한 깨달음을 가감 없이 진솔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양산 정토원 ☎ 055-375-5844, 카페 '아미타파'(cafe.daum.net/amitapa)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몸뚱이는 법 따라 변하는 가죽주머니

수술법문 ②

이건 자체성이 없어. 태양도 하나의 모습이거든, 돌멩이도 하나의 모습, 이 꽃도 하나의 모습이지? 어떠한 거든지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실다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늘 변하지만 말이지. 지금 이 꽃도 자꾸 변하고 있어요. 변하면서 있기 때문에 실다운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을 머리털 눈부터, 코는 원숭이 코로 해서 눈은 개 눈으로 해서 전부 바꿔 놨는데 어머니하고 관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저러나 이건 뭣이냐. 모습이거든. 그렇다면 실다운 것이 아니라는 이런 결론이 나거든. 그러면 여러분의 몸뚱어리도 마찬가지여.

여러분의 눈 귀 코 혀 몸 팔 다리 이거 실다운 것 아니거든. 물론 실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해. 가만히 생각하면 알아져. 그러면 모습으로서 국적을 찾는다면 내 다리는 국적이 일본이요 내 팔은 국적이 중국이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 그래야 말이 옳아.

그러나 우리는 모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 모습은 쓸지언정, 내가 써. 라디오처럼 내가 써. 쓰긴 쓸지언정 모습이 실다운 나라는 생각은 없거든. 이 사람이 수술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의심을 품었던 모양이라. 자, 그러면은 문제가 반이 풀렸어. 일본이니 독일이니 영국이니 불란서니 이러하지만 그건 실다운 것이 아니라 말이여. 항상 변하는 거에요. 자체의 지혜가 없는 거라 말이죠. 그러하니 우리가 이걸 붙들고 말을 할 수는 없다 말이여.

그러면 이 사실을 걷어잡고 어머니를 찾아야 되겠고 아내를 찾아야 되겠고 자식을 찾아야 된다 말이죠. 이것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일이던가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는다면 문제가 달라져. 여기 올 때와 나갈 때와는 사람이 바뀌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단단히 들으세요.

단단히 들어라. 이리 저리 모이어져서 다시 이루어졌지만 몸뚱이란 본래로 성품이 없으면서도 법에 따라 줄곧 변하는 가죽주머니이니 어찌 정법이 있어서 국적을 말하고 인종을 가리랴. 다만 연에 따라서 뉘라도 쓰면 주인인지라 너의 색신인 줄로 알라.

누구라도 쓰면 주인이라 했네요. 자체의 성품이 없으니. 또 내가 쓰면 내가 주인이 되겠네. 하하하.

왜냐면 너에게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있으니 이 바로 참 너인데 이 놈은 본래로부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리 맑고 밝으나 어떤 물건이라 일컬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므로 부득이 마디말을 빌어서 마음이니 성품이니 슬기이니로 부르는데 의젓하여 하늘과 땅이 나뉘기 앞의 소식으로서 부처도 얻어내지 못하나 중생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사리가 이렇듯이 분명하니 다만 너는 여자의 몸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것만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하되 소중하게 맺어진 상대적인 인연을 의심하지 말고 어머니로서 존경하고 아내로서 아끼고 자식으로서 사랑함이 당연한 처사라 하겠다.

> 자체의 성품이 없으니
> 누구라도 쓰면 주인이라 했네
> 또 내가 쓰면 내가 주인이 된다
>
> 중생 병이 색상신만 보는 것.
> 색신 곧 법신, 법신이 곧 색신
> 색상신 걷어잡으면 법성신 알아.

이 소식에 몸을 한 번 뛰쳐라.

자, 이 소식에 몸을 한 번 뛰쳐야 돼. 이 소식에 몸 뛰치지 못하면 공연히 서울서 여기까지 온 차비만 없애버렸어. 나도 헛말만 했고, 내 목만 타고.

목계가 홰를 치니 석인이 움직인다.

조용조용히 말 하여라 남이 들을라.

매꽃이라 피었으니 봄소식이 분명쿠나

어즈버야 이렇던가 천하사를 의심하랴

한번가고 한번옴에 무궁한뜻 잠겼기로

리리라라 장단소리 그대로가 자연일레

이 소식에 이거 여러분의 일들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의 일들이에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돼. 그래서 여기 해 놓은 것이 목계가 홰를 치고 돌사람이 움직인다. 그러나 이런 말 조용조용히 해라 다른 사람이 들을라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해 놓은 건 전부 이 문자 밖에 의미가 있어. 그러면 색신 곧 법신이요. 법신 곧 색신이라는 이런 의미도 여기에 있거든.

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아 그렇구나 하고 지견으로 흘러버리거든. 그래서 그대로 조용조용히 말해라. 행여 거기에 뭣이나 있는 것처럼. 이거 참말로 여러분들이 이 경지에 들어서 봐야 이걸 알게 됩니다.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매꽃이라 피었으니 봄소식이 분명쿠나. 색상신 걷어잡으면 법성신 걷어잡아. 내가 봄이요 나타내지 않아도 매꽃만 봐도 봄소식이란 걸 알아. 여러분 색상신을 걷어잡아. 색상신을 걷어잡으면 법성신 그대로 알아. 그렇잖아요? 중생들의 병이 색상신만 볼 줄 알거든. 실은 참말로 색상신 볼 줄 알면 법성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색상신 그 오묘한 것을 알아. 여기 코털이 하나 있어. 그것도 이 도리를 알면 재미가 있어. 콧구멍이 이상하게 생겼어. 이상해. 거기 터럭이 하나가 쏙 나왔어. 그것도 이상해.

그러나 법성신을 모르면 코털 그것이 재미가 없어. 그것 참 이상한 겁니다. 그러하니 매꽃이라 피었으니 봄소식이 분명쿠나.

봄소식 있는 데까지 가 봐서 니가 봄이더냐? 이렇게 아는 분이 어디 있나요? 매꽃 피었으면 그대로 봄이로구나 이걸 알게 돼. 어즈버야 이렇던가 천하사를 의심하랴. 바로 색상신을 걷어잡으면 그대로 하나하나가 두렷한 법성신이라. 의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을 해도 이 몸뚱어리는 들을 줄도 몰라. 볼 줄도 몰라. 눈이 보는 것 아니거든. 눈에 비쳤지. 눈에 비친 걸 보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것이 보지 어찌 눈이 보느냐 말이여. 그래서 우리 보림선원에서 말하는 것이 보는 거로써 눈을 삼으라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눈알이 어디 봐 지는가? 여기 거울이 있으면 내 얼굴이 거울에 비쳐. 거울 자체는 내 얼굴이 비치는 줄 몰라.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유불도는 선행을 표내지 않는다

7. 참회진언(懺悔眞言)

옴 살바 몯다모디사다야 사바하(三遍)

참회진언의 참회는 앞에서 말하였으므로 더 언급할 필요는 없거니와, 진언에 대해서는 첫 대목의 정삼업진언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겠다. 좀 더 철저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진언(眞言)은 이를 번역하면 우리말로 주(呪), 혹은 주문(呪文). 범어는 만다라 또는 다라니. 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句大陀羅尼). 반야심경(般若心經)의 즉설주왈(卽說呪曰) 따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진언은 모든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 말이라 하여 총지(摠持)라고 풀이한다. 또 우주의 신비성을 대하고 감동하여 속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소리다. 풍송(諷誦)이라고 한다. 아금풍송(我今諷誦)이 그것이다. 구분경(九分經)에서는 이를 우다나(優陀那)라고 하였으며 혹은 누구 묻는 이도 없는데 스스로 흥겨워 대자연을 설파했다고 하여 이를 무문자설(無問自說)이라고도 한다. 이를테면 진언은 일종의 즉흥시(卽興詩)라고 보아 틀리지 않는다.

불교는 음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한다. 음성은 서양의 종교도 중시하는 바로 구약성서(舊約聖書) 창세기에서도 그 허두에 이르기를 '태초에 말씀이 있어' 하였는데 말씀이란 곧 음성이다. 음성에 따라서 그것이 이르는 대로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나무가 있으라……하니 그대로 만물이 하나 하나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를 일컬어 로고스라고 하는데 중국의 도(道)라는 말과 같다. 중국에서도 공자왈(孔子曰), 맹자왈(孟子曰), 하는 왈(曰)자는 가라사대인즉 말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음성이 특히 중요시되었다.

고대사(古代史)에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고 친근감을 주는 대목은 화랑(花郎)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훌륭한 제도가 우리의 조상들에 의해 옳게 보유되지 못하였지만, 고운 최치원 선생(孤雲 崔致遠 先生)께서 화랑의 생활을 설명한 글이 있어 이르기를, '나라에 현묘(玄妙)한 도(道)가 있다. 도의 이름을 풍류(風流)라고 한다' 고 하였다. 풍류는 부루라고 읽는 것이 옳다. 부루도 인즉 유 · 불 · 선 삼교(三敎)를 두루 포함하고 있었으며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섭하여 교화하였다. 즉 접화군생(接化群生)하였다.

삼교는 무엇인가? 집에서는 어버이님께 효성(孝誠)을 다하고 나아가 국가에 대하여서는 충성(忠誠)을 바친다는 것은 노(魯) 나라 사구(司寇), 즉 공자(孔子)의 도와 다를 바 없고, 착한 일을 모두 하면서도 그런 표를 내지 않는 것, 내가 이런 선행(善行)을 했니라 하는 표를 내지 않는 것, 요새 P · R시대라고 하여 자기 선전을 잘 해야 세상이 알아 주는 것이라 하지만 실천하고도 그런 것 같지 않은 태도를 갖는 것은 주로 주주사지종야(周柱史之宗也), 그러니까 노자(老子)의 정신을 체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어떠한 나쁜 짓도 하지 않으며 착한 일만을 실천하므로 이를 즐긴다 하는 그것은 서천서역국(西天西域國)의 실달타태자(悉 達多太子)의 교리와 같았다.

> 삼교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 국가에 충성을 바친다는 것
> 공자(孔子)의 도와 다를 바 없다.
>
> 유불도 들어오기 전에도
> 우리민족은 거룩한 삶 실천
> 화랑의 풍류는 현묘한 '도'

유불도(儒佛道)의 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원시 생활을 개량한 것 같이 알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외국의 사상이나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들 자신이 이미 그런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이 거룩한 생활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공감을 얻어 한층 더 받아들이기가 용이하였다.

화랑은 상마도의(相磨道義)하였다. 서로 만나 학술을 토의 · 연마 · 강론하였다고 하니 학술을 강의하는데는 물론 언론이 있고 음성이 있었을 터이다. 음성에 대하여 더욱이 상열가악 (相悅歌樂) 이라고 하였는데 노래와 음악으로 예술을 즐기었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원유산수무원부지(遠遊山水無遠不至)라고 하여 어느 지방이고 두루 다니어 인정과 지리 등, 모든 물정을 살피어 잘 알아서, 지방의 소리 즉 실정에 맞추어 정치를 하였다. 이렇듯 보아올 때 우리는 고대사상(古代思想)에 있어서 음성이 얼마나 중요시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도에서는 베다(吠陀) 시대부터 음성을 퍽 중요시하였다. 바라문 교도(婆羅門敎徒)가 베다의 성전(聖典)을 소리 내어 읊었는데 그러면 브라흐만이 내린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신이 짚인다는 것이다. 소리 내어 읊는 동안에 브라흐만이 강림하여 우리 인생을 보살펴준다는 그런 신성(神聖)한 생각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인도철학에서는 성명(聲明)이라는, 소리를 밝힌다는 부문이 있다. 성명은 어학문법음악의 기록인 문학 등으로 이루어진 학문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 된다. 여기서는 '언어도 음악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다. 산스크리트를 읽으면 빛나는 말, 화어(華語)며 아담한 말 아어(雅語)라는 뜻의 단어가 있다. 그것은 성스러운 경전을 조금도 더럽히지 않고 신성하게 쓰기 위하여 문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운율학적으로도 잘 만들어진 글이라는 것이다. 성전의 글은 그대로 읽어도 운율이 나오게 되어 있다.

'삼보(三寶)에게 돌아갑니다' 하는 귀의불(歸依佛), 귀의법(歸依法), 귀의승(歸依僧), 하는 말을 법어 소리로 하면

붓담 상강 갓자아미 달만 상강 갓자아미
상강 사르남 갓자아미.

이렇게 된다. 법음은 이렇듯 운율학적으로 썩 유창하게 들린다.

이것으로도 인도에서는 원래부터 음성을 중요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음의 경전을 읽다가 한문이나 우리글로 된 것을 보면 운율이 없고 딱딱해서 비단을 뒤집어 놓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번역할 때 음성을 소홀히 하여 문체(文體)가 아주 산문적으로 흘렀기 때문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대일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인재불사 포교제일 불국정토 건설의 기치를 걸고
한마음 한 뜻으로 수행과 정진을
함께 하실 스님들을 모십니다.

총무원장 금강성련 합장

전화 : 053)313-3393, 053)425-3393
총본산 : (총무원)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579-3
(아름다운인연 성련사)

영혼의 소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금강성련스님의 철구



출가하여 승이 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편안하고 한가함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요.
따뜻한 옷과 잠자리 및 배불리 먹기 위함이 아니다.
그렇다고 명예와 이익을 구함도 아니요.
번뇌를 끊기 위함이요.
부처님의 지혜를 잇기 위함이요.
삼계에서 벗어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 서문 중에서
(네이버,다음에서 아름다운인연 성련사)

도서출판 아름다운인연 |
저자 금강성련스님 | 값 15,000원 | 223쪽
계좌안내 : 농협 355-00071-0624-33 (성련사)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유불 교유사를 빛낼 아름다운 우정


추사 친필 편지

연재를 마치며

초의선사를 연구하면서 초의와 관련된 추사의 자료를 하나 둘 찾을 때마다 전율을 느낀다. 이는 초의와 추사의 인연의 돈독함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추사의 친필 편지는 붓 끝에 서린 오묘한 기운 탓인지. 일필휘지로 써내려간 그의 글씨가 마침 흑룡이 솟구쳐 하늘을 달리다가 문득 종이 위에 스며든 고요처럼 침묵의 잔잔함을 방점으로 찍은 듯한 묘미가 있다. 긴 여운 뒤에 남는 범접할 수 없는 비범함은 순간 빠져드는 마력을 지닌 것이 추사체의 힘이기도 하다. 이런 감동은 활자체의 자료에서는 느낄 수 없는 큰 울림이다.

추사의 문장은 간결하고 힘이 있다. 그래서 더욱 통쾌하고, 결연하며, 해학적이고, 맛깔이 지다. 호방함 속에 배어있는 문기(文氣), 선미를 담는 듯, 걸림 없는 포용력, 이런 안목은 이미 현대인의 지식으론 이해하기 어려운 경지일 것이다. 우리는 이런 언어를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시대를 관통할 어휘의 단절, 다시 말해 소통의 도구로서의 문장 기능이 상실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고금으로 이어온 고급문화의 이상을 소통할 통로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는 우리가 이런 문장을 더욱 낯설어 하고, 진부하게 느끼며,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게 된 연유이다. 하지만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한 이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이상을 꿈꾸고, 실천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상 세계의 단계로 올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사다리이다. 바로 추사의 편지는 고상한 이상의 차원을 오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징검다리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편지란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나눈 미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 정보는 사람 간에 오고 간 솔직한 언어이기에 꾸밈이 없다. 진솔한 인간의 언어를 통해 사람을 이해하고 시대를 살펴보기에 충분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기에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그의 지성과 인간에 대한 회한과 연민, 우정을 나눈 벗에게 보내는 순박한 온기를 느끼게 한다. 신분을 초월한 초의와 추사의 만남은 조선 후기 유불의 교유사를 빛낼 아름다운 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성의 있는 교유와 속내는 바로 추사의 편지 속에 오롯이 담겨 있다. 그리고 추사는 학자다운 인품도 함께 담겨있다. 그의 천지를 가득 채울 듯한 호연한 기세와 학문의 탁마수준은 청대의 대학자였던 옹방강의 마음을 열게 한 이유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와 같은 대인을 포용하기에 너무 어지러운 세상이었다. 유배지에서 인고(忍苦)의 시간을 견디며, 불교를 탁마하고, 차를 즐기는 동안 그의 정신세계는 더욱 견고하고 충실해졌다. 추사의 예술세계가 확고한 자리를 얻음은 이런 인고를 견딘 결과이다. 한편 그의 허허로운 마음을 위로했던 것은 초의였다. 초의는 추사의 지기요, 동반자였다. 동갑으로 태어나 동년의 시기를 살았던 이들은 태어난 부모의 인연도 다르고, 처세의 길도 달랐다. 그러나 1815년 학림암에서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던 날, 이들은 숙연의 실마리를 서로 알았는지도 모른다. 이들이 나눈 인간의 아름다운 우정, 사람냄새가 나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한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정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한다.

추사의 편지를 연재하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제주도 유배 길에 일지암에서 묵었던 때의 정경이다. 이들은 산차를 앞에 놓고 밤새도록 세상 돌아가는 형세와 백성을 근심하였다. 서로의 우정을 '불망상사상애지도(不忘相思相愛之道)'라 말했던 초의는 정말 일생동안 '서로 사모하고 아끼는 도리를 잊지 않는 우정'을 나누었다. 후일 추사가 '장무상망(長毋相忘: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 라고 한 그의 인장은 초의의 이 말에서 나온 듯하다.

이 연재를 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는 초학자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글을 연재하면서 추사와 초의의 우정을 한없이 부러워했고, 동경했다. 그리고 사람과의 인연을 깊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끝으로 이 연재를 마치면서 지면을 할애해준 현대불교 관계자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아울러 두서없이 나열한 빡빡한 글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에도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35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세계 불교 법왕 & 승왕 추대 확정 발표 의식

합동 금강계단 & 법왕청 중앙정부 각료 임명식

주최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행사일시 : 불기 2558년 5월 9일

장 소 : 중국 구화산 지장도량 & 관음도량 보타낙가산

불기2558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하여 세상에 알리고
불기2559년 초파일을 전후하여 법왕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승가의 탐,진,치,가 넘쳐나고 오만과 무지와 분수를 모르는
불쌍한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오호라!! 이제 고통받는 사바세계를 환하게 밝히는 광명의 해가 솟아 올랐도다.

드디어 세계인의 존경의 대상인 불교 최고의 어른 한분을 법왕으로 모시고 상좌부권과 대승권 각각 승왕 두분을 모시게 되었으며 각 나라 불교대표이신 승가회 회장 큰스님들을 대승정에 모시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고승 및 원로스님, 각종단의 종정 및 총무원장을 모시고 각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갈래로 찢어져 있는 **일부종단의 법납조차 무시한 진흑탕속의 품수체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승가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자 **합동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대종사, 종사, 대덕, 중덕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품수를 수여하는 의식까지 병행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모 종단의 3급고시니 4급이니 하는 철저한 단계라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화하고 거른다는 측면에서 **합동 금강계단**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각 종단차원의 모든 종도들을 동참시키시어 합동 금강계단을 밝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큰스님께서 이 야단법석에 오시어 지구촌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시옵길 두손 모아 합장하며 청하옵니다.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세계 불교 법왕 및 승왕 추대 1080인 위원회

종단 종정 고승단, 종단 대종사 자문단

추진위위원회 위원장 대승정 목탁

※ 대법원에 등기된 허가번호 2013-82. 고유번호 101-82-23205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 목탁스님)이란 명칭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단 하나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매인 세계불교법왕청.com입니다. 이외 사용하는 곳은 허가조차 받지 못한 명의도용 임의단체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로 고유번호를 받았다 해도 세무관계 에서만의 명칭사용은 가능하나 대외활동에서의 명칭사용은 위법입니다.

"내 춤의 근원은 불교" … 40여년 구도 역정

김복희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前한양대 교수)

"무용이라는 예술도 불교의 수행과 같아요. 개인으로서는 몸을 하나의 악기 즉 도구로 삼아 꾸준히 연습을 해야 하죠.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매일 매일 연습을 해야 해요. 또 혼자 서는 무대가 아니다 보니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무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예술 분야보다 인간적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 연습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이 무용가의 삶이에요.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이타의 삶이 무용의 세계에도 그대로 녹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에게는 정년 따로 없어

김복희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은 무용가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신실한 불자인 그에게 무용은 하나의 수행과도 같은 구도의 과정인 것이다.

한양대 교수로 40여년 재직한 그는 지난 2월 특별한 공연을 펼쳤다. 2월 22일~23일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정년퇴임 기념공연을 가진 것이다. 40여년 현대무용의 기틀을 다져온 그이기에 정년퇴임을 기념한 이 공연에 세상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기념 공연에는 두 개의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1999년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의 곱추〉를 한국의 남사당패 이야기와 접목해 안무한 '천형, 그 생명의 수레' 와 이청준 작가의 소설 〈눈길〉에서 영감을 얻어 안무한 신작 '삶꽃 바람꽃 Ⅴ, 눈길' 도 선보였다. 특히, '천형, 그 생명의 수레' 는 '올드 드림팀' (김복희 손관중 김남식 등)과 '뉴드림팀' (김성용 박종현 박은영 등)으로 각각 나뉘어 공연돼 눈길을 끌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어요. 자리가 없어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만큼 관심을 받았죠. 지난 1999년에 초연했던 공연을 다시 올리고자 하니 그때 무대에 섰던 제자들이 다시 공연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어요. 당시 멤버들로 구성된 팀이 올드 드림팀이에요. 벌써 15년 전이니 다들 예전 몸이 아니잖아요. 무대를 위해 열심히 몸을 만들어서 성공적인 공연을 펼쳤죠. 두 팀 모두 좋은 공연을 펼쳤지만 대체로 올드 드림팀 공연이 더 좋았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힘이 생겨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공연은 주요 언론에 소개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예술에는 정년이 따로 없다' 는 말은 큰 감명을 주었다.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는데 후배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이 정년퇴임이죠. 사실 예술가들한테는 정년이라는 것이 없어요. 대학이라는 제도에서 정년이 있지만 제도권 밖에서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물론 나이 들었다는 허무감도 있지만 주변을 돌아보니 제자들이 훌쩍 커 있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 허무감보다는 행복감이 더 커요."

나의 어머니는 관세음보살

불자 무용가의 넉넉한 마음이 느껴지는 정년 퇴임 소감이 아닐 수 없다. 어린시절 어머니 서원만행 보살은 방학이면 어린 그를 데리고 대구 동화사 말사인 염불암, 양진암 등으로 향했다. 산길이 험해 차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시절, 지게꾼을 불러 쌀, 초, 향 등의 보시물을 지게에 실고 산길을 올라야 할만큼 절에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방학 때면 어머니 따라 절에 가서 보냈죠. 어머니께서 1주일 기도를 하시고 집안 일 때문에 내려가시면 저는 남은 방학을 절에서 보냈어요. 한번은, 간식으로 먹으려고 가져간 깡통에 든 연유가 머리카락에 쏟아져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절집에 목욕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때라 따뜻한 물을 조금 구해서 머리 감느라 애를 먹었죠. 어린시절의 방학은 그렇게 절에서 목탁 소리 듣고 향내 맡으며 절 주변의 자연을 보면서 보냈습니다."

어머니 서원만행 보살은 새벽 4시면 일어나 관음기도를 하는 신실한 불자였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모습의 어머니가 기억속에 선연하게 남아있다. "매일 아침 눈뜨면 듣는 소리가 어머니의 염불소리였어요. 늘 저를 깨어있게 하는 힘이 바로 어머니의 염불소리였죠.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저에게 큰 자산을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이자 관세음보살님이시죠."

이런 신실한 어머니 덕분에 어린시절부터 큰스님을 많이 친견할 수 있었다고. "제 나이에 저만큼 큰스님을 많이 친견한 사람은 드물 겁니다. 구산 스님, 효봉 스님, 성철 스님, 법정 스님 등을 두루 친견했죠. 특히 효봉 스님과는 인연이 깊었어요. 동화사 금당선원에 계실 때 인연이 되어 꾸준히 찾아뵙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죠. 대학 1학년 여름방학 때 밀양 표충사에 계시는 효봉 스님을 마지막으로 찾아뵈었는데 두세달 후에 입적을 하셨죠. 성철 스님을 만나 뵙고는 하루 3천 배 기도를 1주일간 한 적도 있었죠."

이런 가풍은 현재 딸과 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제가 108배를 하면 손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염주를 질질 끌고 와 옆에서 절을 따라했어요. 지금도 향 피우는 건 꼭 자기 손으로 해야 할 만큼 초등학생 손녀는 불교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일 때문에 꼬박꼬박 날짜를 챙겨 절에 가지는 않지만 우리만큼 강성(?) 불자는 없을 거라고 딸들과 웃으며 얘기해요. 그만큼 몸속에 불교문화가 강하게 배여 있었어요. 불교는 스스로 지혜의 힘을 길러 위기가 와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진리의 종교죠. 그래서 우리는 불법의 힘을 늘 믿습니다."

1971년 선방 스님의 삶을
춤으로 표현한 '법열의 시' 로
첫 창작 작품 무대에 올려
이후 불교와 전통을 가미한
70여 창작 작품 무대 올리며
한국 현대무용의 기틀 마련

신실한 불자인 어머니 따라
효봉 스님 등 큰스님 친견
불교 가르침 삶의 지침 삼아
"예술가에게 정년 따로 없어요
10년 뒤에도 무대 서는 게 꿈"

불교는 우리 문화의 뿌리

대구에서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 취미로 무용을 시작했던 그는 초등학교 때는 동네 무용교습소를 다녔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정식으로 춤을 배워 이화여대를 졸업하자마자 스물셋의 나이에 스승 육완순의 만류를 뿌리치고 개인무용단을 만들었다. 1971년 제1회 현대무용발표회에서 무대에 올린 창단 작품이 바로 스님들의 참선 과정을 춤으로 표현한 '법열의 시(詩)' 다. 어린시절부터 보아왔던 스님들의 수행 모습을 창작으로 표현한 것이다.

"스님들의 선방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냈는데 돌이켜 보니 20대에 그렇게 심오한 주제를 춤으로 풀어냈다는 것이 그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동양적 정서와 불교적 정서를 반영한 작품을 만드는 데에 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작품이 십우도를 모티브로 한 '아홉 개의 의문, 그리고' 와 〈화엄경〉의 선재동자 이야기를 무용으로 풀어낸 '흙으로 빚은 사리의 나들이' 다. "흙으로 빚은 사리의 나들이는 인간이 겪는 세상을 무용으로 풀어냈죠. 큰 틀에서 보면 불교를 의미하지만 일반인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불교적 정서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무용에 담아내면서 현대무용의 새로운 세계를 펼쳐낸 그의 작품들은 한국 현대무용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1986년 한국현대춤협회를


지난 2월 22일~23일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정년퇴임 기념공연을 한 김복희 이사장의 공연 장면.



김복희 이사장은 … 1948년생으로 대구여고 졸업, 이화여대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원광대 대학원 철학 석사와 경기대 대학원에서 이학박사를 받았다. 한양대 교수와 동대학원 예술학부 학부장을 역임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불교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현대무용 70여 편을 창작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려왔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만들었고 이듬해 '춤작가 12인전'을 창설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무용인 최초로 체육대학장을 지낸 그는 현대무용 활성화를 위해 남성 무용수도 발굴해냈다. 제자 손관중 한양대 교수(55)가 대표적이다. 또한 2010년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를 만들고 대한민국무용대상을 제정하기도 했다.

불교콘텐츠 대중화… 재능기부 발원

김 이사장은 지금까지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극적 요소가 풍무하면서도 수준 높은 안무를 보여주는 현대무용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다. 90년대에는 이광수의 소설 〈꿈〉을 원전으로 삶의 허무와 불교적 윤회를 춤으로 이미지화한 작품인 '꿈 탐욕이 그리는 그림(1995)', 스페인의 저항시인 페데리코 카르시아 로르카가 지은 동명의 비극에 한국적 전통 혼례와 장례를 결합한 '피의 결혼(1997)'을 무대에 올렸다. 또 2000년대에는 화가 이중섭의 삶과 철학을 녹여낸 '달과 까마귀(2002)', 인간의 역사는 흙 위에서 반복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흙의 울음(2009)'으로 대중들을 만나왔다.

이렇게 40여년 넘게 한국 현대무용의 기틀을 다지며 70여 작품을 만들어온 김복희 이사장이 끊임없이 무대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수행과도 같은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다.

"매일 걷기와 스트레칭으로 몸을 다져요.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은 꼭 무용 연습을 하죠. 공연이 있을 때는 주말까지 연습을 하니 주 3회에서 5회는 연습을 한다고 봐야죠. 자기관리가 철저해야 무대에 오래 설 수 있어요. 어찌보면 어려운 길이죠. 그래서 이 길을 왔다가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여럿 봤어요. 결국 수행과 같이 꾸준히 노력하면서 자기 중심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루어낼 수 없는 게 무용의 길이기도 해요. 항상 무대에 오르는 것이 떨리는 일이지만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하면 부담감이 줄어들죠. 그래서 늘 철저한 연습만이 답입니다."

독서 또한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의 작품 상당수가 문학이나 불경을 모티브로 하는 것만 봐도 그가 독서를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 알 수 있다.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읽고 있어요. 제자들과 얘기하다보면 신간을 제가 더 많이 읽은 경우도 있죠. 이번에 제가 새롭게 선보인 '눈길' 역시 이청준의 소설을 읽고 받은 감동을 작품으로 만들어 냈죠."

또 새로운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통무술과 태권도의 동작을 배워 현대무용에 접목하기도 했다고. "서양의 동작만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현대무용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무술, 태권도를 따로 배우면서 다른 느낌을 만들어 냈죠. 결국 한국 무용이나 현대 무용이나 몸의 원리는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통 무술이 단전을 중요시 여기는데 사실 현대무용도 아랫배의 힘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둘 모두 움직임의 기본 공통점은 같은 것이라 생각해요."

김 이사장은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항상 삶의 지침으로 삼는다. "결국 내가 있어야 모든 것이 있잖아요. 나로 인해 모든 것이 생기니까요. 내가 건강해야 하고 내가 끊임없이 공부해야 좋은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항상 자신을 훈련하라고 조언해줘요. 자신이 바로 서서 최선을 다하면 나도 이롭고 세상도 이롭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그의 행보는 여전히 바쁘다. 5월 서울 강동아트센터에서 그가 창작한 '삶꽃 바람꽃 Ⅴ, 눈길'로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르는가 하면, 6월 남원 공연에 이어, 8월에는 아르헨티나에서도 공연을 갖는다. 정년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10년 후에도 무대에 서고 싶다며 수줍은 웃음을 보인다.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우선은 좋은 작품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고 싶어요. 불교 콘텐츠를 대중화한 작품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예술가에게는 정년이 따로 없으니까요. 또 재능기부를 통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도 찾아보고 싶구요. 자신할 수 없지만 10년 후에도 건강만 허락한다면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김목희 이사장이 기획한 '천형, 그 생명의 수레' 공연 장면.



공연을 끝내고 제자들과 함께 한 기념촬영.

전법일기

믿어라. 시주해라.

간부를 양성하는 부대(학교기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부대에 처음 온 후보생들에게 종교 소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종교의 군종장교들이 각자의 종교를 소개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독교를 소개하고 신부님이 천주교를 소개했는데 서로 자기 종교의 특징과 믿을 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입대하기 전에 교회나 성당을 다녀본 이들을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손을 든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신부님과 목사님은 군대에서도 바깥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를 소개하는 차례가 오자 저는 거두절미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나 천주교는 입대 전 정기적으로 종교활동을 해 온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개를 하면 있는 불자들도 무언가 자기들은 응집력이 떨어진다고 느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어 온 종교에서 듣고 배운 가르침을 두 단어로 요약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종교 소개 시간에 뜬금없는 질문을 받은 후보생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 자신이 지금까지 종교생활을 하며 배운 것이 '믿어라, 돈내라' 아니던가요?"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강당을 꽉 채운 400여 명은 숨소리하나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조용해졌지요. 저는 후보생들이 스스로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타인의 권유가 아닌 자신의 원력에 의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 소개 시간 이후 몇 일 후 법회 시간에 몇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 한 후보생은 자신은 10년 넘게 다른 종교의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한 번도 그 종교의 가르침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을 듣고 의심이 들고 머리가 아팠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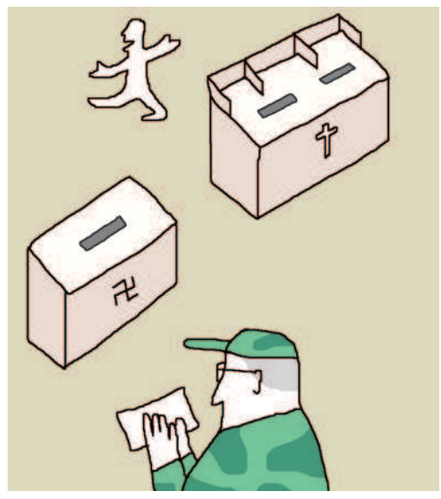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믿어라, 돈내라'가 아니라고 수없이 되뇌여 보아도, 아니라고 거부하고 싶었는데도 달리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법당에 나와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기특하면서도 부담이 됐습니다. 과연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적인 믿음과 돈을 내라는 것에 불과하지 않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10여 주가 지났을까. 그 후보생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법사님, 저 기억하십니까?' 용케도 그 친구는 10주 넘게 매주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10년 넘게 다른 종교의 신앙생활을 해오던 청년이 제가 던진 한마디에 10주 연속 법회에 참석이라니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법사님, 법사님 법문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간 뒷머리에서는 보이지 않게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 두 단어가…'

"법사님 말씀은 결국 두 단어입니다. '믿어라, 시주해라' 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법사의 이야기와 기존 신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구요. 그러자 그 친구는 "법사님께서는 '굳이 절이 아니어도 좋으니 어디든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찾아가 항상 베풀고 살라' 고 하더군요.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위는 종교를 넘어서는 것이라구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절에 다닐 예정입니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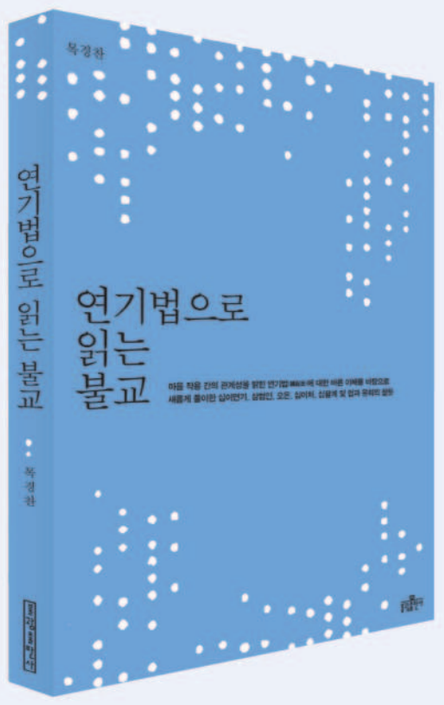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했던 말 한마디에 새 불자가 탄생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후 그 청년은 학교 과정을 거쳐 자대에 배치 받았습니다. 너무나 오래되어 그 청년의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어디선가 아름답게 청년불자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지 않을까요?

정행 이익수 군승 법사(육군학생군사학교 학림사 주지)

2,600년 전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緣起法,
불교의 핵심인 연기법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는가?



미혹과 업으로 인해, 서로 관계하여 일어나는
분별하는 마음을 끊으라!

연기법으로 읽는 불교

목경찬 지음
216쪽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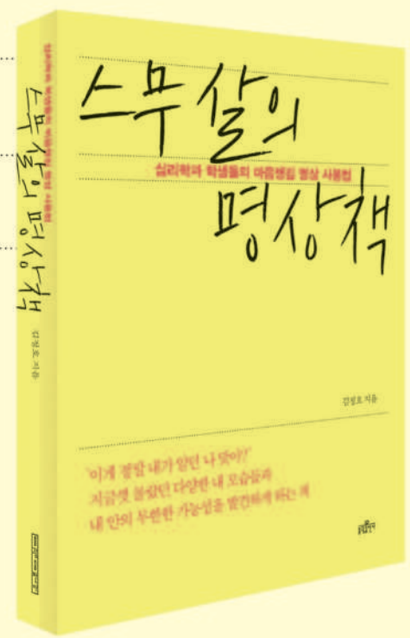
- 통찰력 넘치는 새로운 시각과 평이한 언어로 풀어낸 연기법의 참뜻
- 마음 작용 간의 관계성으로 새롭게 풀이한 불교의 기본 교리체계
- 연기법에 의거한 십이연기, 삼법인,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바른 이해

스무 살 심리학과 학생들, 명상에 빠지다

8주 동안 먹고, 공부하고, 명상하며
인생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이 확 뒤바뀐
심리학과 학생들의 리얼 명상 체험기

명상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며,
명상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마음챙김 명상 사용설명서

김정호 지음
352쪽
15,000원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불광출판사

英 블랙플 번리 지역 첫 불교센터 들어선다

켈상 완척 스님, "케즈라 불교센터 개원할 터"

영국 잉글랜드 랭커셔카운티(Lancashire county)에 블랙플(Blackpool) 지역에 영국인 스님이 지역 불자들과 함께 티베트 불교계 사원을 준비하고 있다.

〈Pendle Today〉 지는 3월 24일(현지시간) "블랙플의 번리(Burnley) 지역에 첫 번째 불교사원인 케즈라 불교센터(Keajra Buddhist Center)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순수 영국인으로서 티베트 불교의 계를 받은 켈상 완척(Kelsang Wanchuk) 스님이 지역 불자들과 함께 불교센터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도하고, "순수 영국인들이 주축이 되어 블랙플 사상 첫 불교센터 개원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의미를 더했다.

"케즈라 불교센터는 번리 지역의 빈 창고를 개축해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한 켈상 스님은 "새롭게 들어설 불교센터는 지역 불자들의 불교 공부와 명상 수행은 물론 정기적인 예배를 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맨체스터에서 북쪽으로 40㎞, 리즈에서 서쪽으로 48㎞ 떨어져 번강과 칼더강이 만나는 곳에 있는 번리는 800년경부터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1294년에 시장 도시로 승인된 뒤 18세기 후반에 면직물 제조가 발달하면서 크게 성장한 곳이다.

이후 리즈-리버풀 운하가 개통되고 탄전이 개발되면서 더욱 발전했으나, 면직물과 석탄산업이 점차 쇠퇴하면서 경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바뀌었고, 당시 사용했던 대규모 창고들은 현재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으로 개축되어 사용되고 있다. 〈Pendle Today〉 지에 따르면 이들 창고 중에서 아직까지 종교 시설로 사용된 예는 없다.



켈상 완척(Kelsang Wanchuk · 사진) 스님이 블랙플 번리 지역의 불자들과 예불을 올리고 있다. 순수 영국인으로서 티베트 불교의 계를 받은 스님은 현재 번리 지역의 영국인 불자들과 함께 이 지역 첫 불교센터 개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Pendle Today〉 지, "랭커셔카운티 운영위 승인 낙관"

순수 영국인 불자들이 불교센터 개원하는 점에 주목

"과거의 창고가 지금에서 '영적 피난처'가 되는 것은 놀라운 변화일 것"이라는 켈상 스님은 "랭커셔카운티 위원회에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종교 생활과는 다소 떨어진 이곳의 정서에 케즈라 불교센터가 새로운 신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는 다소 서원이 담긴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켈상 스님은 "불자는 물론 지역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 조화와 평화를 개발하고 영감과 격려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불교센터를 다져나갈 것"이라며 "우선 기도와 명상 관련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불교센터에는 티베트 전통 공예품 가게와 불서 전문 서점을 개설하는 한편 무알콜 음료와 따뜻한 음식과 차를 판매하는 카페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켈상 스님을 도와 케즈라 불교센터 개원에 산파 역할을 도맡고 있는 넬 그레이엄(Nell Grahame) 씨는 "지역 불자들은 안정된 곳에서 기도와 명상을 할 수 있다는 데 크게 고무되어 있다"며 "현재 40여 명이 매주 3회 켈상 스님에게 명상을 지도받고 있으며, 불교센터가 개원되면 더 많은 지역인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또한 "블랙플 번리 지역은 랭커셔카운티 동부 지역에서 가장 신심이 미약한 곳."이라고 지적한 넬 그레이엄 씨는 "케즈라 불교센터가 이 지역의 신심을 다잡고, 청소년들까지 부처님 품으로 귀의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켈상 스님의 제안서는 현재 랭커셔카운티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전한 〈Pendle Today〉 지는 "케즈라 불교센터 개원을 위해 이미 120만 파운드(약 21억 원 상당)의 제원이 조성된 만큼 운영위원회에서도 켈상 스님의 제안서를 승인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케즈라 불교센터는 랭커셔카운티 가운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블랙플 번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정신장애 길 잃은 소년을 가족 품으로

롭상 스님, 웨일즈 미담의 주인공으로 회자돼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가 실종되어 슬픔에 쌓인 부모에게 실종된 자녀를 무사히 돌려보낸 티베트 스님의 미담이 웨일즈(Walse) 시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Walse Online〉 지는 "웨일즈 켄톤(Canton) 지역에 살고 있는 롭상(Lobsang) 스님이 카디프(Cardiff) 시장 근처에서 정신지체 장애자인 독일 청소년 티로 야예(Tilo Yaye · 17)를 발견, 한 달여 만에 독일에 살고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롭상 스님은 두 달 전 카디프 시장 외곽 길거리에서 잠자고 있던 야예를 우연히 발견하고 캔톤에 있는 사원으로 데려갔다. 정신지체 장애자인 야예는 카디프에 도착할 당시 여권, 돈, 옷 등이 들어 있는 여행 가방을 분실했다. 이후 야예는 카디프 시장의 쓰레기통을 뒤지며 허기를 채우고 길거리에서 잠자기를 반복했다.

롭상 스님은 "카디프 시장 길거리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채 잠들어 있는 야예를 본 순간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수행자라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망설이지 않아야 하고, 야예에게 닥친 불행을 함께 해쳐가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당시 스님은 주저하지 않고 야예에게 "사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독일인 청소년으로 친구들과 영국을 방문했다가 길을 잃고 여권, 돈, 옷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분실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스님은 독일 대사관의 도움으로 야예의 가족을 찾았고, 그들에게 야예가 건강하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티로 야예(Tilo Yaye · 17) 군과 롭상(Lobsang) 스님.

"롭상 스님은 우리 가족의 웃음을 되찾아 준 분"이라는 야예의 부친 티로 씨는 "스님은 한 달 간 야예의 숙식을 해결해 준 것은 물론 고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푯값까지도 흔쾌히 지불해 주었다"고 말했다.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야예 스스로 친구들과 영국 여행을 계획해 흔쾌히 여행을 허락했다"는 야예의 모친 크리스틴 슐러(Christine Schueler) 씨는 "그 과정에서 아들이 실종되어 몹시 괴로웠는데, 정신적 문제가 있는 아이를 품에 안아 돌봐주고 다시 우리 품으로 돌려보내준 스님께 정말 감사한다"고 말했다.

〈Walse Online〉 지에 따르면 롭상 스님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꾸준히 돌보아 왔고, 자신의 사원을 그들의 피난처로 제공해 왔다.

"2006년 중국에서 망명한 나 역시 주변의 따뜻한 도움을 받고서야 이곳 웨일즈에서 수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롭상 스님은 〈Walse Online〉과의 인터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저런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우리 수행자와 불자들은 이유를 묻지 않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미셸 오바마, 티베트 식당 방문 中네티즌 비난

3월 26일 방문…거리에서 티베트인과 교육 · 문화 이야기 나눠

미셸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부인이 중국 방문 당시 티베트 식당을 방문해 중국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미셸 여사는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지난 3월 26일(현지시간) 스촨성 청두의 한 티베트 식당을 찾았다. 청두는 그동안 중국의 티베트 강점에 반대하는 티베트 승려들이 잇따라 분신자살을 한 곳이기도 하다. 미셸 여사는 음식점 방문뿐 아니라 거리에서도 티베트인들과 만나 교육 신장과 문화 유대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티베트 식당 방문은 미셸 여사의 희망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일각에서는 미셸 여사가 간접적으로 티베트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미셸 여사는 티베트 식당 방문 후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과거 티베트는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티베트 불교와 망명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용서와 관용에 대한 가르침은 이제 전 세계에 알려졌다"며 달라이 라마를 언급했다.

이 같은 행보는 중국 네티즌들을 자극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미셸의 티베트 식당 방문이 미국이 암묵적으로 티베트를 지지하는 정치적 신호라고 비판했다.

티베트 네티즌들의 반응도 좋지 않다. 미셸 여사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티베트 문화가 소멸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셸이 방문한 식당이 진짜 티베트 식당이 아닌 티베트자치구 정부 청두 사무처가 운영하는 관영식당이며 당시 현장에 있던 티베트인들도 진짜 티베트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미셸 오바마가 윤장대를 돌리고 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의 강한 반대에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백악관에 초청해 면담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 명산 우타이 산의 선 테마 호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중국의 불교 명산 우타이(Wutai, 오대) 산에 6월 중 선(禪) 테마 호텔이 오픈한다. 〈People's Daily(인민보)〉 지는 3월 24일 "산사에서 생활하는 불자들의 황토색 법복을 유니폼으로 입은 직원들이 로비에서 투숙객을 맞을 '우타이 선 호텔(Wutai Zen Hotel)'에서는 투숙객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나 향을 피우며 예불을 올리고 채식을 하는 것은 물론 스님의 법문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People's Daily〉 지에 따르면 오는 6월 중 오픈할 '우타이 선 호텔'은 500여 명이 동시에 투숙할 수 있는 대규모 호텔로 객실, 레스토랑, 산책로 등 모든 시설이 선을 주제로 설계되었다.

오종욱 편집위원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대진스님(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3년 10월16일 수요일 - KBS1 TV 05시50분 내고향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효능 방영

한방문헌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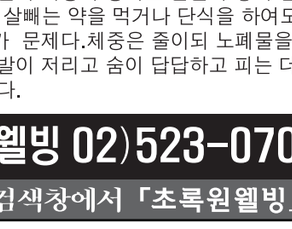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바림등 8cm 3200원 (60개 이상)

등지름 24cm 〈진분홍, 보라, 주황, 빨강, 연분홍, 백색〉

바림등·공단등 : 6cm / 8cm / 10.5cm / 13cm / 20cm / 30cm

비닐만월등 / 비닐팔각만월등 / 영가만월등 / 장만월등
청사초롱등 / 오색청사초롱 / 비단접등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 밀대 대 (70개입) @90,000원 (2BOX이상)
- 돈타레 (40개입) @90,000원 (2BOX이상)
- 원기둥 (20개입) @90,000원 (2BOX이상)



KS정품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연등전선 전문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와 계약 체결로 KS정품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Ø

- 방수전선-22cm, 23cm, 25cm, 30cm
  65,000원 (5줄이상) / 80,000원
- 방수전선-50cm
  75,000원 (5줄이상) / 90,000원
- 방수전선-1m, 2m
  90,000원 (5줄이상) / 100,000원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515-8888-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3×6사군자 (7.4ϕ×14.5cm) 3×6식물성사군자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ϕ×29cm)


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ϕ×29cm)




한봉밀납양초 – 4호 / 3호 / 2호 / 1호 / 밀대전사자 / 돈타레전사자 / 원기둥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 / 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 / 약쑥1호예술연꽃양초 / 야광 연꽃초

100% 핸드메이드 자수방석

사이즈 및 소재 맞춤으로 작업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상품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수공예 전화상담 : H/P 010-3766-0242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聖鐘社 SUNG JONG SA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불광산사 범종 (중량 6700관)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혼을 담아야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주 부리면 끝이야!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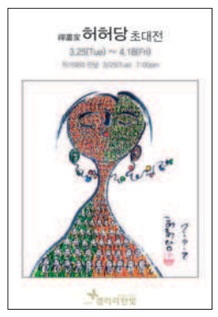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聖鐘社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광식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문화 단신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허허당 스님 초대전 4월 18일까지



"불이 나면 꺼질 일만 남고 상처가 나면 아물 일만 남는다.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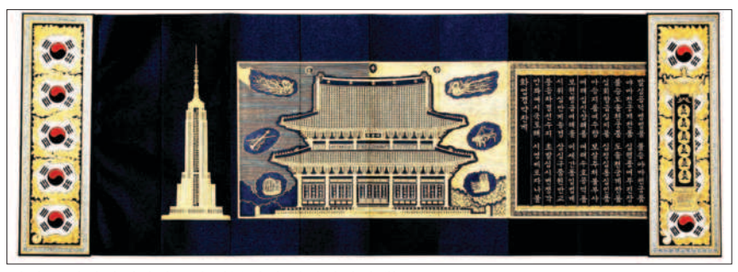
선화가 '허허당(虛虛堂) 스님' 의 초대전이 울산 갤러리한빛에서 4월 18일까지 열린다. 허허당 스님은 비학산 자락 산골마을 단칸방 '휴유암' 에서 그림 그리며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 스님은 '환희충만' '고요한 기쁨' '禪舞 깨달음의 춤' 등 선화 25여점을 전시한다. 스님의 작품과 함께 전하는 글은 전시의 또다른 재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요한 기쁨에서는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다 해도 그대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하며, 깨달음의 춤에서는 "새가 날개를 펴면 허공이 새의 놀이터이듯 사람은 마음을 펴면 천하가 놀이터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굴곡진 산과 나무 하나 하나에 동자승들이 가득 그려져 있는 100만 동자상 병풍도 눈길을 끈다.

한편, 허허당 스님은 1974년 해인사로 출가해 1978년부터 붓을 잡고 1983년 지리산 벽송사 방장 선원에서 본격적인 선화 작업에 들어갔다. 국내 전시회 뿐 아니라 2000년 6월 스위스 취리히, 2010년 하와이에서 전시회를 가진바 있다. 허허당 스님은 작은 동자승들을 점점이 그려 넣어 화면을 채우는 독특한 작품세계를 펼쳐왔다. (052)903-0100 정혜숙 기자



김경호 작가의 '감지금니 일불일자 화엄경약찬게'

뉴욕에서 선보이는 한국의 전통사경

김경호 사경전 4월 3일부터

전통 사경이 미국 뉴욕을 찾는다. 코리아 아트 포럼이 기획하고 뉴욕한국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는 외길 김경호 작가의 전통사경전이 4월 3일~5월 3일 미국 뉴욕 갤러리호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감지금니 일불일자 법화경약찬게' 등 다양한 사경 작품을 통해 한국 사경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4월 1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작가의 전통사경 제작 시연이 있으며,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리셉션이 진행된다. 212 502-1894

정혜숙 기자

제20회 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

목아박물관 주최, 4월 21일까지

목아박물관은 '제 20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 에 참가할 어린이들을 모집한다. 전국의 만 5세 이상 유치원생 혹은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부분은 △부처님을 주제로 한 크레파스 △수채화 △판화 기타 자유부문 등이다. 접수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접수할 수 있으며, 개인은 일반 8절지 도화지 뒷면에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단체일 경우에는 참가신청서를 이메일(mokachan@hanmail.net) 또는 팩스(031-885-9951)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4월 21일까지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당선작 발표는 4월 23일 수요일 목아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031)885-9952 정혜숙 기자

禪의 세계에 담아낸 '법화경 7만자'

유명 서예 작가 10명 사경 작품… 4월 5일~12일 동화사서

〈법화경〉은 한국 불자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경전으로 많이 신자들이 사경을 하며 불심을 키우고 있다. 7만 자의 법화경 한자를 한 자 한 자 새기다 보면 어느새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고 한다.

사경을 통해 불심을 보여주는 전시가 눈길을 끈다. 국내 유명 서예가 10인이 펼치는 '서예 〈법화경〉대축전' 이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다. 동화사와 한국미술관이 주최하는 이 전시는 4월 5일~12일 동화사 선문학관에서 열린다.

전시 작가로는 △구당 여원구 △신열묵 △산민 이용 △혜화 이순자 △용헌 이윤용 △이미화 △초암 김시운 △박여 김진희 △백연 박문환 △지헌 박외수 등이 참여한다.

행사를 기획한 동화사 도감 법희 스님은 "법화경 약왕보살 본사품에는 법화경의 경을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그 공덕은 굉장히 크다고 설하고 있다. 동화사 법화산림 기간 동안 불자들이 대가들의 작품들을 한번에 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큰 공덕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동화사 전각 중 하나인 연경전은 조선시대 법화산림이 크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를 기념해 동화사는 3년전부터 법화산림 법회를 통해 법화경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전하고 있다.

법화경 한문은 7만여 자. 이를 사경한다는 것은 깨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박여 김진희 작가는 묘법연화경 7권을 석판에 새긴 법화석경으로 눈길을 끈다. 흑주석 계열의 벼루돌에 새긴 이 작품은 석판 한 장의 크기가 30cm×30cm×4cm(가로×세로×두께)로 글자수는 가로 13줄 세로 17자로 221자가 들어갔으며 이를 총 365판에 완성해냈다. 작업기간만도 5년이 걸렸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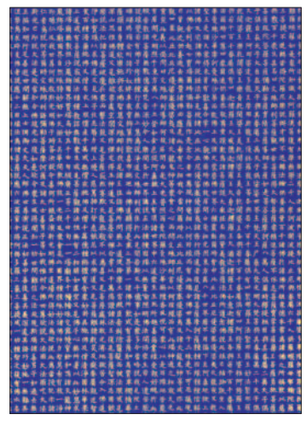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작업을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작업을 하고 있냐고. 하지만 한 자 한 자 새길 때마다 공덕을 쌓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에 몰입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객관화 되는 느낌을 받으며 온전히 무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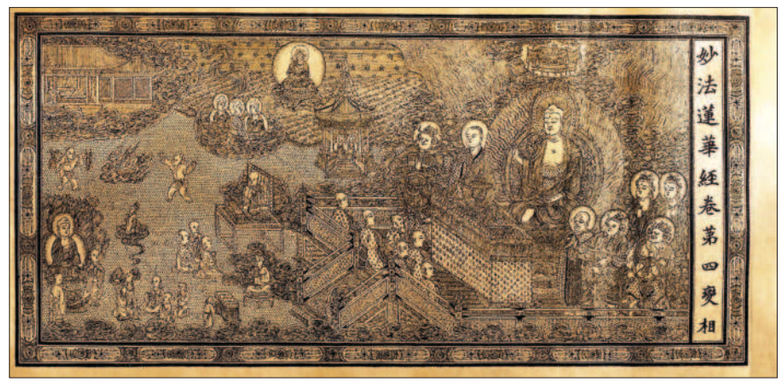
김진희 흑주석에 작품 새겨
이윤용 옻칠 한지에 변상 그림
박외수 목판에 쓴 해서체

해서체 한문 7만자 (두루마리)와 옻칠한 한지에 경면주사 글씨를 전시하는 이윤용 작가는 "늘 참선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경을 하고 있다. 사경에 빠지면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작업에 매진하게 된다. 예전에는 금니사경을 많이 했는데, 사경을 오래 할수록 먹이 좋아 옻칠한 한자에 묵서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박외수 작가는 법화 목경 해서체 7만자를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박 작가는 "수많은 글자를 한 폭에 써 넣으려니 중도에 글자가 빠지거나 틀린 글자가 나오면 수십일 동안 쓴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 사경의 길이 매우 어렵기도 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작업을 하는 동안 예술과 종교가 다르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한다.







동화사와 한국미술관이 주최하는 '서예 〈법화경〉대축전' 이 4월 5일~12일 동화사 통일약사대불전에서 열린다. 시계방향으로 김진희 작가의 법화 석경, 박외수 작가의 해서체, 이윤용 작가의 '묘법연화경 권제삼 변상도'

4월 6일 전시 개막식에서는 작가들 작품 점안 법회와 범주 스님의 퍼포먼스, 효산 스님의 작품 선물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시 후에도 작가들의 개인전시가 동화사 불교문화관 선갤러리에서 릴레이로 펼쳐질 예정이다. 010-5275-433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통도사성보박물관 선석사 괘불탱 전시

4월 6일~9월 30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제30회 괘불탱화 특별전 작품으로 '경북 성주 선석사 괘불탱화' 를 4월 6일~9월 30일 전시한다. 영산회상을 표현한 이 그림은 부처님과 가섭의 '염화미소' 를 표현해 눈길을 끈다.

화면의 중앙에는 석가여래가 서 있고 각기 연꽃을 든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양 옆에 위치했다. 그 뒤로 가섭과 아난존자를 포함해 4명의 제자가 석가여래를 향해 구름을 배경으로 서 있다. 석가여래는 왼손을 가슴께로 들어 엄지와 중지를 결하고 있으며, 오른손은 어깨 위로 들어 역시 엄지와 검지로 연꽃가지를 잡아 연꽃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석가여래의 도상은 염화시중, 즉 석가여래가 영축산에서 설법하실 때 그의 제자 가섭만이 석가여래가 말없이 꽃을 들어 올린 뜻을 알고 미소로 답했다는 내용을 그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도상은 '법화경변상도' 와 같은 불교판화와 전각 내 봉안되는 후불화에서도 나타나지만 그 예가 많지 않다. 물론 괘불탱화 중에 보관을 쓴 장엄신의 보살형 여래가 꽃을 들고 있는 도상으로 표현된 경우도 있지만, 여래의 모습으로 꽃을 들고 나타나는 도상의 괘불은 '선석사 괘불탱화' 가 가장 이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 그림은 1702년에 조성되었으며, 세로 709.0cm, 가로 457.0cm의 크기로 선석사 대웅전 내 불단 뒤 괘불함에 보관되어 왔다. 괘불함은 괘불함의 묵서를 통해 괘불이 제작된 4년 후인 1706년에 기영 스님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면 위 부분과 아래 부분은 보상화당초문으로 이루어진 그림 장황으로 표현하였고 화기는 그림 장황의 바로 위에 굵은 주선으로 구획한 흰 바탕에 묵서로 기재되었다. 화기 란의 위에 역시 주선으로 별도의 칸을 구획하여 중앙부터 '주상전하수만세 왕비전하수재년 세자저하수천추' 라 썼다.

화기에 의하면 강희41년 즉, 1702년의 4월에 '영산회도' 를 봉안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 이 그림이 영산회상의 장면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증명에는 밀영 스님이, 지향 비구로 사언 스님이 참여하고 있으며, 탁휘를 수화승으로 하여 법해, 설잠, 성징 스님 등이 제작에 참여했다.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선석사는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의 말사이다. 선석사는 신라 효소왕 1년인 692년에 의상이 창건하여 신광사라고 하였으며,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에 나옹 혜근이 주지로 부임한 후 동쪽으로 터를 옮겼는데, 새 터를 닦다가 큰 바위가 나왔다고 하여 '터 닦을 선(禪)' 자를 넣어 '선석사(禪石寺)' 라 했다. 이후 임란 때 사찰이 전소하였으나 1684년 중창하였고, 영조 1년인 1725년에 옛 터로 옮겼다가 순조 4년인 1804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정혜숙 기자



경북 성주 선석사 괘불탱화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특별 할인가로 모십니다

* 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 바고) 5일 699,000부터
(양곤 바간 헤호) 5일 1,290,000부터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5일 1,190,000부터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0,000부터
* 중국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1,090,000부터
* 중국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 1,290,000부터
* 민족의 영산 백두산 4일 899,000부터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불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 양곤 바간 헤호 5일.....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짜익티오 7일.....요금문의

【중국 정통 4대 불산 성지순례】
• 지장도량 (구화산) 5일.....요금문의
• 관음도량(보타.낙가산) 5일.....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요금문의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조주 관음원 6일.....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대불,구채구 황룡 6일.....요금문의

【품격 성지순례】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직항) 7일.....요금문의
• 은둔의나라라오스성지순례(직항) 5일.....요금문의
• 인도8대 성지순례 10일.....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중국 · 태국 라오스 현지 직영 사무실 OPEN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문화人

“불교미술 과거에서 깨어나 현재를 말하고 미래 도모해야죠”

붓다아트페스티벌 기획위원장 김영수 작가



김영수 작가는 불교아트페스티벌 기획을 통해 불교미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불교미술의 현재 돌아보고
미래 이끄는 방향 전환 필요
작품활동과 더불어 명상도 지도

“절마다 박물관은 있지만 미술관은 없잖아요. 불교미술이 현재가 아닌 과거에 있다는 반증이죠. 하지만 과거의 풍부한 문화유산에 빠져 현재를 볼 수 없다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불교미술이 과거가 아닌 현재로서 발전하고 동시에 미래를 이끌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붓다아트페스티벌을 기획한 김영수 작가는 열악한 불교 미술의 현재를 비판만 하는데 머물지 않았다. 불교미술의 대중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불교아트페스티벌을 기획한 것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사실 지금까지 불교미술하는 사람들이 기분 좋은 일이 없었어요. 불교아트페스티벌은 불교미술인들이 모여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관람객들을 만나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리죠. 지난해에 비해 부스가 두 배 늘기도 했고 작가 매출도 10배 이상이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아주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만화전 역시 시기적으로 웹툰이 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획하게 돼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김 작가는 내년 아트페스티벌을 위한 준비로 바쁘다. 국내외 교류를 통해 붓다아트페스티벌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김영수 작가는 불교조각가 윤수천 선생으로부터 사사하며 불교미술을 시작했고 이후 불교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원을 세웠다. “동산불교대 청년회를 다니며 수행과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배운 위빠사나 수행은 제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10여년 참선수행을 하면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선학을 공부했습니다. 현재도 여러 기관에서 명상을 지도하는 ‘명상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행과 작품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김 작가는 지금까지 ‘무아’ ‘탄헌대종사의 흔적을 찾아’ ‘거짓말’ 등의 전시를 열며 대중들과 소통해왔다. 특히, 불교미술이 형식적 틀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는 개인전 ‘거짓말’을 통해 이를 보여줬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또한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잖아요. 보잘 것 없는 뻥튀기에 금박을 입혀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불상에 금을 입히는 것은 영원한 가르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역으로 보면 가르침은 사라지고 금으로 치장해 부처님을 신격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순된 현실을 금을 입힌 뻥튀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장되고 이중적 모순에 빠진 우리 현실이 바로 금박을 입힌 뻥튀기죠.”

김 작가는 예술도 삶도 불교라는 근엄한 틀에 갇히는 것을 거부한다. 이런 그가 4년여 전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바로 방물단이라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연 것이다. “방물장수에서 모티브를 따왔어요. 방물장수는 지금으로 치면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고 선진문물을 가져오는 사람이잖아요. 이처럼 방물단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어요. 공정무역, 사회적 경제장터, 도시농업축제, 예술가들을 위한 ‘헬로우 문래’ 등의 장터를 통해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예술가인 그가 이렇게 방물단을 열게 된 것은 예술가 이전에 불자로서 공생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니 아무래도 함께할 수 있는 삶을 동경하게 되었죠. 방물단에서 여는 장터는 이런 가치 있는 삶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한 달에 한번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열리는 달시장에는 매번 1천여 시민이 몰려와 재활용시장, 수공예 작품 판매, 축제와 워크숍 등이 펼쳐집니다.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 펼쳐지죠.”

누구나 꿈꿀 수는 있다. 하지만 부족한 현실을 채워 나가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그래서 김 작가는 열악한 불교미술의 현실을 바꾸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상적 삶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현실의 모순을 보여주는 ‘거짓말’



유쾌하게 표현한 ‘춤추는 달마’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열리는 달시장

매이고 벗어남은 원래 다름없으니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⑬ 이색과 송광사 (下)





송광사 전경. 보조 지눌 스님의 부도가 송광사 경내를 굽어보고 있다.

부목화상과의 깊은 교유

이색의 문집에는 송광사 부목화상(夫目和尙)과의 교유시가 5편 가량 수록되어 있다. 부목화상의 전기는 미상이지만 당시 영향력 있는 스님이었고 이색과는 상당한 교분이 있었음을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송광산초체(松廣山 遞)
명전대길상(名傳大吉祥)
장신능간고(長身能幹蠱)
대후위반향(大后爲頒香)
주실청풍탑(籌室淸風榻)
납의명월랑(衲衣明月廊)
삼생습기탁(三生習氣濁)
회수경창망(回首更蒼茫)

송광산은 아스라이 멀리 있어
이름은 대길상이라 전해 오는데
큰 체구는 선대 사업을 잘 이행하고
태후께서는 위하여 향을 내리었네.
주실엔 청풍의 선탑이 놓여 있고
납의는 밝은 달 아래 복도를 거닐리.
나는 삼생의 습기가 혼탁한지라
머리 돌리니 다시 아득하기만 하네.
–이색 ‘대서하여 송광의 화상에게 올리다’
〈목은시고〉 제8권

이 시가 ‘부목화상’을 향한 것이라는 설명은 따로 없지만 이색의 다른 작품들이 대개 부목화상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이 작품 제목에 걸린 ‘송광의 화상’ 역시 부목화상으로 보인다.

이색의 시대 송광사는 송광산 수선사로 불렸을 것이다. 이 시에서 말하는 송광은 산 이름이면서 절을 뜻한다. 큰 절은 품은 산은 그 이름으로 산과 절을 다 품는 것이다. 송광산이 아스라이 멀다는 것은 이색 자신이 살고 있는 곳(개성)과 멀다는 의미도 되지만, 절의 역사가 아득하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곧 이어 대길상이라는 신라 때의 절 이름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큰 체구’도 시의 대상인 ‘송광의 화상(부목화상)’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송광사 승려들의 통칭으로 읽어도 무방할 것이다. 곧 이어 송광사가 정혜결사의 정신을 잘 이어 왕실의 보호를 받는 것을 찬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첩된 의미로 시를 읽으면 ‘주실엔 청풍의 선탑이 놓여 있다’는 대목에 드러나는 의취를 더욱 확장하여 새길 수 있다. 이 대목이야 말로 시에서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 한줄기다.

주실은 수행자를 잘 가르치는 훌륭한 스승 즉 방장화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籌)’는 셈을 하루 때 사용하는 산가지라는 말이다. 서천(인도)의 제4조 우바국다 스님이 한 사람을 제도할 때마다 산가지 하나를 내려놓았는데, 그렇게 쌓인 산가지가 높이 20척 넓이 30척 되는 방에 가득 찼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로부터 교화를 잘 하는 수행자가 머무는 곳을 주실이라 했으니 방장을 상징하는 말로 변용되었다.

아무튼 이색은 부목화상을 향해 주실의 주인으로 맑은 수행가풍을 지키고 있음을 노래하며 밝은 달 아래 납의를 입고 회랑을 거니는 유유자적한 풍모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송광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스님을 그리며 시를 쓰는 이색의 시안(詩眼)은 자신을 향한다. 이 또한 이색의 높은 문학적 성취다. 멀리 있는 스님을 찬탄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시의 맛은 건조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색은 ‘삼생의 습기’를 제도하지 못하는 자신을 응시하고 아득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으니, 공민왕에게 불교 억제책을 제시했던 그의 정치적 입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봉화천애취전진(烽火天涯吹戰塵)
벽라심처각장신(碧蘿深處却藏身)
지응박탈원무이(祇應縛脫元無二)
노아유연미도진(老我悠然味道眞)

천애에 봉화 오르고 전쟁 먼지 불어댈 제
벽라 넝쿨 깊은 곳에 문득 몸을 숨기었네.
응당 매이고 벗어남이 원래 다름없기에
늙은 나 또한 유연히 진리에 맛붙였다오.
–이색 ‘송광사(松廣寺) 부목화상(夫目和尙)이…’ 〈목은시고〉 제17권

이 시의 제목은 ‘송광사(松廣寺)의 부목화상(夫目和尙)이 왜(倭)를 피해 영대사(靈臺寺)에 있으면서 차(茶)를 부쳐 준 데 대하여 받들어 사례하다’이다. 시의 제목을 보면 이색이 깊이 교유하는 부목화상은 왜의 노략질을 피해 영대사라는 절에 머물고 있는데, 그러한 환난 가운데도 이색에게 차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 말고도 차와 부채를 보내준 데 대한 답례시도 있다.

아무튼 이색은 부목화상에게 전란을 피해 다른 곳으로 피신한 정황을 위로하며 ‘매이고 벗어남’이 둘이 아님을 말한다. 유학의 선비로서 불교의 불이사상을 들어 스님을 위로하는 격이다. 그런데 이 따뜻한 위로가 그냥 하는 위로가 아니다. 사실은 이색 자신도 이미 세상의 이치가 ‘불이’임을 잘 알고 있다는 고백으로 시가 종결되고 있는 것이다.

존경과 그리움의 마음 시에 담아

이색은 다른 시들에서도 부목화상을 매우 존경하고 늘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 선사는 백업(白業)을 지은 지 오래라/ 꽃을 보고 일찍이 활짝 웃었는데/ 다생 속에 서로 교분을 맺어서/ 나의 병든 몸을 불쌍히 여기어/ 부채를 주어 내 몸을 서늘하게 하고/ 차를 주어 내 속을 맑게 하누나(我師業白久 拈花曾破顔 多生托交契 憐我病骨酸 扇以凉我肌茶以淸我肝(〈목은시고〉 제11권)’라는 대목이 의미심장하다. 백업은 선업(善業)과 같은 말. 이 시는 부목화상이 차와 부채를 보내준 데 대한 감사의 시다.

또 ‘오래전에 송광사 떠나셨더니/ 표연히 수원에 와 계시는구려/ 목숭이 지금 목마르게 사모하는데/ 언제나 종문의 어르신 찾아뵐는지(久矣離松廣 飄然在水原 牧翁方渴仰 何日過宗門)라는 화답시에서 간절한 그리움을 엿볼 수 있다.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보련기획 BORYEON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인 등

보련기획 BORYEON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9 ~ 3/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3	삶은 환타지다	월호	민족사
4	공-공을 깨닫는 27가지 길	용타	민족사
5	비울수록 가득하네	정목	쌤앤파커스
6	담마빠다-빠알리어 직역 법구경	일아	불광출판사
7	능가경 강의	남회근	부키
8	알고 보면 괜찮은	마가	불광출판사
9	일체경계 본래일심	정목	비움과소통
10	너는 누구냐	김경웅	슈하인터내셔널



"행복은 소유 아닌 교감 통해 얻어져"



아름다운 선물
글·그림 수안 스님
문이당 펴냄
1만 4500원

선화(禪畵)로 유명한 수안 스님. 지난해 9월에는 러시아 정부 초청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화 초대전을 열었다. 프랑스, 모나코, 독일 등에 이어 해외에서 다섯번째 열린 초대전이었다. 2개월동안 러시아 극동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수안 스님의 최근작 60여점이 전시됐다.

이 당시 수안 스님은 "해외 독립운동의 거점이자 '카레이스키(재소 한국인 동포)'의 슬픔이 서린 블라디보스톡에서 전시회를 열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우리 고유의 종교와 문화가 담긴 작품을 통해 진짜 한류의 본보기를 선보이고 양국간 우호관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 전시를 졸탁동시(卒啄同時)가 빚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졸탁동시는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 새가 알에서 부화할 때 새끼가 안에서 톡톡 쪼는 행위와 어미가 밖에서 탁탁 쪼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비로소 두꺼운 알이 깨진다는 말이다. 이런 뜻 외에도 졸탁동시는 불가에서 깨달음의 화두로 사용되는 1700공안중 하나이다. 깨달음에 목말라 정진하고 정진한 제자에게 결정적인 순간을 맞춰 스승이 한 소식을 전해준다는 의미이다. 수안 스님은 바로 정치 문화적 변화에 의한 우리 쪽의 노력이 밖에서 알을 쪼는 것이라면, 현지서 살고 있는 동포들이 그 나라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입지를 든든히 하는 것은 안에서 알을 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도사 문수원서 선 수행과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수안 스님의 그림 산문집 〈아름다운 선물〉이 나왔다. 스님은 출가 이후 60여 년간 다져 온 수행 세계와 시 서 화 각에 몰입해 온 예술 인생을 이번 산문집을 통해 글과 그림으로 진솔하게 보여 준다. 또한 출가 전후의 성장 과정과 수좌로 정진하던 고행기, 노숙자부터 파리의 노부인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나눈 감동적 일화들을 소개한다.

스님의 그림에는 좋은 글귀들이 들어가는데 하나같이 마음을 따듯하게 해주는 경구들이다. "당신이 있기에 참 행복합니다"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습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등등. 듣기만 해도 절로 행복해 지는 말들이다. 수안 스님은 이 책에서 "행복은 교감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 소유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로의 감동이 교차할 때 그동안 살면서 쌓인 애환도 눈물도 녹으며, 그때 흘리는 눈물이야 말로 진정한 행복의 샘물"이라고 말한다.


글과 그림만큼 수안 스님의 미소도 따사롭다.

선서화가 수안 스님 글 그림 60여편 담아
수행시절 · 스승 석정스님과 일화 등 소개
짧고 감칠맛 나는 어휘 잔잔한 감동 전해

우리나라에서 시서화각에 능한 종합 예술가는 흔치 않다. 거기에 수행력까지 겸비한 선승이 바로 수안 스님이다. 월간 〈보궁〉과 〈삶과 생명나누기〉에 매월 시를 쓰고, 표지화를 그리며 삶의 현장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하는 수안 스님의 예술적 소재는 세 가지가 맞물려 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 수행, 자연에 대한 관조, 사회에 대한 연민이다. 스님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는 학, 소나무, 꽃 등의 자연 세계, 그리고 부처님과 보살, 탑, 동자승, 우담바라 등의 구도적 세계, 또 사람과 집, 차 등 생활에 관한 것들이다. 간결하면서도 강렬하며, 때로는 희화적으로 미소 짓게 하고, 정공법으로 가슴을 쾅 울리기도 한다. 요즘처럼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위안이 되고 희망의 에너지가 샘솟는 촉매제는 많지 않다. 이번에 나온 스님의 그림 산문집은 어려운 고비를 힘겹게 넘겨가는 이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안 스님의 선서화는 따뜻한 울림을 전해준다.

이 책 내용을 살펴보면 스님이 출가한 이후 60여 년간 수좌로 정진하던 고행기와, 그림과 전각을 시작하게 된 과정, 수많은 해외 전시회를 통해 그곳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총 4부로 구성된 책에는 66편의 글과 68편의 그림이 실렸다. 이 책은 일상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수안 스님의 따뜻한 마음과 세상살이에 지친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위무가 담겨 있다. 짧고 간결한 문장들과 감칠맛 나는 어휘들이 수안 스님이 그린 선화와 함께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부처님의 마음을 그림으로 전하려는 수안 스님은, 수행자로 살며 겪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어린아이부터 파리의 노부인, 스님의 어머니까지, 모두에게 받았던 고마운 마음을 그림과 글로 엮었다.

책에서는 특히 과자와 홍시 얻어먹으려 절에 드나들다 그냥 눌러 앉아 출가하게 된 이야기부터 스승인 중요무형문화재 불화장 기능 보유자인 석정 스님(1928~2012)과 함께 맛있는 국숫집을 찾아 다니던 이야기, 안거중 무작정 선원서 도망쳐 무작정 여행을 떠난 일화 등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스님은 악필과 인연이 깊다. 그래서 수안 스님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는 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악필(握筆)이다. 악필이란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주먹으로 붓의 상단을 움켜쥐고 쓰는 것을 말한다.

스님의 한 획, 찰나의 획에는 엄청난 공력이 들어 있다. 이는 동양화 선묵화를 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기세다.

오랜 세월의 수련과 정진 수행이 그 기를 만들어 낸 것이며, 전각가로서 다져진 공력도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수안 스님은 우리 역사 속의 문사들이 정치, 경제, 예술, 문학을 두루 꿰어 현실 사회에 반영했듯이, 예술 장르를 넘어 일상의 세계를 연계하고 통찰해 한 줄로 꿰어 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의 서화집이라기 보다 종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선명상집 성격이 짙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현대에 맞는 새로운 종교생활 길잡이 필요"

오리지널 미국중

종매 스님 지음 | 푸른향기 펴냄 | 1만2천원



이 책은 〈현대 한영 불교용어사전〉을 집필한 미국 로욜라메리마운트대학 종교학과 교수 종매 스님이 쓴 좌충우돌 해외포교 이야기다.

미국의 한국 선불교 선지자이신 숭산 스님과 도안 스님을 가까이 보필하며 해외 포교의 길을 이어받은 종매 스님. 스님은 불교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오스트리아서 처음으로 불교대학을 설립한 이후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50여 국가를 돌며 불교 포교에 앞장서 왔다.

이 책에는 오랜 외국생활과 해외 불제자들과의 인연, 승려로서 경험한 웃지 못할 해프닝, 불사를 하기 위해 직업전선에 뛰어든 사연, LA폭동이 일어났을 때 절을 지켜준 흑인 불자들, 서양의 젊은이들과 어울리며 열린 마음으로 불법을 전하는 사연 등 솔직담백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겁도 났지만 그저 머리 깎고 회색 승복을 입었다는 용기 하나로 저자는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았다. 아마 불보살님의 엄청난 가호가 있었으리라 본다.

숭산 스님과 도안 스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깊이 관찰하며 오리지널(Original) 미국 중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고 저자는 회고 한다. 엉성한 영어 몇 마디를 겁 없이 내갈기며 좌충우돌하기 십수년이다.

저자는 철저한 채식주의자였지만 몸을 추스르기 위해 뽀얀 국물과 먹음직스러운 살코기가 둥둥 떠 있는 설렁탕을 앞에 놓고 솔직히 먹고 싶었다는 인간적인 속내도 들어낸다.

저자는 또한 이 책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력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것이 어떤 유형의 믿음이라도 인간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스스로 복이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믿음은 종교로서 완벽한 것이다. 인간에게 너무 난해한 교리만을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가장 쉬운 신앙행위로써 인간을 이끌어야 하는 보편성도 있어야 한다."고 평소의 종교관을 설명한다.

저자는 해외 포교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한다. 미국과 달리 유럽불교는 신앙이 아닌 철학적이고 교학적인 관심에서 불교가 시작했기 때문에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많아도 실제로 그들을 불자로 만들기에는 엄청나게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유럽에서 불제자의(특히 승려나 전법사) 양성이 절대 필요하고 또 그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유럽의 한인불자 수는 아주 소수라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으로 나가 포교하려는 승려나 전법사는 스스로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종단차원에서의 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불교 행사 때에 빠짐없이 참석해 스님들 뒷바라지까지 다 해주는 일본인 목사님을 보면서 범종교적인 차원에서 불교의 발전을 모색하고, 종교는 인간들이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편 가르고 갈등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한다. 그래서 불교의 퓨전화를 조심스럽게 떠올린다.

실제로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승려생활하는 서양의 수행자들을 보며 '수행과 세속적인 삶이 병행되는 삶이 북미나 유럽에서 크게 유행될 것'이라 예견하며 미래의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종매 스님의 좌충우돌 해외 포교 체험기
서구불교인 교학적 관심많아 포교 힘들어
북미나 유럽은 지금 퓨전식 종교 활발

각자 직업을 갖고 사찰이나 선원을 운영하는, 즉 수행과 세속적 삶이 병행되는 것으로, 이런 생산적인 삶이 앞으로 북미나 유럽에서 크게 유행될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그리고 저자는 자신의 경험으로 봐서 세속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수행하며 살아가는 신세대 성직자는 오히려 나태하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북미나 유럽의 여러 곳에서 이미 신세대 퓨전식 종교 활동이 활발하다고 소개한다. 가톨릭 신부나 수사들이 성당이나 수도원서 불교식 참선을 하고, 불자들은 성당을 빌려 법회를 보며 마리아를 관세음보살로 해서 깊은 자비심을 고양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 미래의 종교도 퓨전화 한다면 어떨까 질문을 던진다. 불교교리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성경말씀으로 해탈의 경지를 맛보며, 모하메드의 사랑으로 화엄경을 푸는 퓨전식 종교말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21세기 첨단 문명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에 걸맞게 첨단의 종교생활과 새로운 신앙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개종(religious convert)이란 말보다 복수신앙(dualistic faith)이라는 신종어가 많이 쓰일 것 같다는게 미국 오리지널 스님의 예견이다.

김주일 기자



나에게 펼쳐진 세상은 나의 마음작용



연기법으로 읽는 불교

목경찬 지음
불광출판사 펴냄
1만3천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므로 저것이 사라진다.(此有故彼有 此生故彼生 此無故彼無 此滅故彼滅)"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연기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저자는 "과연 이것이 부처님의 연기법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일까."라며 "연기법을 (올바로)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고 말한다. 책은 '연기법의 확장'으로, 연기법을 좀 더 넓은 시야로 보고 이해하기 위함이며, 그 확장된 연기법으로 불교의 기본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 저자가 '연기법'을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연기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연기는 글자 그대로 '서로 인연하여 일어나는 것', '다른 것과 관계를 맺어 일어나는 것' 등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런 풀이 아래 연기법은 '세상 만물은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서로 관계하여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은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먹는 이 한 톨의 쌀에도 모든 인연이 모여 있다. 결코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두 상호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연기이다. 더 나아가 연기법을 사회 관계성으로 응용하여 설명하면, '내가 있으니 네가 있고,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 자연이 있으니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 자연이 있다. 서로 관계하여 존재한다.' 고 설명한다.

이는 외부 세계의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성으로 연기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책은 이것을 연기 중의 '외연기(外緣起)'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마음 작용 간의 관계성으로 보는 것을 '내연기(內緣起)'라고 설명하고 있다.

외연기와 내연기에 대한 용어는 〈요본생경〉, 〈도간경〉 등에서 보이는데, 외연기는 씨앗, 삭, 줄기 등의 관계로 설명하고, 내연기는 무명에 의해 행이 일어나고 나아가 노사가 일어나는 관계, 즉 십이연기로 설명하고 있다고 책은 소개하고 있다. 즉 외연기는 마음 밖 대상과 대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산소와 수소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내연기는 마음작용 간의 관계를 말한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무명에 의해 행이 일어나고 나아가 노사가 일어나는 관계, 또는 원효 스님의 마음에 의해 해골바가지 물이 달콤한 물로 드러난 경우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외연기는 복잡한 내연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것으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구절은 무명 · 행 · 식 등 십이연기법

확장된 연기법으로 불교교리 설명
연기, 내연기와 외연기로 구분
외연기는 내연기 설명 위한 것
연기법 핵심은 내연기(마음 작용)

의 12지(支)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이것과 저것, 나와 너 등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사물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연기법은 세상 만물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혹과 업으로 인해 마음 작용이 서로 관계하여 일어나는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을 끊으라는 가르침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연기법의 '확장'은 '내연기'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기'는 '서로 관계하여 일어난다', '세상만물은 서로 관계하여 존재하며 결코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였다. 하지만 책은 앞의 설명만으로는 연기법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외연기의 이해만으로 연기법을 설명하고 이해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과 저것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렇게 관계하여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나아가야할 공부라는 것이다. 사물과 사물과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는 외연기를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외연기가 아니라 내연기라는 것이다. 즉 부처님께서는 내연기를 설명하고자 외연기를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이다.

책은 십이연기, 삼법인, 오온, 십이처, 십팔계 등 불교의 기본 가르침이 지닌 참뜻을 연기법에 대한 바른 이해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낱낱의 파편으로 흩어지는 알음알이의 교리가 아니라, 연기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연결되며, 전체를 꿰뚫는 통찰을 독자에게 전한다. 연기법은 '나에게 펼쳐진 세상은 나의 마음작용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저자의 말은 이러한 기본 교설에 대한 이해가 초기불교뿐만 아니라 대승불교 또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불교의 기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책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하루 7만 번도 가능한 '아미타' 염송법

일체경계 본래일심

정목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2천원



'연기 · 공 · 중도'는 세계의 실상을 관하는 철학적 사유이며, 객관적 깨달음이다. '일심 · 광명 · 화신'은 종교적 신념이며, 주관적 깨달음이다. 연기는 보편의 진리인 까닭에 말로써 전할 수 있지만, 일심 · 광명 · 화신은 종교적 신념이요, 주관적 깨달음인 까닭에 말로써 온전히 전하기 어렵다. 이것은 어렵지만, 진실로 믿고 행하는 자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다.

청화 큰스님 입적 이후 염불선(念佛禪)의 차세대 선지식으로 손꼽히는 저자 정목스님(양산 정토원 원장)은 원효 성사가 남긴 일심정토 염불수행을 삶과 수행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체득한 깨달음을 가감 없이 진솔하게 전하고 있다.

"일체 경계는 본래 일심이니, 자연과 생명의 청정한 광명을 찬탄합니다.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니, 모든 인연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합니다."

이 네 구절은 풀어 보이면 우주를 덮고도 남으며, 쥐어짜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 교학이 방대한 이유는 이 네 구절을 개개인의 근기에 따라 이해시키기 위함이다. 알기는 쉬워도 실천하는 것은 세세생생을 하여도 모자란다. 철학과 종교가 서로 빛내고, 믿음의 대상과 깨달음의 경계를 동시에 보인다. 저자는 범부와 성인에게 다 통하는 이러한 묘법을 독자들에게 생생히 전하고 있다.

염불수행은 '일체경계 본래일심'의 지혜와 성소작지를 진실로 믿고, 믿음으로 해탈하는 법이다. 염불은 믿음으로 해탈하고, 진실한 성품이 드러난 세계인 '아미타불의 국토'를 생각하고 관찰하는 수행이다. 저자는 집중염불은 하루에 '아미타(무량광)' 염송을 7만 번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일심 ? 광명 ? 화신'의 뜻을 음미하며 천천히 마음에 또박또박 새긴다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아미타 아미타 아미타'라고 10번 정도 외운다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다 '아미타(광명)'라고 생각한다 △두 사람을 상대하면서 '아미타' 하면 2번, 열 사람을 상대하면서 '아미타' 하면 10번, 동서남북에 보이는 것마다 관찰하며 '아미타' 하면 100번은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와 같이 염불하면 하루 7만 번을 할 수 있다 등의 방법을 알려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일심정토 염불수행'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남녀노소, 무식과 박식, 소승과 대승, 나아가 보살까지 다 함께 정진할 수 있는 수행법이며, 단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공통분모는 '일체경계 본래일심'의 지혜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근기에 따라 염불하는 방법은 달라도 모두 다 한 곳으로 흘러간다는게 저자의 해석이다.

저자는 "일심정토를 지향하는 염불수행은 마침내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임을 깨달아 신앙의 대상이 우리들 삶의 현장에 있음을 자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연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행을 일으키게 합니다."라며 "염불수행은 지성과 감성을 겸비해 삶을 아름답게 장엄하는 희망의 실천철학"이라고 말한다. 이어 저자는 "아침, 저녁, 시시때때로 날마다 염불합시다.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든지, '아미타불' 넉자든지, '아미타' 석자든지, 명호의 뜻(무량광명)을 마음에 새기고 온 세상이 광명의 물결로 변할 때까지,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보일 때까지 정진합시다."라고 책 속에서 불자들에게 당부한다.

김주일 기자

책 속의 한 구절

▲절차탁마(切磋琢磨)

정토원에 무성한 백일홍은 삼복더위만큼이나 뜨거운 정열로 온몸의 에너지를 토해내며 붉게 타오릅니다. 자연도 그러하거늘 우리도 한 번쯤은 어떤 원력의 삶에 혼신을 다하는 시절이 있어야 인생의 참맛과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혼신을 다할 일의 선택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진여문 생멸문(眞如門 生滅門)

불교는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 지혜 가운데 으뜸은 '일체경계 본래일심'의 지혜입니다. 그 일심에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습니다. 진여문은 마음의 본성이니 본래 맑은 물과 같고, 생멸문은 마음이 만든 현상이니 본래 맑은 물의 속성을 안고 흙탕물, 갖가지 음료수 등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무상(無相)임을 통찰하여, 이 도리에 의지해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보리심을 일으켜, 무원(無願)으로 남에게 이익이 되는 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영덕 지역 사찰 65곳과 폐사지 30곳 정리

영덕 폐사지 불적답사와 불교현황

현담 지음 | 영덕불교사암연합회 펴냄 | 3만원



영덕불교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집이다. 최근 영덕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현담 스님은 영덕불교의 역사기록을 한 권의 책으로 펴내는 대작불사를 회향했다. 위덕대 불교학과 대학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덕경찰서 경승, 포항교도소 종교위원, 영덕파라미타 축구클럽 단장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현담 스님은 "출가 수행자로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불교 역사를 이어서 후대에 남겨야겠다는 사명감으로 틈틈이 자료를 정리하고 여러 번의 답사를 다니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집필 동기를 밝혔다.

이 책은 3 단계로 구성돼 있다. 우선 1부에서는 영덕 지역의 불교 폐사지 30군데에 대한 역사 기록과 답사를 통해 폐사지의 흔적을 사진으로 남기고 현재 상황을 기술해 놓았다. 2부에서는 영덕 지역의 사찰 65곳에 대한 기록이다. 창건 연대와 사찰 규모, 위치와 연락처, 종단 기록과 주지스님의 활동 상황, 전각과 모시고 있는 불상 등을 사진과 함께 기록했다. 3부에서는 영덕불교사암연합회에서 봉행한 법회와 활동 모습 등을 사진과 글로 소상하게 기술했다.

현담 스님은 "처음에는 현재의 기록만 정리하려던 것이 폐사지의 기록까지 넣으면서 방대해졌지만 그만큼 큰 보람을 느꼈다"면서 "이번 책 발간이 영덕불교 발전과 군민의 풍요로운 삶에 작은 보탬이 되고 이를 계기로 불교의 소중한 문화 유산이 잘 보존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출판기념법회는 4월 17일 오전 10시 영덕문화체육센터 내 영덕문화원에서 봉행한다.

김주일 기자

한국불교 사리 신앙의 모든 것 총망라

한국의 사리 신앙 연구 –적멸보궁의 시원을 찾아서

자현 · 남무희 · 장미란 · 장성재 · 이원석 · 원혜영 공저
오대산 월정사 편찬 | 운주사 펴냄 | 1만8천원



신라 선덕여왕 재위 646년 왕명으로 당나라에 유학 갔던 자장 율사는 청량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부처님 진신 사리 100과와 가사 1벌을 받아 귀국한다. 자장 스님을 기원으로 하는 적멸보궁의 역사와 사리 신앙을 인도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리와 사리 신앙의 기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르는 사리 신앙 전래의 과정, 한국만의 각별한 사리 신앙을 오대산 월정사와 적멸보궁을 중심으로 탐구했다.

불교에서 사리는 붓다의 유골을 의미한다. 붓다 입멸 후 사리는 예배와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졌으며, 이것이 각 지역과 이웃나라로 분배되면서 사리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적인 불교 신앙이 일어났다. 한국의 사리 신앙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된 사리 신앙이 다시 한국으로 전래되면서 비롯되었으며, 오대산 적멸보궁 신앙과 융합되어 한국만의 고유한 사리 신앙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불사리를 모신 5대 적멸보궁에 대한 신앙이 매우 깊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적멸보궁 신앙과 사리 신앙에 대해 그 기원과 역사, 신앙의 특징과 의미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책은 월정사에서 개최한 '오대산 적멸보궁과 사리 신앙의 재조명'이라는 불교학회 세미나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으로, 신라의 자장 스님에 의해 한국에 전래된 불사리와 이를 봉안한 적멸보궁의 기원과 역사적 과정, 그리고 한국 사리 신앙과 보궁 신앙의 성격과 의미, 나아가 중국과 인도의 사리 문화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고찰했다.

박재완 기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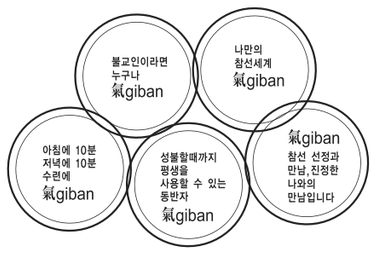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중국 선불교의 징검다리… 사상의 융섭을 보다

불교로 읽는 古典

노자의 〈도덕경〉



심 재 원
철학자

〈도덕경〉이라는 책

우리가 지금 통용본으로 보는 〈도덕경〉은 왕필본(王弼本)이다. 왕필은 A.D. 3세기경 위진남북조시대 사람이다. 20세기 중반까지도 학자들은 단행본 주석서로는 왕필본이 가장 오래된 문헌이라고 알고 있었다.

1973년에 획기적 사건이 하나 터진다. 중국 호남성 마왕퇴의 분묘에서 백서(帛書) 〈도덕경〉 2종이 출토된 것이다. 이 분묘의 연대가 B.C. 168년이라고 하니 여기에 묻힌 백서본은 최소한 B.C. 3세기나 그 이전에 존재했던 문헌임이 분명하다. 백서본은 내용 분량에 있어서도 왕필본과 80% 이상 일치한다.

그런데 1993년에 학계를 크게 뒤흔드는 또 하나의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졌다. 호북성 형문시 곽점촌(郭店村)의 분묘에서 죽간(竹簡)으로 된 〈도덕경〉 3편이 나온 것이다. 곽점 죽간본은 갑(甲) · 을(乙) · 병(丙) 3조로 되어 있으며, 그 분량은 왕필본의 40% 정도나 된다. 이 분묘가 만들어진 시기가 B.C. 300년경으로 추정되므로 죽간본 〈도덕경〉은 늦어도 B.C. 4세기 이전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으니 백서본보다 두 세기는 앞선 문헌이다.

지금 실존인물로서의 노자, 즉 역사적 노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도덕경〉은 대화형식으로 이루어진 〈논어〉 같은 문헌과는 달리 매우 건조한 논문형식으로 되어 있고 분량도 적다. 따라서 〈도덕경〉은, 만약 '노자' 라는 어떤 인물이 실존해 있었다면, 그 노자가 이 문헌을 혼자 썼을 것이다. 노자가 홀로 죽간〈도덕경〉과 비슷한 내용의 글을 남겼으며, 그 뒤에 후세 사람들이 여기에다 조금씩 보충해 가서 백서〈도덕경〉이 성립되었을 것이다. 이 문헌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왕필본의 원형이다.

노자의 '없음(無)' 과 불교의 '공(空)'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삼았던 한(漢)제국이 멸망하고 〈삼국지〉의 배경이 된 삼국시대가 도래하자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본격 유입되기 시작한다. 불교가 중국에 어느 정도 정착한 시기는 왕필(王弼), 하안(何晏), 곽상(郭象), 완적(阮籍), 혜강(?康) 같은 학자들이 주도한 청담(淸談)사상이 유행하던 위진남북조 시대였다. 윤회의 주체인 불변하는 아트만(atman; 자아)을 부정하는 석가모니의 불교는 인도보다 중국이 더 안전한 깨달음의 집이였는지도 모른다. 중국에는 불교와 비슷한 사상을 가진 〈도덕경〉을 비롯해서 〈열자〉와 〈장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에 처음 들어온 불교사상은 반야학의 공(空)사상이었다. 초기불교는 중국 사람들에게 공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자의 허 · 무(虛無) 개념으로 격의(格義)를 했다. 중국 사람이 잘 아는 허 · 무 개념을 가지고 반야의 공을 설명함으로써 어려운 불교사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자는 도(道)를 '비움(虛)' 이라고 달리 표현하며 또한 '없음(無)' 이라고도 한다. 비움의 반대는 채움(盈)이고, 없음의 반대는 있음(有)이다. 노자의 비움 또는 없음이 반야의 공이다.

B.C 4세기 前 저술된 〈도덕경〉
노자 저술… 열자 · 장자로 이어져

불교의 中 정착 사상적 조력
禪문화 정립에도 지대한 영향
노자 '虛心' · 불교 '無心' 개념
언어 달라도 동일한 깨달음
"평상심을 통해 道를 이루라"

"함 없음을 하라!〈도덕경 63장- (본문 인용할 때 장만 표기)〉"는 명제가 있다. 함 없음(無爲)이란 비우는 방향으로 하는 행위이고, 반대로 함 있음(有爲)은 채우는 방향으로 하는 행위이다. 비우는 행위인 무위를 행해야 다시 무엇이든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비움이 도가 된다. 그러므로 "도는 항상 함이 없지만 하지 못할 것이 없다.〈37장〉"

〈도덕경〉에 나오는 '만물(萬物)' 은 '모든 사물' 이란 뜻으로 불교의 '제법(諸法)' 과 똑같은 말이다. 법이 제6식인 의(意)작용을 통해 개념이 생긴 상태이듯이, (사)물은 개념 없음(無名)에서 개념 있음(有名)으로 생성(生)한 상태다. 개념을 채우면 사물 있음(有物)이 되고 개념을 비우면 사물 없음(無物)이 된다. 개념 생성으로 하나의 사물이 된 뒤에는 다시 "사물 없음으로 복귀한다〈14장〉" 임제 선사는 "지혜의 칼이 나타나면 하나의 사물도 없다.(無一物)"고 했다.

종합해서 말하면, "만물이 모두 허하다(萬物皆虛)"는 노자의 말이나 "제법이 모두 공하다(諸法皆空)"는 불교의 명제는 동일한 의미다.

"천하의 사물은 있음에서 생기고, 있음은 없음에서 생긴다〈40장〉" 없음에서 있음으로 생성했다가 다시 없음으로 "뒤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40장〉" 제법은 공으로부터 생했다가 다시 멸하여 공으로 돌아간다. 공하다는 것은 생멸한다는 뜻이다. 노자의 없음 또는 비움은 모든 있음 또는 채움을 가능하게 하기에 모든 생긴 것들의 '바탕(素)' 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서양의 실체론에서 말하는 '본체' 나 '근원' 이 절대 아니다.

본체나 근원으로서의 있음을 '실유(實有)' 라 하는데 노자의 있음은 실유가 아니다. 불교의 공처럼 노자의 있음과 없음도 단멸한 상태가 아니다. 노자는 "있음과 없음이 서로 생한다〈2장〉"고 했다. 있음 속에 없음이 있고 없음 속에 있음이 있다. 있음과 없음이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성 속에 있음과 없음이 함께 녹아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고 오로지 생성만 있다. 그래서 노자는 "도는 생성해 가는 것이다〈51장〉"라고 말했다. 생성이 곧 도이고 도가 곧 생성이라는 의미다.

노자의 핵심사상에 '스스로 그러함(自然)' 이 있다. 이 말은 불교의 진여(眞如), "참으로 여여하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25장〉" 도는 비움이니 사물에서 개념 혹은 언어를 비우면 스스로 그러한 상태가 된다. 불교의 진여도 마음의 개념작용인 언어가 비워진 상태이니 노자의 스스로 그러함과 같은 상태다. 또한 도는 생성이니 생성은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고 해도 된다. 있음이 없음에서 생성하는 모습은 스스로 그러하고 참으로 여여하다. 명나라 선승인 감산 덕청(?山 德淸)은 〈도덕경〉 주석에서 "있음이 없음에서 생성함을 안다면 스스로 그러할 것이니 사물에 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노자도 "일 없음을 일하라〈63장〉"고 말했다. 노자의 생성은 오직 스스로 그러한 생성일 때만 도이다.

〈도덕경〉 속의 선(禪)

노자의 〈도덕경〉 사상은 열자의 〈열자〉로, 다시 장자의 〈장자〉로 이어져 내려갔다. 인도불교가 중국에 정착한 뒤에 중국화하면서 중국불교는 모두 선(禪)으로 수렴되었다. 중국불교는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아 선불교를 탄생시켰다. 카마타 시게오는 "선사상의 배경에는 노장사상이 깔려 있음이 분명하다. 말하자면 선은 노장사상이 불교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달마어록〉에 나오는 '무심(無心)' 은 노자의 '무위(無爲)' 을 패러디한 표현이다.



중국 명나라 화가 장로(1464~1538)가 그린 노자기우도(老子騎牛圖). 노자 사상은 중국으로 전래된 불교가 정착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이 됐다.

선불교는 노장사상에서 단순히 이런 개념들만 빌려 쓴 게 아니라 사상 자체를 노장에 가깝게 틀어서 안착해 놓는 바람에, 선어록을 읽다보면 이게 노장인지 불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다. 특히 임제종 혹은 홍주종은 장자와 거의 같다.

장자 사상은, 이 사이에 열자가 있지만, 노자 사상을 그 뼈대에 삼고 뻥튀기해서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 다만 문체에 있어 노자가 철학논문의 시 형식이라면 장자는 문답과 비유 형식이 많다. 인도불교에는 없는 '선문답(禪問答)' 형식도 스승 장자와 그 제자들 간에 이루어진 문답 형식을 흉내 낸 것이다. 〈장자〉의 호접몽(蝴蝶夢) 설화가 대표적이다.

선에 영향을 준 장자의 심성론은 노자의 심성론으로부터 전수받았다. 노자는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배를 채우며; 그 의지를 약하게 하고 그 뼈를 강하게 하라〈3장〉"고 말했다. 노자의 '마음 비움(虛心)' 사상과 달마의 '마음 없음(無心)' 사상은 설명하는 언어가 다른 뿐이지 동일한 깨달음을 갖고 있다. 의지도 마음의 한 작용이니, 의지를 약하게 하는 것은 마음 없음의 한 양태다. 마음은 또한 앎의 주체다.

양무제가 달마에게 "내 앞에 서있는 당신은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 "모른다.(不識)"라고 대답한다. 노자는 "백성들이 앎이 없고 욕망이 없게 하라(無知 · 無欲)"고 했다. 달마의 '불식' 과 노자의 '무지' 는 같은 깨달음이다. 노자의 앎 없음이란 제6식으로 생긴 사물에 대한 개념을 비운 상태를 말한다. 나 자신에 대한 앎도 비운다면 달마처럼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 고 표현하면서 무아(無我: 자아 없음) 상태에 있을 것이다.

노자는 "성인은 일정한 마음 없이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49장〉"고 했다. 이 구절은 성인의 무아를 말할 뿐만 아니라 노자의 정치철학을 피력하고 있다. 마조 도일은 "평상심이 바로 도"라는 명언을 남겼다. 백성의 마음이 바로 평상심이다. 제8식인 아뢰야식이 깊게 숨어있는 인간의 마음은 그 자체로 오염된 번뇌덩어리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평상심인 이 마음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주장했으며, 선종에서도 신수(神秀)는 마음을 "시시때때로 깨끗이 닦아내서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하라"는 게송을 냈다.

하지만 백성의 마음인 평상심은 내버려야 할 번뇌덩어리인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진심(眞心)인 불성을 가지고 있는 여래장이다. 승조는 〈조론〉에서 "유마는 '번뇌를 떠나지 않고 열반에 든다' 고 했다"고 말한다.

혜능은 "마음 속의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어디에 먼지가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마음이 곧 깨달음의 나무요,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다"라고 신수에게 받아쳤다. 혜능은 또 "나는 본래 자성(自性)이 청정하니 내 마음을 잘 알고 견성하면 저절로 불도(佛道)를 이룬다"고 말했다.

자성청정심은 번뇌로 오염될 수 없으니 신수처럼 닦고 말고 할 필요조차 없으며, 오염덩어리인 번뇌 또한 전식성지(轉識成智)하여 견성성불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노자 또한 백성의 평상심을 가지고 정치철학을 통해 그들을 불국토로 인도하려고 했다.

노자에게 마음은 쓰임(用)의 대상이다. 장자도 '용심(用心)' 이란 표현을 썼다. "있음이 이로움이 되는 까닭은 없음이 쓰임이 되기 때문이다.〈11장〉" 이를 심성론에 적용하면, 마음 있음이 이로울 수 있는 까닭은 마음 없음이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 없음을 쓴다는 것은 마음이 항상 생멸하는 공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우리 삶을 위해 잘 쓰라는 뜻이다. 마음 없음은 마음 비움이다.

마음 비움은 마음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이 스스로 그러하게 생성하도록 내버려 두는 수행이다. 마음은 깨달음의 나무이기 때문이다. 백성의 평상심은 비록 떠들썩한 시장 한복판에서 오염된 마음이지만 무여열반할 때까지 자신의 삶을 위해 잘 써야 할 수단이라고 노자는 말한다.

제11기
(사)안정사 영산재 교육원
불교의식 학인모집
안정사 소리 – 신라 최초 영남범패단 구성,
범음범패 홋소리, 짙소리, 사성소리
(사성에 의한 범패)
(1) 초급반 : 사물(요령,목탁,태징,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각단예불, 의식
(2) 중급반 : 상주권공, 신중작법,대령관욕,천도재(49재), 각종의식
(3) 작법반 : 오공양작법, 다게작법, 요잡작법, 천수바라, 요잡바라, 관욕바라, 사다라니바라
(4) 고급반 : 운심게, 삼귀의작법(초급, 중급 수료자에 한함)
■ 개강일시 : 2014년 3월 21일
■ 교육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 오후 6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2장 (상시 모집)
* 본원은 종단과 승, 속 관계없는 교육도량으로써 수료증 수여, 매년 영산재 수륙재, 예수재 법회 동참, 승려수계득도, 포교원 지도편의도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전통의식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전통사찰 안정사 범패강원 강주
영남범음범패 영산회 교육원장 | 사단법인 안정사 영산재 보존회 이사장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954-3
전화 055)649-6711
팩스 055)649-6712
H·P 011-874-6775

깨달은 템플스테이 하루
● 깨달은 108배 수행 (20분)
표정+자세+호흡법+알아차림+깨달은절
● 염불 + 독경 (자세+호흡법+운율법 완벽 : 30분)
● 놓아버림 참회명상 (10분) : 텅텅비움, 우주와 하나되기
● 고마움의 감사명상 (10분)
우주법계 모든 부처님 은혜에 감사하기
● 참마음 참나명상 (10분) : 즉석에서 누구나 불성체험
● 미소명상 (10분)
삼매체험 제일 쉬운길! 행복호르몬 쏟아짐
● 태양오로라 명상 (10분) : 자신의 찬란한 오로라 즉석체험
● 절교육, 절수행점검 (1시간)
● 행선, 와선, 도인체조 명상 (1시간)
● 수행법문 (30분)
마음의 구조와 작동원리, 수행비전, 심신건강원리
※ 수행중 숨을 어깨, 가슴으로 역호흡하면 머리와 몸에 병이 온다
▶ 청견스님 직접 수행 지도
▶ 시간 : 매주 화 ~ 일 오전10시 ~ 오후 4시(월요일 휴무)
▶ 비용 : 무보시 원칙, 자율보시 가능
▶ 주소 : 대구 수성구 매호동 1344-23 다비치 5층
지하철 2호선 신매역 1번출구 1분
수성 I.C 5분, 경산 I.C 10분
☎ 전화 :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천도
영능력개발과정 전수자모집
전수내용
❶ 그 자리에서 환자의 몸을 통한 빙의 일반병 확인 하는 방법
❷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영가의 대화법 (6하원칙 대화법)
❸ 사주와 전생의 수행능력과 빙의 영혼 구별법
❹ 고혈압, 당뇨, 아토피, 심혈관질환. 다이어트의 치유법, 영적인 질환은 冷氣 (냉기)
(스님, 신도분, 종교인,누구나 환자 상담시 2개월 치유프로그램 시행)
❺ 몸, 마음, 정신, 영혼의 작용력 이해, 영가 빛 천도법
❻ 과학적인 오오라장을 통한 빙의 수준의 이해
◆저급빙의 – 육체적인 질병을 통한 빙의 영혼의 고통 호소
◆중급빙의 – 마음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을 통한 방황과 혼돈
◆고급빙의 – 삶의 목적과 영혼의 목적 의식에 따른 방황
❼ 인간의 속마음을 읽는법 (인체전기장을 통한 과학적인 방법)
◆수강자 – 스님. 대체의학연구자, 종교인, 영적인 현상을 이해 하고자 하는 분. 삶의 목적의식을 찾고자 하는 분, 깨달음의 이해.윤회의 법이해 이론, 책자(전수용) 실습 – 강의는 수강자와 협의 후 결정
❽ 효소찜질 : 사찰내의 난치병,빙의 환자치유, 목적 설치 상담
■ 보시금은 영혼 확인 상담비 : 십만원
전수료는 협의
풍운 합장
인체전기파동원 (고덕선원)
문의전화 : 010-9242-5259
오시는길 :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642-21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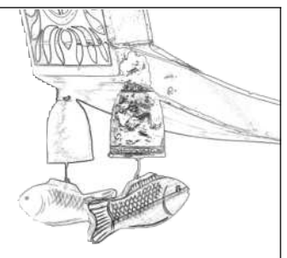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지혜로운 이는 힘써 노력하고 주의 깊게 마음 챙기며 절제하고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 자신을 의지처로 만들어야 한다.
홍수가 덮칠 수 없는 안전한 섬으로.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정확한 방편술 (비법)을 출판하였습니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시골 자그마한 암자에 불가사의한 기적이 일어나다

관세음보살 화신이
실제 현실에 나투시다
관세음보살 화신
전시관 창건불사
인연 접수합니다
금재선원 010-2255-7389

범음범패학인모집(무료)

불교전통의식을 꼭 배우고 싶은분들을 위해 무료로 봉사하고자 하오니 종단 승속에 관계없이 참여바람
• 수행기간: 1년(매주1회 3시간)
• 수행과목: 천도재,49재 의식
무등범음범패보존회
연락처 : 061)371-3135
010-5919-313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원합니다)
02)917-3363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사주 · 인생상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53)244-9995
010-3677-3845 보성 합장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 · 관음춤 · 지전춤 · 살풀이 · 오행춤
반야용선춤 · 길배춤 외 기타 의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종무소 총무스님, 기도스님, 관리처사 모십니다

(40-50대, 경북문경)
010-8819-8988

사찰, 포교원 공양주(전문소개)

포교원(임대)건물
- 서울 화곡동 소재(신설장소)
- 2층 30평, 가격은 협의함
- 건물주가 불교신자로서 운영에 적극 협조 할것임
010-5381-1419

제주도 한라산 영실 적멸보궁 존자암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스님 한분, 사무장 두분 식사준비 몸과 마음을 청정도량에서 가꾸세요

010-3639-8500

바닷가 전경이 아름다운 절에 여(女)행자님을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016-562-6677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시설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시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립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대주스님의 영기수기도

• 영기수란? 몸속의 사기를 몰아내며 天時地財를 불러드린다.
☎ 032)664-0048 / 011-741-0867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신심있고 참신한 공양주 구합니다

40-50대의 시봉 겸 살림 도우며 스님 보필에 힘써 줄 평생에 사찰에 의지하며 불심깊은 보살님을 찾고 있음. 급여 및 퇴직 노후대책도 보장함. (사찰환경 답사 후 상담 결정함, 단, 답사할 사람만 전화요망, 60대는 전화사절함) 지장보궁 내원암
경북예천 054)653-1180
010-6353-118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6575-1719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강력한 삶의 변화 원네스 치유명상

1 가족세우기 지도자 과정(참관가능)
* 일시 : 매달 2일간, 토, 일 진행 합니다.
* 부모,자녀,부부관계와 조상, 무의식 치유
2 원네스 깨어남 힐링명상(무료체험하기)
* 세계적인 치유명상, 강력한 삶의 변화
*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네이버카페 - 원네스 행복한 가족세우기
신청문의 :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목재 필요하신 분

• 목재 : 법당 50평 지을 수 있는 양 / 큰기둥 6개, 도리(기둥감), 60여개(육송), / 서까래 600-700개(원목 육송)
• 가액 : 8천만원, 나무량 6만재
010-3112-8732
경남 산청군 금서면 오봉리 6번지 화림사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다음카페 "연꽃마을 복지관" 검색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914번지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영가 찾는법 강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첩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기동법화사
• 주 지 : 묘정(妙精) 조필순(曺必順)
•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682-1

위 인과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28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용지사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72-1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귀중

영남 범음.범패 학인모집

영남 범음. 범패 염불원에서
2014년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교의식, 작법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실용의식 : 천수경, 상단, 각단 예불, 천도재, 49재, 모든의식
◆ 작법무 : 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 교육과정 : 6개월 과정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대상 : 승,속 관계 없이 가능함
◆ 개강일시 : 2014년 4월 17일 개강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224-2 해원사
◆ 문 의 처 : 010-5065-5690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 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문체부허가 제2012-43호)
영남 범음범패 염불원장 재봉

반드시 발복 흥성하는 혈맥생기터

양택, 음택, 길흉 출장감정 상담,
주술법 도통, 이장 상담

물은 강길따라 흘러 바다를 살리고,
산은 맥따라 혈 맺어 사람을 구하는 도다!

• 명당은 땅속 혈맥 갖춰야 진터 (태극상)
• 맥과혈 짚어내는 비술득통 (백점백혈)
• 도승들이 펼친 산수혈맥주술법 도통

• 흥망성쇠좌우 터 길흉감정
• 명당혈맥터 확보 인연점지
▸ 절암자, 주택산장, 사업장, 묘지, 가족납골수목장 등

명당은 반드시 3-5년 안에
발복되어야 진혈이다

※ 태극서린 혈맥터에서 인물나고, 부자되고, 가문이 번창한다.

덕숭 산승 휴담
010-4600-7399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아라한은 항상 노력하는 것을 힘으로 삼는 다.
그리고 부처님은 대자비를 이루어 자비 로써 힘을 삼는다."

- 잡아함경 -

사 찰 (급) 안 내

아름다운 명상의 집(토굴)
- 위치 : 경남
- 총부지 : 970평
- 건물 : 4동
- 양도금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신도시 10분거리
- 대지 : 1,350평
- 건물 : 33평,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방12개
- 버스주차장 완비, 산세수려함, 계곡물 철철
- 은행안고 4억 인수

※ 전국 사찰 30년 역사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만덕동, 다산타워 505호)

사찰전문 연산 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863-6622 (대표: 김의순)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 사찰
- 목조법당 90㎡, 요사채 100㎡
- 구요사 100㎡, 토지 3,000㎡
- 소나무가 받쳐주는 사찰
- 50년운영하였으며 텃밭 있음
- 양도금액 : 2억원 조정불가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아파트 상가 2층
- 약 60평
- 시설환경 특 A급
- 가액: 보증금 1천 월 45만원
- 시설비 2300만원(조절불가)

010-7733-01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도천동 도리1길 부근
- 종교부지 800평, 산 812평, 전 350평,
- 법당 21.8평, 요사채 21.5평, 삼성각 2평
- 가액 : 6억

055)645-917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가능
-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시사찰
- 대지 : 70평
- 법당 : 40평,지하철10분
- 요사 : 100평,공원,바다조망
- 매가 : 7억5천,위치최적
- 위치 : 서울시내산밑
- 대지 : 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매가 : 6억

※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운영,구하는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대표: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사찰부지, 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낭산면 호암리 241
- 대지 : 163평, 법당 10평, 방4개
- 수세식, 현대식주방, 세간일체 양도함
- 법당앞 정원에 5층석탑, 2M석불봉안
- 스님 건강상 싼값에 양도하오니 몸만오셔요
- 가액 : 5천 3백만원

010-8902-7618

조용한 토굴 안내

-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 실평수 315평, 건물평수 약 11평
- 조립식 컨테이너건물로 내부에 법당, 주방, 세면실, 방 모두 갖추어져 있음
- 유실수가 다량있으며 주위에 민가가 없는 한적한 곳임
- 가액 : 4,500만원 (도로, 전기, 자가수도, 인터넷 가능) 가격조정불가

010-5269-416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229
- 대지 : 261평방미터(뒤산 국유지사용)
- 건물 : 컨테이너스레트지붕 3×9 1동
- 큰방1, 부엌1, 온수배관
- 현장방문후 마음에 드시면 전화주세요
- 가액:1천 5백만원

010-6536-3504

사찰(암자)안내

- 위치 : 충남 논산
- 천안, 논산고속도로(세종)
- 서논산 IC 10여분
- 대지 약 130평
- 텃밭, 용왕당
- 건물4동(법당,산신각,후원,요사)
- 가액: 1억 2천만원

010-5338-4467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 여수, 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12억 8천만원

010-6898-9114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반송동 소재
- 5층 중 3층, 33평, 법당 20평,
- 삼존불, 칠성, 산신, 신중 관음소불 100불, 방1, 주방, 실내화장실
- 집기일체 준비되어있음
- 가액 : 1. 500만원 30만원 2. 1,000만원 25만원 시설비 1,300만원(조절가능)

010-5541-2378

문경 토굴터 안내

- 위치: 경북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 154-4
- 문경 IC에서 10분, 문경온천에서 5분거리
- 면적 225평
- 소나무숲 전원주택 부지로 현재 10여동이 입주한 상태
- 가액 : 4천5백만원(평당 20만원)

010-8555-448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 신축사찰
- 대지 250평
- 신축법당(20평) 2011년 준공 신축요사채(34평) 2012년 준공
- 대전에서 15분거리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486-127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마산 3층 건물에 3층 (160평)
- 포교원 10년 한 자리
- 삼존불,후불탱화,법당, 종무소, 방 4
- 화장실(실내 1, 실외 2), 법당과 모든 방에는 난방필름 되어 있음
- 시설완비, 불사소임관계 부득이 양도
- 옥상사용 주차장완비 일체민원없고 조용함
- 보증금 : 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협의
- 바로 법회가능

055)221-518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상사
- 법당 10평, 친견실 10평
- 공양간 16평(옥상사용)
- 주차용이, 아파트밀집지역
- 보증금 천오백 월세 90만 시설비 2,500만원 법당내닫집
- 집기모두 새물건임

010-7236-180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울산시 중구 번영로 613번지 3층
- 43평, 삼존불, 산신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40만원

011-850-968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동해시내 중심지역
- 상가 2층 55평
- 언제든지 법회 가능
- 보증금 : 2천만원 월66만원 시설비 별도 상담 요망
- 스님건강상 급 안내

010-9018-6656
033)533-9947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 대지60평, 건평 1층 30평, 2층 법당 27평
- 석불, 석등
- 가액 : 2억9천만원

010-3695-4575

암 자 안 내

- 위치 : 팔공산 갓바위 바위 입구, 주택독채
- 법당, 산신각외 시설완비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세 23만원 시설비 1,000만원(절충가능)

017-206-6727

사 찰 안 내

- 울산시 울주군 (신복로타리15분거리)
- 건평180평, 대웅전(삼존불) 25평, 지장전, 삼성각, 공양간 외 방 8개, 이쁜 용왕당 연못있음
- 가액 : 보증금 4천만원, 월 30만원 (인테리어되어있음)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0-4855-7205

포교원안내

- 위치 : 1층 경남 김해시
- 법당 : 오존불, 48평
- 시설 : 쑥뜸찜질방 1개
- 주차 : 3대 가능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전세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9376-7242

사찰 터 안내

- 좌청룡 우백호가 살아있는 소쿠리터
- 갓바위뒷편 영천신령면 1066번지의 5필지
- 논 약3천평 내외 성토작업 완료 가옥 60평
- 마당앞에 계곡물이 흐르고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가액 : 4억 5천만원

010-6253-3107
(철호스님 합장)

별 장 안 내

- 위치: 부산 최고의 명당터
- 사찰, 포교원, 갤러리 요양시설 최적임 (불사 크게 일어날 "터"입니다)
- 부지 3750㎡(구 1,134평)
- 가액: 65억
- 연락후 방문해 주세요

(주)금호부동산
051)861-2233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사 찰 안 내

- 위치: 김해 인제대 인근
- 대웅전, 산신각, 종각, 석탑
- 요사채, 방 4
- 대지 500㎡ • 건평 215㎡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3억(융자무)

(주)금호부동산
051)861-2233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 총대지 : 156평
- 법당, 요사채 3
- 가액 : 2억(절충가능)

011-540-6549
010-7169-1399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동
- 2층 25평 삼존불
- 몸만 오시면 됨
- 방편있으신 스님 포교 최적지 임
- 가액 : 9백 5십만원, 월 15만원

010-3765-7386

사 찰 안 내

- 위치: 원주 IC입구 대도로에서 200m지점 교통편 시내버스 5분 간격으로 있음
- 2층 단독주택 도깨비터 심야전기 방음완벽 소각장 설치, 마당있음(주차가능)
- 1층임법당 - 에어컨설치 방2개 거실, 주방, 화장실 1층 요사채 - 원룸, 주방, 화장실 2층 삼성각 방1개, 화장실, 에어컨설치
- 가액 :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200만원 절충가능!

033)735-5943
010-6440-594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동부리
- 3층, 평수 49평
- 보증금 5백만원, 월 25만원
- 시설, 비품비 3천만원

010-2304-764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교보생명 옆, 울산시청 앞
- 4층 건물 중 3층
- 법당1, 방1, 공양간1, 화장실
- 총 50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8928-9494

서울 최고의 명당수행터

- 삼각산보현봉 전체산야가 펼쳐보이고 기를 받는 서울중심의 명상치유터
- 위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삼각산자락 큰스님 수행터(조계사 20분거리)
- 천혜의 힐링산책로 품고있는 위치
- 실건물은 약30평, 한옥식 단독주택임 이용하는 토지는 약 300평 이상임
- 가액 : 3억2천 직접 방문요

010-8800-3222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안평면
- 대지 94평, 건평20평, 황토집(법당, 방2칸)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3,500만원

010-3911-3646

포 교 원 안 내

- 부산 가야초등학교 정문앞
- 4층건물에 2층, 20평 철학관도 호조건
- 삼존불, 후불탱화, 방2, 주방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3천 3백만원 월세없음 시설비 5백만원

011-9308-085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시장건물 4층
- 평수 : 약50평 및 계단 옥상사용
- 삼존불, 소불 600외 탱화일체
- 보증금 1,000만원 월77만원 불사금 2,700만원
- 경남 산사 불사 완료 관계로 이전

010-9296-604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아양로 15길 15 대구 파티마 병원 옆
- 1층 약 25평
- 관음보살님2자1위, 소불 10위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700만원

010-8786-6148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고려대 사거리 부근
- 방3, 거실, 3층, 도로변 임법당
- 가액 : 500만원 / 40만원 시설비 400만원

02)6085-393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동남구 동면 천안 목천톨게이트에서 10분거리 진천에서 10분거리
- 대지80평, 텃밭 330평 정원도 완벽함
- 2층 법당30평, 아래 요사채 별장으로도 적합
- 가액 : 2억 6천만원

010-3723-6640

남도 최고 기도도량 안내

- 위치 : 전남 목포시 유달산 공원내 1등 바위 밑
- 법당(대웅전), 요사채, 창고,
- 문화재-조선중기 석불 1점, 집샘 1점, 주차장에서 5분거리(바로 법회 가능)
- 점유부지 400평
-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2억 5천만원

010-2644-040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전용면적 : 90평(법당40평, 방3, 다용도실 세면실2개, 다실1개, 주방, 접수실)
- 시설 : 환경, 위치, 특 A급, 바로 법회 가능
- 가액 : 1. 보증금 5천만원 월260만원 2. 4억 5천만원, 시설비 4천만원 (답사후 절충)

010-9270-863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재래시장 앞 버스정류장
- 2층 25평. 공양간 방 1
- 3층 25평, 법당(삼존불), 방 1 옥상, 옥탑방 1
- 가액 : 보증금 1천원, 월 4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0-7139-55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청주시 남주동 가구거리
- 3층 건물중 3층 80평, 시장이동 인구 10만
- 최신시설, 심야전기, 60평, 요사채20평
- 요사채 거실, 욕실 3개, 방5개 큰방주지실 집기시설 모두포함 1,500만
- 시설집기 1억 들어갔음. 꼭하실분만 연락
- 스님 운반제작
- 가액 : 전세 5,000만원이나 보증금 3,000만원 월50

010-5236-7310
010-2702-279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신림동 3층 건물중 2층
- 석가모니, 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 외 방1, 주방1, 화장실1
- 약 30평 도심속의 포교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시설비 3,300만원, 월 77만원 시설비(답사후 절충가능)

011-309-3535

전통사찰 안내

- 위치 : 남녘 낙동강 기슭 명산
- 하루종일 태양이 지지 않는 명지
- 캠프카공원옆, 60번시내버브 종점 150미터
- 사찰진입로 길2개, 대웅전1, 산신각1, 집무실1, 공양간1, 방6, 창고3,해우소1, 사무실1, 주차장 산 절부지 2500평
- 안에 밭500평, 100년 넘은 금동지장보살
- 주지스님 꼭 하실분만 연락
- 가액: 2억

010-2670-40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 대지 324평, 요사+인법당 40평, 창고40평, 산신각
- 건강상 급 안내
- 가액 : 일억원

010-2008-03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충무동 교차로 주변
- 약 82평(법당, 산신당, 방3개, 공양간1)
- 5층 건물중 2층
- 지하철(자갈치역) 5분거리, 버스정류소 2 ~ 3분거리
- 보증금 : 2천만원, 월 66만원 시설비 2천9백만원(절충가능)

010-3869-6799

경남에서 포교하기 좋은 오래된 사찰

- 위치: 마산에서 10분거리
- 목조 토기와 25평
- 요사채 35평, 대지 200평, 산신각
- 전망 최적
- 가액 : 3억

010-5494-64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743번지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대지175평, 뒷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아늑하고 편안한 도량
- 가액 : 2억

054)776-5482
010-5439-123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동남구 동면 천안 목천톨게이트에서 10분거리 진천에서 10분거리
- 대지80평, 텃밭 330평 정원도 완벽함
- 2층 법당30평, 아래 요사채 별장으로도 적합
- 가액 : 2억 6천만원

010-3723-6640

남도 최고 기도도량 안내

- 위치 : 전남 목포시 유달산 공원내 1등 바위 밑
- 법당(대웅전), 요사채, 창고,
- 문화재-조선중기 석불 1점, 집샘 1점, 주차장에서 5분거리(바로 법회 가능)
- 점유부지 400평
-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2억 5천만원

010-2644-040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전용면적 : 90평(법당40평, 방3, 다용도실 세면실2개, 다실1개, 주방, 접수실)
- 시설 : 환경, 위치, 특 A급, 바로 법회 가능
- 가액 : 1. 보증금 5천만원 월260만원 2. 4억 5천만원, 시설비 4천만원 (답사후 절충)

010-9270-863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재래시장 앞 버스정류장
- 2층 25평. 공양간 방 1
- 3층 25평, 법당(삼존불), 방 1 옥상, 옥탑방 1
- 가액 : 보증금 1천원, 월 4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0-7139-55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청주시 남주동 가구거리
- 3층 건물중 3층 80평, 시장이동 인구 10만
- 최신시설, 심야전기, 60평, 요사채20평
- 요사채 거실, 욕실 3개, 방5개 큰방주지실 집기시설 모두포함 1,500만
- 시설집기 1억 들어갔음. 꼭하실분만 연락
- 스님 운반제작
- 가액 : 전세 5,000만원이나 보증금 3,000만원 월50

010-5236-7310
010-2702-279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신림동 3층 건물중 2층
- 석가모니, 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 외 방1, 주방1, 화장실1
- 약 30평 도심속의 포교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시설비 3,300만원, 월 77만원 시설비(답사후 절충가능)

011-309-3535

전통사찰 안내

- 위치 : 남녘 낙동강 기슭 명산
- 하루종일 태양이 지지 않는 명지
- 캠프카공원옆, 60번시내버브 종점 150미터
- 사찰진입로 길2개, 대웅전1, 산신각1, 집무실1, 공양간1, 방6, 창고3,해우소1, 사무실1, 주차장 산 절부지 2500평
- 안에 밭500평, 100년 넘은 금동지장보살
- 주지스님 꼭 하실분만 연락
- 가액: 2억

010-2670-40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 대지 324평, 요사+인법당 40평, 창고40평, 산신각
- 건강상 급 안내
- 가액 : 일억원

010-2008-0377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8505-2032

현존수업

마이클 브라운 (저널리스트 · 남아프리카공화국)

〈8 · 끝〉 나는 지금의 나에게 감사한다

멈추어 호흡하고 순간의 울림에 집중하라

목적을 가지고 살기

당신은 삶의 목적을 '행위를 통해 달성하는 무엇'이라고 믿고 있다. 당신은, 자기만의 소명과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면 삶의 균형과 조화와 충만감을 느낄 것이라고 믿는다. 당신은 이렇게 자기 삶의 목적을 발견하면 평화가 찾아오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살아 있는 목적이 자신이 하는 일(행위)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래된 신념 체계 일부로 아동기에 생긴 오해이다. 그 신념체계는 당신 이전의 무수한 세대로부터 당신에게 전해져 내려와 각인된 에너지이다.

이런 오해의 근본원인은 간단하다. 바로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현존으로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어릴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불편하게 여긴다. 이는 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에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을 찾아 나서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의 모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참된 현존으로부터 관심을 돌려 외부에서 '해야만 할' 일을 찾기 시작한다.

부모님은 아이에게 이렇게 묻는다. "넌 커서 뭐가 될래?" 하지만 이 질문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당신은 이 질문에 정답을 제공하는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야만 어릴 때 받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당신은 끝없는 '행동'에 몰두하게 되고, 이것이 당신의 성인기 삶의 경험이 된다. 당신은 성공을 통해 자신이 살아 있을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 이미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생계를 잇게' (earn a living)해줄 수 있는 삶의 목적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때 당신이 실제로 구하고 있는 것은 '사랑을 얻는' (earn a loving) 것이다.

처음부터 현존 수업 과정은 당신에게 '멈추기를' 요구한다. 멈추어 호흡을 연결시키고, 현 순간이 당신에게 주는 울림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에 의식적으로 응답하게 한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미 완전하고 완벽하다. 당신이 하는 어떤 행위도 이미 있는 그대로의 당신의 모습을 더 낫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당신이 '되어야만 할' 어떤 것도 없다. 단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의 현재 경험에 현존하기만 하면 된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현존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오래전에 각인된 에너지를 통합할 때까지, 당신은 행동과 참된 현존 사이의 간격 속에서 길을 잃은 채 무의식적 반응의 세계를 계속 헤매고 있을 것이다. 자신을 멈추어 호흡을 연결시킨 다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느끼기 전까지 당신은 경험 속에 고립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릇된 믿음을 붙들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참된 현존을 느끼면, 당신에게 이미 주어진 평화의 울림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은 평화를 잃지 않는다.

'알아봄'의 가치 알아보기

당신이 좀처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당신의 창조적 능력 가운데 하나는, 당신이 어떤 대상에 무조건적인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은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커진다는 사실이다. 현존 수업의 맥락에서 알아봄(appreciation)이란 단어는 '무조건적인 주의를 기울여 그것의 가치를 알아봄으로써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더 커지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현존 수업에서 당신은 사랑의 마음으로 현존에 대한 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현존을 알아보도록 권유받는다. 또한 외부적으로 표현된 현존의 모든 측면들도 알아보도록 권유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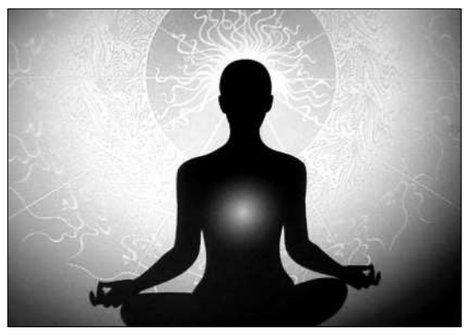
생계 잇기위한 삶의 목적 찾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현존에 몰입하라
나와 세상의 간격 좁히기 시작하면
모든 자원이 일거수일투족 도와줘

이 알아봄을 통해 당신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현존의 속성들을 더 잘 자각할 수 있게 된다. 곧 평화, 순수, 무조건적인 사랑, 존재하는 모든 것과의 의식적인 하나됨을 말이다.

무조건적으로 현존을 알아봄으로써 당신은 행위만을 중시하지 않고 이미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에 더 충실할 수 있다. 이런 의도를 가지면 살아 있는 매 순간마다 간격을 좁혀갈 수 있다. 또 간격의 공간에서 만나는 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사항이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현존을 알아봄으로써, 당신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물을 이 간격을 좁히는 데에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알아봄이라는 단순한 도구를 가지고 간격을 좁히는 선택을 내림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끝없는 경외감으로 안내해가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된다. 당신은 '하나된 장이 지닌 자연스러운 성향이 바로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진심으로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사물들'을 간격을 좁히는 데에 사용하고자 하는 순간, 하나된 장의 모든 자원이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느끼는 불편과 혼란, 결핍의 경험, 외로움, 두려움, 분노, 슬픔 같은 것이 모두, 우리가 서로 분리돼 있는 듯이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하나된 장은 그러한 행동(분리된 듯이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돕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된 장은 참되지 않은 것을 돕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당신은 피와 땀과 눈물로써 이 환상을 지속시켜왔다.

당신 앞에 놓인 과제는 간단하다. 당신은 세상이라는 '마트'에서 주의를 거두어 '계산대 직원'의 눈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현존을 알아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말이다. 그것이 진실임을 느낌으로 느껴보라.

모든 사람에게서 현존을 알아보겠다는 의도를 내는 것은 곧 '근원'의 눈을 들여다볼 기회를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근원은 우리에게 윙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당신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가슴으로 느끼면서 공유된 하나의 울림 속에서 춤추는, 한 몸 안에서 모두 연결된 세포들임을, 하나의 정신적 연결망임을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현존을 불러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 당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고도–당신은 전혀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수히 다양한 뜻밖의 방식으로 현존이 깨어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하나 되는 경험을 많이 해나갈 수록 당신은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알게 된다. 또한 다른 모든 생명체와 함께하는 경험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현존의 독특하고 특별한 표현임을 알아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된다.

자각의식이라는, 하나된 장 안에서의 현존 체험이 쌓여가면 당신은 이 만남의 기쁨을 남에게, 어떤 육신(some body)에게 설명하려 들지 않고 그저 자기 안에 갈무리해 소화시킬 수 있게 된다. 하나된 경험을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경험이다.

축하드린다! 이것으로 현존수업이라는 10주에 걸친 당신의 체험 여행이 마무리되었다.

정리=이나은 기자

이 글은 마이클 브라운이 쓴 〈현존수업〉(정신세계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진동하는 자각의식에 의식적으로 다가가기

현존 수업을 통한 당신의 체험여행을 모두 마치면 당신은 이렇게 자문하게 될 것이다. '이젠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진동하는 자각의식에 의식적으로 다가가기'라 부르는 나날의 훈련법을 당신과 나누고자 한다. 이 훈련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다면 날마다 이 훈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권한다. 이것을 삶의 근원점에다 자신을 조율시키는 간단하고도 실용적인 방법이다. 삶의 근원점이란, 당신 자신과 모든 '창조물'들 속을 관통해 흐르고 있는 진동의 흐름이다. 이 도구는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경험이 그 통일된 근원으로부터 외부로 펼쳐져 나오는 방식을 모시고 받드는 인식방식이다. 이것을 날마다 행하면 자각의식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

△1부

1. 바닥에 가부좌를 하거나 의자에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허리는 곧게 펴고 몸을 이완시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한다. 몸이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해주라.
2. 수행이 끝날 때까지 눈을 뜨지 말라.
3. 15분 동안 호흡을 연결시켜라.(현존 수업에서 '호흡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들숨과 날숨 사이에 중간 휴지 상태를 두지 않고 호흡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신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해 호흡하라.
5. 되도록 코를 이용해 호흡한다. 코가 막힌 상태라면 입으로 들숨과 날숨을 들이쉬고 내쉬라.
6. 끊임없이 연결시킨 호흡의 리듬에 맞추어 속으로 이렇게 되뇌라. "나는 지금 여기 이 안에 있다." "나는"(들숨) "지금"(날숨) "여기"(들숨) "이"(날숨) "안에"(들숨) "있다"(날숨)

△2부

1. 15분 후에 입으로 최대한 숨을 들이쉬어 폐를 가득 채우라. 그리고 스물을 셀 때까지 (너무길면 더 짧게 해도 좋다)숨을 멈추라.
2. 입을 통해 숨을 내쉬라.
3. 다시 입으로 숨을 들이쉬고 스물을 셀 때까지 숨을 참은 다음 입으로 내쉬라. 이 과정을 세 번 반복하라.

△3부

1. 이제 호흡에서 주의를 거두어들여 '눈을 감고 현존할 때' 의식이 머무는 곳에 주의가 머물게 하라. 두 육안 사이의 조금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내면의 지점은 눈 중추(eye center)이다.
2. 눈 중추에 머물면서 "나는 지금 여기 이 안에 있다."고 5분~10분 정도 속으로 되뇌라.
3. 만약 주의가 되뇌고 있는 말로부터 다른 무의식적인 생각으로 달아난 것을 알아차린다면 부드럽게 주의를 되돌려 의도적인 되뇜을 계속하라.
4. 이 수행을 하는 동안 자각의식이 머물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지점을 알아차리라. 그것은 눈 중추의 의도적인 되뇜 속에 현존하는 것, 아니면 무의식중에 눈 중추에서 벗어나(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의 꿈속을 헤매는 것이다.
5. 이렇게 의식이 무의식중에 다른 곳으로 달아나더라도 개의치 말고 다만 그것을 관찰하라. 그것과 조건 없이 함께하라.

△4부

1. 마음속의 모든 되뇜을 멈추라.
2. 느낌과 직감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속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각을 알아차리라. 어떻게 인식되든 상관없이 이 경험의 느낌이 곧 진동하는 장과의 만남이다.
3. 몇 분간 이 진동강 경험의 느낌과 함께 앉아 있으라.

△5부

1. 전체 진동장을 의식적으로 느끼기를 멈추고 오직 '듣기'에만 집중하라.
2. 몇 분 동안 주변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청각적으로 그 소리들을 '받는 듯이' 들으라. 자신이 이 청각적 진동의 수신기인 것처럼 들으라. 어떤 소리든 상관없이 그것을 만유의 통일된 근원점에서 나오는 소리로 여기면서 이 모든 외부의 소리를 느끼라. 이 모든 외부 소리의 총합이 '신의 말'인 것처럼 여기라.
3. 이제 의식이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로부터 다시 한 번 내면의 현존 지점, 즉 눈 중추에 머물게 하라. 이번에는 눈 중추에 머무는 동안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무(無)에 귀를 기울이라.
4. 이 소리를 듣는 동안, 혹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동안, 주의가 눈 중추에 계속 머물게 하라.
5. 주의가 눈 중추에 머물며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의식중에 일어난 생각이나 외부의 소리로 달아났음을 알아차린다면 주의를 부드럽게 되돌려서 듣기를 계속하라.
6. 이 연습을 하는 동안 주의가 머무르게 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지점을 알아차리라. 그것은 곧, 눈 중추의 의도적인 귀 기울임에 현존하는 것, 아니면 무의식중에 눈 중추에서 벗어나(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의 꿈속을 헤매는 것이다.
7. 무의식중에 주의가 다른 곳으로 달아나더라도 개의치 말고 그저 그것을 관찰하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것과 함께하라.
8. 약 5분 동안 내면에 귀를 기울이라. 더 오래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9. 이 '귀 기울인' 상태, 이 '수신기가 된' 상태가 울림의 명상이다. '귀 기울임'은 원래 가슴이 진동의 울림을 느끼는 방식이다.

이 훈련의 효과는 '내면에서 무엇을 듣느냐'가 아니라 귀 기울인 상태에 계속 머무는 능력에 있다. 의식적으로 소리의 수신기가 되는 이 귀 기울임의 상태는 당신이 나날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의 통일된 근원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열려 있게끔 힘을 준다. 귀 기울이는 능력이 발달할수록 받아들이는 능력도 발달한다.

울림에 관한 이 훈련은 어떤 완성 지점에 이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근원점'으로부터 펼쳐져 나오는 인간의 경험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억지로 애쓸' 필요는 없다. 피할 수 없는 결과 속으로 편안하게 들어가 그것을 즐기면 된다. 애쓰지 않아야 애쓰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생겨난다. 이 훈련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줌으로 영원히 축복해주기를.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IC 부근
- 법당 삼존불 , 약사여래기도도량
- 완벽한 법당 시설, 즉시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 텃밭, 주차장 시설완비
- 가액: 1억 (절충 가능)

010-2575-9876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동 (놀이터시장 입구)
- 2층 건물 2층 법당, 방 2개, 20평, 시설 완벽
- 보증금 6백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 독채 : 방1,거실1,주방1 – 월세15만원
- 위치 좋음, 즉시 법회 가능

010-8872-132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 대지300평, 전450평
- 대웅전법당 25평
- 요사채 40평
- 급한사정상알림

010-4747-316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부전동
- 법당, 거실, 방 2, 주방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800만원(가격 절충)

010-6631-6426
051)808-634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 실평수 : 85평 (6층 건물 6층)
- 옥상 80평 사용
- 법당 : 50평, 친견실 1, 방 2, 주방
- 보증금 3,000만원 월 100만원

051)413-3318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3억2천만원

010-5550-9725/010-4001-8476
055)232-7151

별장같은 사찰 안내
- 위치: 충남도청10분 도립공원등산로
- 총평수1,020평(대지 190평. 전 830평)
- 황토건물 50평(법당 및 요사체1. 2층)
- 마당에는 400년된 느티나무 오래된 돌담, 연못 조경
- 옆 큰저수지, 자연경관 최고
- 가격 : 융자 2억 5천, 나머지 6억 3천

주인직접 010-9805-5528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주택 독채
- 대지 : 80평, 포교원 월세
- 집2채, 방5개, 욕실, 거실, 화장실2, 입식부엌
- 마당에 정원석 등 아주 넓음
- 법당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청동불상 포함 3,900만원 부처님 빼면 2,500만원

010-2251-3378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강남구 청담동 (7호선 5분거리)
- 2층건물에 2층 삼존불, 신중탱화
- 약 60평
- 가액: 시설비 2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130만원

016-9433-068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대지 : 21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80평
- 도시가스 취사난방 설치
- 가액 : 6억 9억(은행융자 3억원)
- 절충가능

010-6237-5964

사 찰 안 내(신축)
- 위치 : 경남 합천
- 면적 : 413평(계곡물 사철흐름)
- 법당 : 25평(동남간, 목조, 기와)
- 사채 : 25평(방2, 화장실2, 컨1동)
- 가액 : 융자3천안고, 2억2500만원

010-8517-8526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옥천읍에서 5분거리, 대전에서 10분거리
- 대지 505평, 1층 요사채40평, 2층 와가법당 20평(단청필)
- 옥외건물 20평(창고), 화장실, 샤워실, 창고 6평
- 수려한 금잔디 및 조경, 6층석탑 주변 팬션 및 별장있음
- 대전 영동간 4차선 국도 300M 접
- 가액 : 4억3천(조정가)

011-645-1361

토굴(급)안내
- 주소 : 경북 의성군 춘산면 옥정리
- 대지326평 법당.요사채.삼존불.지장.신중
- 칠성탱화, 방5개
- 정부지원금 5천만원가능
- 가액:7천500만원

010-4296-8200

암 자 안 내
- 충북 단양군 대강면 괴평리
- 법당 : 약10평, 산신각 : 1.5평 요사채 : 15평, 오래된터 암자
- (지도표시)경관 좋음, 뒤는 암석바위
- 교통편리 함, 합174평
- 가액 : 7천만원

010-3288-131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남해안 소재
- 토지 : 총 10,953평 (종교용지 430평, 임야 / 전 : 10,523평)
- 시설 : 총 6동 (납골추모관, 무량수전,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창고, 일반주택 등)
- 주차장 완비, 현재 추모관 성업중
- 양도가 : 3억 5천만원
-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문의 : 010-5155-1948

청 평 한 옥
- 대지 : 199평
- 건평 : 30평
- 방 3, 욕실 2, 거실, 주방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가액: 2억 7천 5백만원

010-9411-5302

사찰(전세)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
- 대지 210평, 건평 80평
- 법당완비, 시설완벽
- 7대 주차가능
- 가액 : 전세 1천만원
- 월세 120만원, 시설비 6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0-3193-3689

포교원(급)안내
- 울산 남구 신정 시장 입구
- 2층건물에 2층 평수 45평
- 법당 20평
- 공양간, 큰방, 작은방, 옷방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전세도 가능
- 시설비 : 700만원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9767-4119

갤러리 색즉시공



금강산 구룡연

'통일의 그날' 기다리며

양지바른 곳에서는 얼음 녹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바지락 댄다. 어느 가파른 비탈길에서 만난 북한 안내원에게 손을 내밀며 부축을 청했는데 처음엔 무표정하더니 나의 웃음 띤 얼굴에 동화되었는지 힘 있게 손을 잡아주며 "조심해서 내려 가시 라요" 라며 보여준 친절함에 잠시나마 겨레의 뜨거운 온정을 느꼈다.

스케치한답시고 일행 중 늘 말미에 떨어져 있어 뒤를 쫓아다니는 데 여념이 없다보니 삼선암 근처에서 "차 한 잔 팔아주시 라요" 애원하던 북한 여인을 외면하고 돌아온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린다. 어서 통일이 되어 남북이 하나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인다.



그림 · 글=임무상

나를 망치는 것은 내 자신의 '탐욕'

Buddha in Comic & Ani

⑦ 마나베 쇼헤이의 〈사채꾼 우시지마〉



미나베 쇼헤이의 〈사채꾼 우시지마〉1권 표지

사채로 대변되는 대부업은 이제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이 됐다. 현대인이 가장 많은 여가 시간의 도구로 활용되는 TV, 특히 케이블과 위성 방송에서는 언제부턴가 이 같이 세련된 대부업 광고가 많이 송출되고 있고, 지하철 광고로도 만날 수 있다. 심지어는 한 유명 대부업체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여자 배구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2~3년 전에는 사채를 다룬 동명만화를 드라마화한 '쩐의 전쟁' 공전에 히트를 친 적도 있다. 일본 정부의 사금융 제재로 사채 경기가 나빠지자 대규모 야쿠자 자본이 한국에 흘러들어와 한국 사채 경제를 장악했다는 믿기 힘든 루머도 이제는 기정사실화된 이야기가 됐다. 이제 대부업, 사채라고 하는 금융업은 이제 우리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상품이 됐다. 이를 통해 현대인들은 자본이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다는 명제는 날이 갈수록 현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 만화 '쩐의 전쟁' 을 말했는데, 만화 천국 일본에도 비슷한 주제의 만화가 있다. 바로 마나베 쇼헤이의 〈사채꾼 우시지마〉다.

한국의 '쩐의 전쟁' 이 평범한 인간이 사채꾼으로 입신양명하는 모습을 그렸다면, 〈사채꾼 우시지마〉는 자본으로 피폐해지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잔인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보여준다. 실제 〈사채꾼 우시지마〉는 인간의 탐욕과 그 폐해로 인한 파멸을 보여주는 일명 '시궁창 만화' 중에서 〈도박묵시록 케이지〉와 더불어 수작으로 손꼽힌다.

〈사채꾼 우시지마〉의 대략적인 이야기는 이렇다. 대부업체 '카우카우 파이낸셜' 에는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주부, 학생, 회사원 등 다양한 군상들은 대부분 도박과 여자,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돈을 빌린다.

일본의 법정 최고 금리는 24% 가량. 하지만 주인공 우시지마가 운영하는 카우카우 파이낸셜은 급전을 내주는 대신 특별히 '십오' 즉, 열흘에 50%를 받는다. 5만 엔 빌려주고 선이자 1만5,000엔에 수수료 5,000엔을 떼고, 1일 이자가 1만5000엔, 2일이면 원금회수, 받을 돈은 그대로 5만 엔. 말도 안 되는 살인적 금리지만, 우시지마는 아쉬울 게 없다. 급전을 요구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채꾼 우시지마〉는 절대로 사채업의 돈이 어떻게 흐른다, 어떻게 운영된다는 자세한 정보를 보여주지 않다. 도리어 채무자들에게 어떻게 돈을 회수하는 지에 중점을 둔다. 사실 사채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어떻게 빌려주냐' 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냐' 가 더 중요한 명제이기 때문이다. 제3자 입장에서 덤덤히 보여주는 회수과정에서 바로 '사채꾼' 의 공포가 있다.

사채꾼이 설치한 덫에 걸리는 사람들은 애초 현대 신용사회에서 탈락한 군상들이다. 허영심에 빠진 명품족 여성, 천재라고 생각하는 은둔형 외톨이, 깡 하나로 폼 나는 인생을 살려하는 양아치, 손쉽게 돈을

사채업자 주인공으로 내세워
'자본주의 디스토피아' 그려
탐욕에 허우적 대는 사람들
'안수정등' 의 비유가 연상돼

벌고자 하는 직장인 등은 곧 우시지마의 고객이자 노예가 된다.

우시지마가 자신의 고객(?)들에게서 돈을 회수하는 과정은 매우 가혹하다. 매춘, 마약, 구걸은 기본이고 인신매매도 서슴치 않는다. 애초 신용가치 제로의 인간을 교환가치 제로의 인간이 될 때까지 철저히 부려먹는 것이다.

노예들은 돈 앞에서 마음이 급해진다. 당장 그 돈이 없으면 큰일날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작 그 돈이 생긴다고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는 주인공 우시지마는 알고 있지만 채무자들은 모르는 사실이다. 애초 문제는 채무자의 탐욕과 허영이지만 노예들은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답을 한다.



〈사채꾼 우시지마〉의 한 장면. 우시지마는 사채를 회수하기 위해 신용제로의 인간을 교환가치 제로의 인간이 될 때까지 착취한다. 돈의 노예들은 자신의 허영과 탐욕에 빠져 우시지마에게 돈을 빌린다.

분명 탐욕은 우리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심신을 해치는 독(毒)이다. 〈사채꾼 우시지마〉에서 탐욕에 허우적 대는 군상들의 모습에서 〈불설비유경〉의 '안수정등' 을 찾아볼 수 있다.

황량한 벌판을 걷고 있던 나그네가 갑자기 나타난 성난 코끼리에 쫓기게 된다. 나그네는 넝쿨을 타고 우물로 피신해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한 순간, 우물 안벽에는 독사 네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고 아래에는 독룡이 나그네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나그네는 넝쿨을 의지해 버티고 있었다. 그 순간 흰 쥐와 검은 쥐가 나타나 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쥐를 쫓아야겠다고 마음먹은 찰나, 어디선가 떨어진 다섯 방울의 꿀에 나그네는 자신의 처지를 잊고 만다.

이 비유는 불교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지 보여준다. 나그네는 인생을, 성난 코끼리는 무상함을, 우물은 사바세계를, 나그네가 의지한 넝쿨은 인간의 수명을 의미하며, 이를 갉아먹는 쥐는 아침과 밤, 부질없이 흐르는 시간이다. 그런 와중 나그네의 얼굴에 떨어진 꿀 다섯 방울은 재물, 애욕, 수명, 음식, 명예에 비유된다.

〈사채꾼 우시지마〉에서 그려지는 채무자들은 인생을 담보로 '꿀' 이라는 '욕망' 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많은 재테크 서적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이 되라' 고 강조한다 . 하지만 재테크로 포장된 자본주의는 결국 많이 가짐으로서 주인됨을 이야기한다. 진정한 소유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큰 의미에서 '안수정등' 의 비유일지 모른다. 소비와 욕망의 꿀에 속아 진정한 삶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5번째 저서 출간!

신간!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4권 출간!
운문 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33종 65권의 저서 출간!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대행 스님

어떠한 거든지 거리낌없이 점프할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지난 호에 이어서)

죽는 게 뭐가 그렇게 원통합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기가 곤충인 줄 알고, 자기가 새인 줄 알고, 자기가 뱀인 줄 알고, 자기가 개인 줄 알고, 자기가 소인 줄 알고, 돼지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고통을 받지 않는다 이 소립니다. 도끼로 머리를 때려서 죽이고, 매달아놓고 태우고 이래도 자기는 즐겁게 생각을 한답니다. 왜냐? 그 모습을 하나하나 벗겨나가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건 줄 안다면은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엉뚱하게 사람 짓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이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대로 고양이 대접밖에는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깐 고양이가 고양인 줄 알아야만이 그 고양이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일을 크게 거스르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나 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때에 따라서는 주인을 살리는 수가 많습니다. 내가 주인의 그 모습과 행을 전부 배워가는데, 배워가고 있는데 내 스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만약에 개가 어느 집안에서 살아나갈 때에, 사람이 행동하는 거 사람이 말하는 거, 사람의 정신 두뇌에서 나오는 그 모든 전체를 자기가 배워가지고 나간다면 자기 스승 중에도 스승이다 이겁니다. 그 도리를 아는 개라면 반드시 주인을 스승으로 알고 주인으로 알고, 절대적으로 알고 자기 생명을 버려서라도 구합니다.

그와 같이 '오계'의 첫째, '생명을 죽이지 말라.' 이랬죠? 그런데 두 가지가 있죠. 배운 사람은 생명을 죽여도 살생이 되지 않고, 이 마음공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죽였다 이런다면 살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공부를 잘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관계상 용도에 따라서 부모가 돌아가시게 됐거나, 어떤 사람이 허기가 져서 뭐를 잡아서 먹는다 하더라도 금방 그 순간, 생명을 죽일 때 벌써 그 모습을, 무명을 벗기고 자기 속에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게 바로 거기다 맡겨놓으면은 그냥 사람으로서 화(化)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살생이 되지 않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너, 나니깐 그냥 살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깨달아서 하나로 돌아가고 하나도 공(空)해서 없는 도리를 알아야만이 너는 네가 있고 뚜렷하게 나는 내가 있고, 이런 뚜렷한 법칙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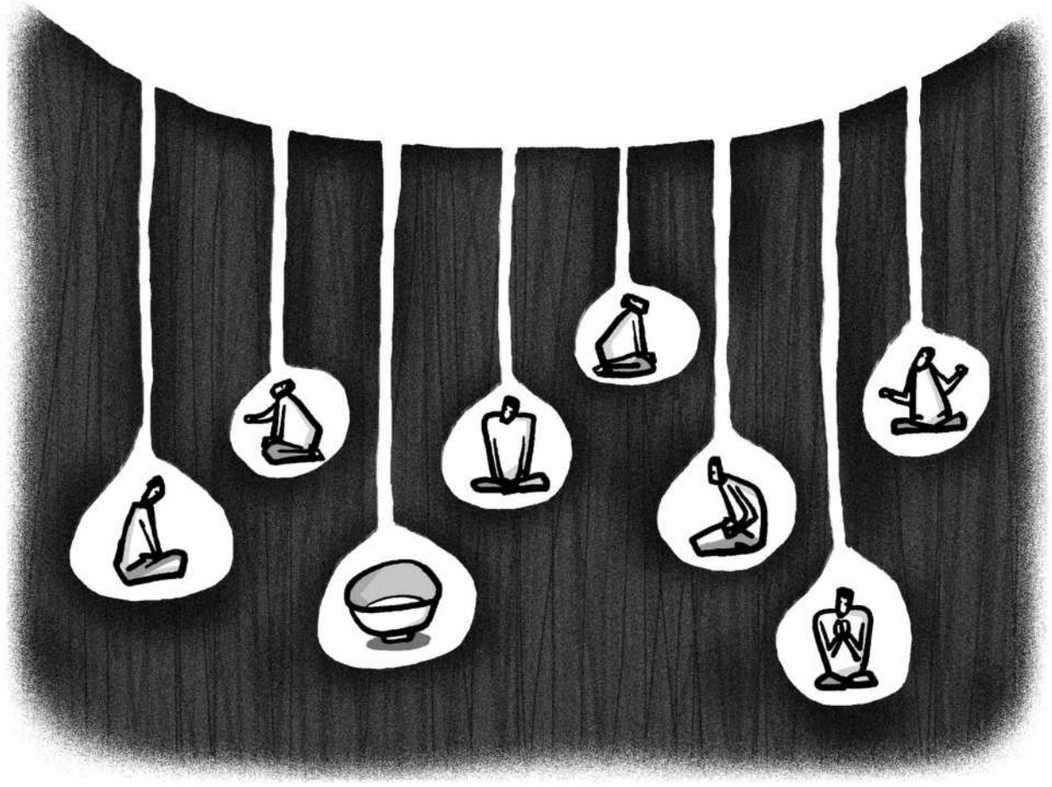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떤 사람들은 모두 몰라서 덮어놓고 그저 비구니는 비구니대로 비구니니깐 업신여기는데, 비구니 비구를 누가 낳았습니까? 모든 비구니 비구 또는 사부대중이 다 자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씨는 줬다 하더라도 이 산하대지의 밭이 만물만생을 다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해요? 어떻게 돌부리 하나라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풀 한 포긴들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곤충 하나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들의 분자니까. 이 도리를 역력히 아신다면 심성과학에서 천체물리학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잘 파악하고 공부를 해서 이 세상을 벗어나고, 이 세상에서 건지고 저 세상에서 건지고, 이 세상 저 세상이 따로 없이 아마 건질 겁니다.

우리는 조금도 빈틈없이 저 갈고리에 걸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기가 바다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듯이,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살 수 없듯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당신과 둘이 아닌 까닭에 나는 한 사이도 없고, 어떤 거를 집어서 나라고 할 수 없으니 나는 한 사이도 없다고 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길을 일러주시지 않았다면 반드시 우리가 지금도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거다 이겁니다. 역력히 지금도 그분의 마음은, 진리와 그분의 마음과 세상과 전부 일체 만물만생과도 더불어 같이 마음을 한마음으로 돌렸기 때문에, 지금도 진리는 여여하듯 부처님의 그 뜻과 말씀은 여여하다 이겁니다.

어디 가서 스승을 또 찾겠습니까? 팔만대장경이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고, 바로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써놨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그것을 잘 파악한다면, 바로 팔만대장경을 한 꺼풀 두 꺼풀만 제껴서 조목조목 본다면은 다 터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만 그냥 따라서 원숭이처럼, 그 말씀하는 것만 따라서 외운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예뻐할 리 없습니다, 절대로. '종자가 내 종자가 둘이 아니게 돼라.' 한 것이지, 허허. 그리고 '모든 게 둘이 아닌 도리를 알라.' 이런 것이지, 그 말씀을 그렇게 달달달달 외워서 이렇게 해서 공부하란 말씀은 안 하셨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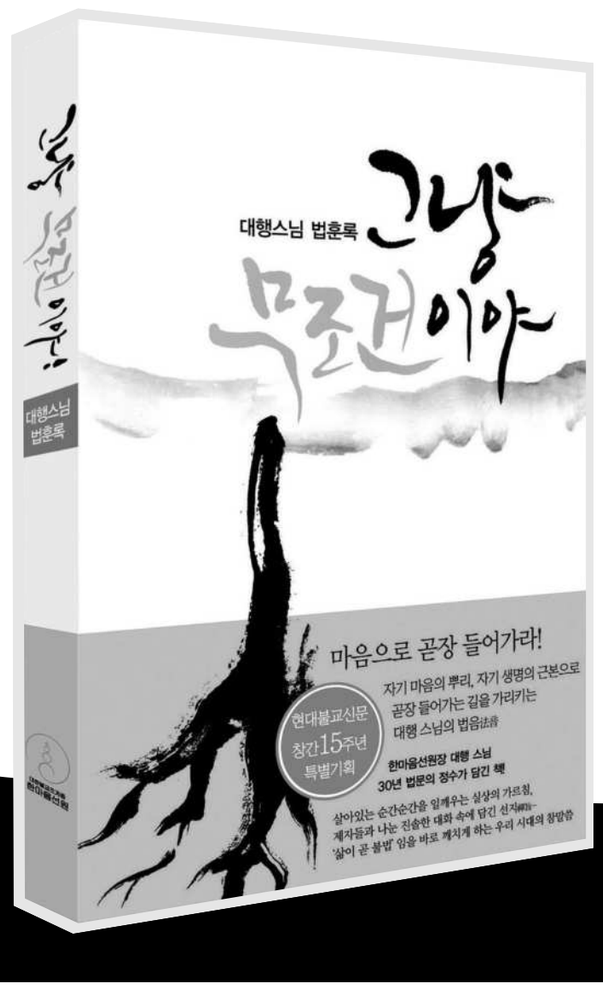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그러곤 그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나는 금강경 화엄경 이거를 몇 독씩이나 하고 이거를 잘 안다. 내가 이만큼 알았으면 됐지 뭐 걸릴 게 있느냐." 이러겠지만, 천만의 말씀! 화엄경이 이 세상 돌아가는…. 아니, 여러분 이런 소리 들었겠죠? 화투가 십이 개월까지 있죠? 하하하. 그것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아니, 이 세상 열두 달 돌아가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그대로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스님이 하도 정월에 심심하니깐, 그거를 한판 하자고 그래서 한판 하고 난 뒤에, "아이고, 화엄경을 디굴디굴 굴렸더니 속이 다 후련하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과언이 아니죠. 하여튼 어떠한 거든지 거리낌없이 우리가 점프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량과 지혜 물리가 터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 말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거듬거듬, 자세히 얘기는 안 했어도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죠? 뭐, 도리천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이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서 또 그런 지배자가 되고 지배자가 됨으로써…. 우리가 이 지상에 산신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사왕천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모습으로 다니면서 한다면 그게 될 수 있겠습니까? 모습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 이 모든 것이 표현하자면, 나는 공부를 여러분과 같이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름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짐작하고 아는 걸로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데서 만약에 원자에다가 입자들을 그냥 수없이 이 우주 공간에 있는 걸 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이름만 다르지 뜻은 다 똑같아요. 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다 내놔서 활동을 해도 줄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될 수 있으면 처음에는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모든 관습이나 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29면에서 계속

절대적으로 여기 여기만, 여기 자생중생들이 모인 이 세계만 믿고 모든 걸 '주인공의 뿌리에서 뿌리가 가닥가닥 헤아릴 수 없이 있는 이 자체 여기서 모든 게 나오는구나. 여기서 모든 게 드는구나. 나고 드는 게 거기구나. 그러니까 너만이….' 이렇게 해서 다 거기다 놓고 다, 자생중생들이 '아, 이거 마음의 선장에 의해서 모두가 돌아가는구나.' 하고 다 알았을 때, 그때는 털구멍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이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듯 다 이렇게 나가서 조절하고 다 이렇게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같이 돌아갈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미국에 아들이 사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곳까지 가서 자꾸 도와줄 수도 없고 이럭할 때는 여기서 딱, 내 마음에서 탁 나가면 벌써 여기서, 그걸 이름을 하자면 입자로서 그 활동을 하게 돼 있죠. 허허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입자로서 거기 가서, 입자라도 원자가 될 수 있고, 원자 속에서 입자가 나오고, 나온 그 입자가 바로 원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깐요. 일할 땐 원자가 되는 거죠, 그 속에 둘이 아니게 가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찰나찰나 원자에서 입자가 돼서 나가서 그쪽에 가서는 원자가 되고, 원자가 돼서 그쪽에서 그 뜻을 알았으면 '아, 야! 이거.' 그러면 또 전화를 해주고 아, 이러면은 자연적으로 공부가, 느끼고 체험하고 이렇게 되면 자연적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여의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이 정신계의 이 공부를, 마음공부를 아니 하신다면 앞으로 살기가 극난히 어렵다. 왜냐? 앞으로 물질세계의 발전은 고도로 진전이 되겠으나 물질세계의 공부를 하려면 이 정신세계의 공부가 없이는 물질세계도 광대하게 발전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드리면 또 헛갈리실 테니까 좀 더 잘 한 번,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재현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느끼고 이렇게 숭상하시도록 빕니다, 빌어. 하하하. 여러분은 배우신 분이 돼서 나보다도 더 아주 영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걸 지금 시대에 공부한 거기에 탁 물리를 맞춰서 '아! 그 말씀이 이런 거로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시겠죠? 왜, 왜 그렇게 흐릿합니까? 다 모자라는 게 있죠. 여러분은 정신계의 그 뜻을 잘 모르시겠지만, 정신계의 뜻을 안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 돌아가는 그 이름을 잘 모르고, 전부 이름을, 영어로다가도 해놓은 게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나도 까막눈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피차에 모르는 걸 서로 배우면서, 서로 도반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충전합시다.

그럼 질문할 사람 있으면 질문들 하세요.

질문자1(남): 마음공부를 하다보면은요, 상당히 의정이 많이 들 때가 있어서 마음공부 하는 데 방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는 의정이 생기면은 경에도 의지하지 말고, 타의에도 묻지 말고, 사량으로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의정을 좀 더 손쉽게라고 그럴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큰스님: 이게 '하지 말라.' 하면은 어폐가 있는 겁니다, 또 그것도.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그대로입니다. 경을 보지 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경을 보되 보지 말라고 그랬지, 누가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보되 보지 말라고 그랬죠.

질문자1(남):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큰스님: 네, 의지하지 말고, 어디다가에도 의지하지 마시라 이런 거죠. 그냥 보고 모든 걸 참작하고 먹을 건 먹고 버릴 건 버리고 자신이 그럴 일이지, 거기 관습에 이끌려도 안 되고 거기에 의존을 해도 안 되고, 집착을 해도 안 되고, 모든 거는 그저 공해서 찰나찰나 돌아갈 뿐이니까, 그걸 붙들고 늘어지면 고가 오히려 생기죠.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길이 바로 첩첩 그냥 쌓입니다.

질문자1(남):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한 번 세상에 나기가 그렇게 참 기막힌 인연으로 해서 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올 때 가지고 온 업이 또는 습이 살아가는 데 많은 괴로움을 줄 때, 그 습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탄생을 해서 나왔으니까 지금 살고 계시죠? 그런데 나온 자체를 형성시킬 때 자기 과거에 살던 영혼 자체가, 바로 뿌리가 그 어느 남녀를 빌려서 자기를 형성시킨 거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그놈이 다 하는 거니까 그놈한테다 생각을 해야죠. 그놈이 하는 거니까. 지금 껍데기가 하시고 계십니까?

질문자1(남):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그 습이 왔을 때 그 습이 빨리 없어져야만 마음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큰스님: 그러니까 한 군데다가, 용광로라고도 하고 그 주인공 뿌리라고도 하는 거기다가 그냥 모든 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몰락 그놈이 하는 거로구나. 그놈이 들이고 내는구나.' 이렇게 놓으면은, 그냥 몰락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거기다 놓고 굴려서, '아, 구정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거기니까 이 새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너뿐이다.' 구멍은 한 구멍밖엔 없으니까. 우리가 나오는 구멍이 어딥니까? 남녀를 막론해놓고. 자궁이 죠? 허허허. 자궁 한 군데서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자궁 안으로 도로 넣어야, 자기가 살고 있는 전체를 자궁 안으로 도로 집어넣어야 다시 정신계에 태어난다 이 소립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놈으로 해서 모든 게 들이고 내고 하는 거니까 그놈한테다 몰락,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렇게 따지면은 얼마나 수효가 많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효 많은 걸 몰락, 들이고 내는 거 몰락, 자기 이 몸뚱이가 움죽거리는 그 자체까지 전부 몰락 그놈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입력돼서 나오는 데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그 앞서의 입력한 거는 모두가 무너집니다.

질문자1(남):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올리겠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분별심을 갖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는 세계의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고나서 그 전에도 많은 고통을 일본으로부터 받았지마는 해방이 되고나서 지금 한 50년 동안 남북으로 갈려서, 지금 한 쪽은 핵을 가졌다 안 가졌다 하면서 상당히 세계가 어수선한데,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많이 마음속에 괴로움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남북에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 오백만에서 천만 명이 50년 동안 이렇게 서로가 그리워하면서도 지금 다시 전쟁 같은 그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저희 민족이 또 북한에도 많이 우리 불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평화롭고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불자들은 어떤 마음을 내야 될지 좋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어떤 마음을 일부러 내는 거는 아니지마는, 절실히 생각하고 마음내는 데는 금방 핵을 만들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 즉 말하자면 죽는 걸 겁내지 않는 마음 자세가 된다면 아마 빙그레 웃을 겁니다.

왜냐? 그 핵도 내 손아귀에서 놀고 있으니깐 말입니다. 아니, '나' 라 그런다고, 또 예수처럼 나를 믿으랬다고 그냥 예수만 잔뜩 믿고 돌아가듯이, 각자 '너' 라고 그런 건데 '나' 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 당신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내 손아귀에 있다고 한 건 여러분 각자 손아귀에 있으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힘이 여러분들 각자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 힘이 말해주는 거지 핵이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핵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약에 비행사가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사람 하나 딱 정신을 잃게 한다면은 그 비행기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그 핵도 아무리 우수하다, 아주 무섭다 이런다 할지라도 겁낼 게 없죠. 여러분이 왜 겁을 내야 합니까? 핵이라고 왜 겁을 내야 됩니까? 여러분은 우주 전체에 모두 직결이 돼서 상응하고 있고 공존하고 있는데 아니, 그 핵 그것을, 조그마한 요런 우리 반쪽 나라에서 만들어서 다 여기를 씌워서 죽인다 하더라도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겁낼 게 없기 때문에 씌워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테니깐요. 하하하.

질문자1(남): 네, 잘 알았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큰스님: 여기다가 하려고 그런다면은 그 핵이, 자기가 자기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핵이 날아서 달아나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염려 놓으셔도 돼요. 허허허.

질문자1(남): 저, 스님. 그런 염려보다도요, 우리가 이제 헤어져 산 것이 너무 긴 것 같이 생각돼서 이런 것이 빨리 합쳐졌으면 해서….

큰스님: 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한마디 더 해야 되겠군요. 이 지금 아래 위가 서로 교환해서 서로 잘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써 지금 밀물이 들어온다면 썰물이 되고 썰물이 들어온다면 밀물이 되고 이러듯이, 앞으로 닥치는 일이 아마 동이 터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힘이 있는 사람은 빙긋이 웃고 돌아 그냥 걸어가고,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하곤 그냥 뛸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애탄지탄하니 병들고, 또 애탄지탄하자니, '에이구, 죽을 때에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뭐 좀 재산이라도 있으면 쓰고 싶은 대로 쓰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 방탕해질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절대로! 내일, 있다가, 아니 일초 후에 죽는다 하더라도 사과는 심어야 되겠죠?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여러분이 나와 더불어 도반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내가 오늘 말해드린 뜻을 아주 깊이 생각하셔서, 이 지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무명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안 되고,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그 관습이나 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이 모든 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한데 모여서 내 몸뚱이가 움죽거리는데 들이고 내는 데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절대 내 자생중생들이 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나도 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 여러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들 우리 공부하시도록 하십시다. 생활공부 말입니다.

※위 법문은 1994년 4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건 그저 공해서 찰나찰나 돌아갈 뿐인데
그걸 붙들고 늘어진다면
오히려 고가 생깁니다.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길이 첩첩 쌓이게 됩니다.



천비록 天秘錄
(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 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사람의 비밀 天秘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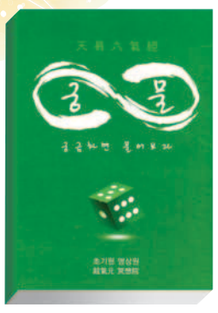
지비록 地秘錄
(수도사가 쓴 한인·한웅·단군 이야기)
대한민족의 잃어버린 역사와
뿌리를 찾기 바라는 마음으로
수도사가 쓴 대한민족의 고대
7,000여 년 역사이야기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도서구입문의 : 전화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
철도문고/불광문고/홍문당/보문불교/중앙출판/세원출판/처용서림
경주불교/영광도서/세기서림/홍지서림/탐라도서 등 절찬리 판매중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물어 알게됩니다



天易六氣經
궁물
궁금하면 물어보라

◆ 천역육기경은 우주삼원에서 받았습니다!
◆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 답답한 삶의 돌파구!

운기 · 사업 · 소원 · 결혼 · 매매 · 대인 ·
실물 · 가출인 · 출산 · 소송 · 여행 · 취직 ·
시험 · 이사 · 질병 · 지능 (직업)

이들을 알고자 하시면 육기주를 두 번 굴리세요.
문제에 답이 풀립니다!
누구나 쉽게
궁물할 수 있습니다.



"책" 궁물은 영원한 동반서!!!

주문처 : 1588-5654. 010-3743-9943
정가 10만원 / 계좌 : 농협 195-02-157774 박규화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며, 주문시 즉시 배송하여 드립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핵, 무기 아닌 '쟁기'로 사용하자"



송재운
실버타임즈 편집인, 동국대 명예교수

"어느 국가도 핵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핵 테러는 한번 발생하면 범세계적 재앙이 됩니다. 〈중략〉 현재 세계에는 11만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과 방사능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 물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의 도난과 분실, 불법거래가 이들에 한번 정도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입니다."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행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번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는 2010년 워싱턴, 2012년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회의다. 이 회의에 참가한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53개국으로, 이들 국가는 전 세계 핵물질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97%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이들 나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과 같이 "어느 국가도 핵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무기급 핵물질 제거 및 최소화' '핵물질 불법거래 차단' '핵물질 및 방사성 물질, 원자력 시설의 감소 강화' '핵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약 증진' 등을 회의 주제로 논의 했다.

그 결과 이 회의에서는 2년 전 서울 회의를 계승해 핵과 방사능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의 건설을 목표로 국제사회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또 국제핵안보체제 강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평화적인 목적으로 원자력을 개발, 이용하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 했다. 그리고 핵물질 방호협약 및 핵테러억제 협약 비준 촉구, 위험핵물질 최소화, 국제원자력기구(IAEA) 활동 지원, 산업계의 참여 촉진, 핵-방사능 물질 불법거래 차단 및 감식능력 제고 등도 결의 했다.

한국은 2012년 전임 의장국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첫째 핵안보와 핵군축, 핵 비확산이 서로 시너지를 갖도록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둘째 지금까지 핵 안보 조치가 개별 국가 차원에 머물고 있는데, 핵 안보에 관한 지역협의 메카니즘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핵 안보 분야 국가들 사이의 역량 격차를 해소해야 하고, 넷째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원전 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등을 강력히 촉구 했다. 그리고 이러한 촉구는 전체 회의에 크게 반영 되었다.

UN은 세계대전을 겪고 타생한 국제기구로서, 지구상 인류의 모든 분쟁을 전쟁 없이 해결하고 평화를 이룩하자는 것이 그 설립 목적이다.

'핵안보정상회의' 역시 '핵의 공포'를 인류가 직접 체험하고 나서 만들어졌다.

1945년 8월 6일과 9일의 일본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원폭 투하, 1986년 4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폭발 사고는 핵의 가공할 사람 살상과 문명 및 자연파괴 그리고 방사능의 끝없는 오염의 공포를 직접 인류에게 보여주었고 현재도 아직 진행형이다.

여기에 더하여 2011년 3월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핵물질을 지구상에서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자각심을 전 인류에게 갖도록 했다.

핵안보회의는 자칫 잘못하면 이처럼 인류에게 대재앙을 몰고 올수 있는 핵무기, 핵물질 및 방사능의 재앙을 사전에 방지하고 핵을 평화롭게 이용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상에 맞게 100% 달성될 수 있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핵무기나 원자력 발전소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많은 인류는 핵이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 특히 불교는 일체 중생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교의를 생명으로 삼고 있다. 핵은 물론 어떠한 살상무기도 허용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우리는 최대한 '부처님의 법' 과 '인간 이성의 힘'에 의존하여 이러한 살상의 도구들이 힘을 쓸 수 없도록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핵안보정상회의의 결의가 각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규범이 조속히 확립되기를 촉구 한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맑고향기로운 '연꽃 피우기' 20년

무소유와 나눔의 표상이던 법정 스님이 입적전까지 이끌던 시민모임 '(사)맑고향기롭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맑고 향기로운 사회야말로 법정 스님의 생애를 관통하는 지향이었다. 1993년 강원도 두메산골 토굴서 정진하던 법정스님은 우리 사회에 맑고 향기로운 '마음의 연꽃'을 피워보자는 뜻으로, 종교와 종파를 떠나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주창했다. (사)맑고향기롭게는 1994년 3월 26일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법정스님의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발족 강연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대구, 경남, 광주, 대전 등지에서 뜻있는 이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

법정 스님은 입적하기 전날 밤에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면 모두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을 정도로 이 단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셨다. 스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스님이 남긴 가르침과 향훈은 (사)맑고향기롭게를 통해 이 사회에 널리 전파되고 있다.

맑고향기롭게는 3월 30일 서울 길상사 설법전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맑고향기로운 음악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군부대 내의 책 읽는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2만 6000여 권의 도서를 국군문화진흥원에 기증하기도 했다. 또한 독거노인 자살예방 기금마련을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 일환으로 동전 모금통 배포 및 전국적으로 모금 운동도 전개한다.

이 모두가 맑고 향기로운 삶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동안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 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사)맑고향기롭게의 노고를 치하한다. 아울러 이번 창립 20주년을 계기로 점점 각박해져 가는 우리 사회에 (사)맑고향기로운 울림들이 더욱더 넓게 퍼져 법정 스님이 살아생전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맑고향기로운 사회가 되길 발원한다.

새 출발 '병불련'의 약사여래 원력

전국병원불자연합회(이하 병불련)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병불련은 3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연합대법회 및 제6대 김진섭 회장 이·취임 법회'를 열었다.

병불련은 1999년 10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불자 의료인들이 모여 창립한 신행단체다. 현재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경희의료원, 건국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국 18개 병원 불자회가 연합해 활동하고 있다.

척박한 불모지였던 병원 의료 포교의 선두주자였지만, 불교계의 관심은 적었다. 변변치 않는 사무공간도 지원되지 않아 메뚜기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런 와중에서도 다시 부처님의 자비 손길을 어려운 환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불자 의료인들이 모인 것이다.

현재 병불련 회원이 200여명 정도지만 의료진이 부족해 의료봉사를 가면 한명의 의사가 여러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새로운 병불련의 수장인 김진섭 회장은 올해를 '재결집 원년의 해'로 삼고 불자 의료인 확대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다.

또한 후원자 및 불자기업과 연계해 재정을 마련하고 치과진료시설 및 의료버스, 약품저장고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펼친다는 것이다.

병불련 회원들은 '약사12대원(藥師十二大願)'을 통해 중생의 질병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살들이다. 불자 의료인들은 한국불교의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들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원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단과 일선 신도회들이 지켜줘야 한다. 새로운 병불련의 약진을 기대한다.

"　.으
한반도 평화 통일과 불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한반도는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위협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사상적 당위성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 주최로 3월 28일 열렸다. 세미나의 기조발제와 토론문을 요약·정리했다. 〈편집자 주〉

아미타 정토사상, 남북통일 사상 기초



진관 스님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단장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북과 남으로 갈라진 분단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불교계의 통일운동은 단순히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주·주체적으로 불교의 역사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이자 과거 호국불교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남북 불교도가 공동으로 전개할 수 있는 사상은 〈정토삼부경〉에서 찾을 수 있다. 북측의 조선불교도연맹과 남측의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과의 교류를 통해 우선 북과 남의 불교도들이 한민족이라는 동질감을 일깨우는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정토삼부경〉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은 온 겨레의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분단의 고착화로 통일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이들이 늘고 있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통일은 경제적 유불리를 넘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다준다. 이는 곧 아미타불이 상주하는 극락세계의 구현이기도 하다.

나아가 남과 북의 민중들을 하나로 집결시킬 수 있는 이론은 남과 북의 불교계 모두가 거부감 없이 수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할 터이다. 이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정토신앙이 아닐까 한다. 지금 우리 팔천만 겨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 청정한 국토를 장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장비구의 48대 서원에 담겨 있는 그 정신을 되새겨보고 바르게 실천해야 할 것이다. 불교계가 통일운동에 적극 나서야만 잃었던 대중의 신뢰와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고 이는 곧 한국 불교계의 발전을 가져오는 길이다.

한반도 통일 연구에 불교계 나서야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 자치공화국에 대해 합병을 결정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마치 제국주의 시절의 '짜르' 처럼 승리를 선언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려 불안하게 하고 거꾸로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한반도는 세계열강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우리 사회의 지성과 종교인들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지혜와 뜻을 모아야 한다. 특히 조계종은 적극적인 자세로써 한반도 통일문제를 연구하고 실행하기 위해 각별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관련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증원하고 이 분야에 일하는 인사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불교계 내 평화·통일운동 관련 종단기구와 단체들이 대북정책 관련 현안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각 단체마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불교계의 통일운동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단체의 특징에 맞는 역할 분담 및 역할 재정립을 논의하는 것도 추진해 볼만 하지 않은가 한다. 불교계의 평화운동, 통일운동의 정확한 현황과 그 역량을 확인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흥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선나힐링아카데미

선나는 산스크리트어로 [중관]이라는 말로
[중심을 관하다] [중심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한글로는 선 나, 즉 일어 선 나, 바로 선 나, 의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나힐링센터에서 말하는 [중심]이란 가슴바탕의 편안한 자리를 말합니다.

SUNNA HEALING ACADEMY

명상 · 치유 · 힐링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는 선나힐링아카데미

선나힐링아카데미는 지난 20년간 명상 및 치유 전문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보급해 왔습니다.
현재 구선 스님 (김춘기)을 대표로 의사, 교수, 강사, 작가 등 전문 연구원들과 12개의 회원 병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나힐링아카데미와 함께 공부하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안내

1 생명 사상 교육 : 처음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최종 자기 완성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불교의 화엄사상과 현대과학사상, 민족 전통사상인 천부경사상에 입각하여 강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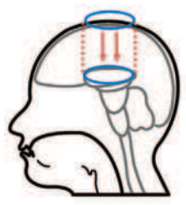
– 강의내용 :
1) 우주생명의 시작과 존재양태 – 생명세계와 물질세계
2) 영혼의 생성과 육체의 형성 – 한 생명의 세분화와 개체생명의 출현
3) 생사와 육도윤회 – 태생, 난생, 습생, 화생(4생)의 원리와 죽음의 세계
4) 우주시대를 위한 새로운 생명관.
– 교재 : 관, 존재 그 완성으로 가는 길 / 관, 12연기와 천부경



2 대승불교의 수행법 : 대승불교의 수행체계인 3관법, 3해탈법, 3무상법을 아함경, 원각경, 반야심경을 통합하여 강의합니다.

– 강의내용 :
1) 조견의 법과 중관법 – 선나
2) 오온의 법과 가관법 – 삼마발제
3) 개공의 법과 공관법 – 삼마지
4) 금강경과 허공해탈도, 금강해탈도
5) 반야경과 반야해탈도
6) 원각경과 인지법행도
7) 아함경과 구차제정 – 초선정에서부터 9선정까지
8) 심식의의 형성과 유식체계 – 생멸식과 진여식
– 교재 : 관, 쉴 줄 아는 지혜 / 관, 8진로의 수행체계 / 관, 12연기와 천부경





3 자연치유사 양성 교육 : 한 생명으로서 인간이 자연과 교감할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고 나아가 다른 생명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강의하며 진단사 과정과 치유사 과정으로 구분됩니다.

– 진단사 과정 강의내용 :
1) 중심의 형성과 7식의 발현 : 대승불교의 중관법을 통해 다른 생명과 일치를 이룰수 있는 마음바탕을 만듭니다.
2) 심진법 : 중심을 통해 상대와 일치를 이루어서 진단하는 방법을 배우며 육장육부 각각의 진단법과 의식체계, 감정체계, 몸체계에 대한 진단법이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3) 기진법 : 7식의 촉감, 즉 기운의 감각을 통해 체감각과 수장을 활용해서 상대를 진단하는 법을 배우며 원거리 기진법과 근거리기진법이 있다. 원거리 기진법은 멀리 있는 상대를 체감각과 수장을 활용해 진단하는 방법, 근거리 기진법은 가까이 있





는 상대를 체감각과 수장을 활용해서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4) 발성 진단법 : 한글 자음발성을 통해 몸과 의식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기역 발성 – 3차신경 하악분지, 턱관절, 미주신경, 셋째 뇌실의 상태 진단.
㉡ 니은 발성 – 3차신경 안분지, 비공, 뇌하수체, 송과체, 연수, 척수, 교감신경 상태 진단
㉢ 디귿 발성 – 심폐상태 진단
㉣ 리을 발성 – 임맥, 독맥을 경유하는 체감각상태 진단
㉤ 미음 발성 – 안면신경, 교뇌, 측두엽피질, 가쪽뇌실, 간비장 상태 진단
㉥ 비읍 발성 – 안면신경, 교뇌, 넷째뇌실, 신장, 췌장, 담 상태 진단
㉦ 시옷 발성 – 3차신경 척수핵 경로, 방광, 천골신경 상태 진단
㉧ 이응 발성 – 위장상태 진단
㉨ 지읒 발성 – 셋째뇌실, 간뇌 상태 진단
㉩ 치읓 발성 – 두정부피질상태 진단
㉪ 키읔 발성 – 연수, 소뇌 상태 진단. 전정기능 중 수직공간감에 대한 진단
㉫ 티귿 발성 – 시각경로와 시상, 시각피질 상태 진단. 전정기능 중 수평감각에 대한 진단
㉬ 피읖 발성 – 안면신경, 폐 상태 진단
㉭ 히읗 발성 – 의식, 감정, 의지간의 균형상태 진단
5) 뇌척수로 진단법 : 손가락과 발가락의 모양을 통해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생명경로인 뇌척수로의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기본 6가지 패턴과 총 72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 시개척수로 : 보는 생명경로의 상태를 진단
· 전정척수로 : 몸과 장부의 균형상태를 진단하고, 듣는 생명경로의 상태 진단
· 피질척수로 : 폄근의 작용과 미세운동을 주관하는 생명경로의 상태를 진단
· 그물척수로 : 수면, 각성, 신경조절물질의 분비에 관여하는 생명경로 상태 진단
· 적핵척수로 : 굽힘근의 작용과 사지관절운동을 주관하는 생명경로의 상태진단
· 소뇌척수로 : 운동, 지각, 감각을 주관하는 생명경로 진단
– 교재 : 관, 중심의 형성과 8진로 수행체계 / 다도명상 점다 / 관, 한글 자음 원리 / 뇌척수로 운동법



4 힐링 지도자 양성교육 : 앞서 제시한 수행법과 진단, 치유법 그리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힐링이 이루어질수 있는 방법을 강의한다.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강의내용 :
· 초급지도자 과정 : 뇌척수로 운동 1단계를 지도할 수 있고 식물 양자장 화분생성기와 미세전류생성기 등 본원에서 제공하는 힐링 보조기구를 활용하여 치유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중급지도자 과정 : 뇌척수로 운동 2단계를 지도할 수 있고 손가락과 발가락의 패턴으로 간단하게 뇌척수로의 상태를 진단할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 고급지도자 과정 : 초급, 중급 과정을 이수하고 상황에 따른 운동처방과 발성처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5 학습지도자 양성교육 : 올바른 교육의 목적과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강의내용 :
· 1단계 – 베타파 학습 지도자 과정 : 의식과 감정과 의지가 서로 다투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상태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얻을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지도해줄 수 있는 과정으로 의식 감정 의지가 다툴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고 교정해줄수 있는 과정이며 뇌척수로 운동법중 적핵척수로 운동법과 자음발성법 중 기역, 니은, 미음,비읍, 이응 발성이 쓰여집니다.
· 2단계 – 알파파 학습 지도자 과정 : 가슴에 세워지는 편안함을 바탕으로 인식하고 기억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지도해줄수 있는 과정으로 3관법이 활용됩니다.
· 3단계 – 세타파 학습 지도자 과정 : 가슴바탕에 세워지는 편안함과 머릿골 속에 세워진 아무렇지 않은 마음을 통합하여 다른 생명과 조화적 교류를 행하고 스스로의 생명을 더욱 아름답게 가꿀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지도해줄 수 있는 과정입니다.
– 교재 : 도넛츠 학습법



6 고려시대 전통 다도 교육 : 고려시대 다도법인 점다법과 전다법을 통해 재료와 사물의 생명성을 인식하고 교류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강의내용 :
1) 점다를 이루는 기본 요소인 '물, 불, 용기, 차' 의 원리를 파악하고 각각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아 본성과 의식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2) 물이 끓는 13단계를 배우고, 재료에 따라 물에 넣는 시점, 불에서 내리는 시점, 차를 뜨는 시점을 배웁니다.
3) 재료에 따라 각각의 고유의 성분과 효능을 최대로 표출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몸의 균형과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4) 빈객과 일치하여 상대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차를 만드는 방법을 배웁니다.
5) 기본 녹차 보이차 과정에서부터(초급) 커피 (중급) 각종 약초 및 전문 한방 약차 과정(고급)까지의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교재 : 다도명상 점다

7 양자물리학과 양자의학 교육 : 동양의학과 양자의학의 연관성 및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과 양자물리학의 연관성에 대해 강의합니다.

– 강의내용 : 양자의학 및 양자물리학 개론, 대체의학에서의 에너지의학과 양자의학, 생체광자와 양자의학, 양자생물학, 양자의학 이론, 후성유전학과 양자의학

8 한글 교육 : 한글 자음, 한글 모음, 한글 문자에 깃들어 있는 천부사상을 배웁니다.

– 강의내용 : 한글은 단순히 표음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자음은 천지만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표시한 것이며 한글의 모음은 천지만물의 개체성을 보존해주기 위해 만든 것이며 부도지에 이르기를 천지만물은 천부8음인 려상에서 나왔다고 했으며 우리 민족의 시조인 마고가 창조물이 소멸되는 것이 안타까워 율상을 만들었다고 하였으며 이때의 려상이 곧 자음이며 율상이 곧 모음입니다.
– 교재 : 관, 한글자음원리 / 부도지



9 전통문화컨텐트 교육 : 전통문화에 깃들어 있는 사상을 읽는 법을 배우고 옛 사상과 기존의 과학사상을 하나로 합쳐 새로운 문화와 신기술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웁니다.

교재출판



교재는 개별 구입 가능합니다.



관, 한글자음원리 2008년



관, 쉴 줄 아는 지혜
(반야심경 강설) 2005년



관, 중심의 형성과 여덟진로의
수행체계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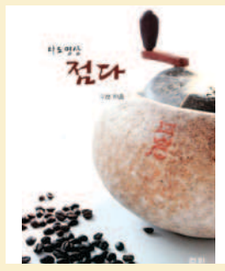
관, 심이연기와 천부경
2008년



뇌척수로 운동법 2012년



도넛츠 학습법 2012년



다도명상 점다

선나힐링 센터의 특허등록 제품들 : 선나힐링침대, 점다용 도구일체, 친환경 미세전류 생성기, 친환경 양자장 화분생성기, 건강 기능성식품 해령천다

SUNNA HEALING ACADEMY 선나힐링아카데미
서울 종로구 평창동 595 갑을시티텔 B1F
TEL 02)766-8145 / FAX 02)765-8145
E-mail : on@sunna.kr www.sunna.kr